

몇몇 팀의 불충분한 critic 준비도 있었지만 선택한 해체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부터 그에 대한 시각적 효과와 발표체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한 팀도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다른 건축물을 분석할 때 해보지 못한 방향으로의 접근도 배우게 되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어서 공개 critic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상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10팀을 critic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 것 같다. 학생들만 보더라도 자기 팀외의 다른 팀의 작업과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것 같았으며 초반, 중반기를 지나가자 Tutor들도 지쳐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해온 작업들중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또 접근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향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 많은 기대를 했으나 시간상의 이유와 또 다른 여려가지 여건상 정말 critic다운 critic은 되지 못한 것 같다.

또한 본 과정의 합숙기간중 있었던 토론회조차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차라리 큰 주제를 놓고 학생들 각자의 의견과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청해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말뿐인 토론회, 진정 토론회라고 이름 불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지고 그 자리를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

캠프에 참여하면서 팀 멤버들 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의견을 종합시키는 작업이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움으로 인해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작업후 지금까지 그런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학생들도 더러는 있는것 같다. 서로의 건축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이러한 대립이 발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작업을 진행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물론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종합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한 토론회로 인해 학생들간의 진정한 토론을 성립시키기 어려웠으며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며 한사람의 건축인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배워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발언만이 있고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 어느 건축가의 말이 마음깊이 느껴졌다. 그리고 선정한 주제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하나의 방향에서만 접근해 감으로 인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든다.

한달의 캠프 참여기간동안 얻은 소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대전

시내의 몇 안되는 학교에서 조차
만남의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
다. 물론 대전시내 건축을 전공하
는 학생끼리의 만남을 위해 매년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학생들
개인과의 만남은 아니었다. 학생
회 주최의 학교간의 교류도 활발
해야겠지만 학생들의 퍼부에 직
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이 만들어져 많은 만남의 기
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디
자인 캠프와 같은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의 확성화와 각 학교간의 정보교환 및 공동세미나 개최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캠프 참여 기간동안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고 공동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건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정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 생각하며 앞서 캠프에 참가했던 선배들처럼 후배들에게 즐거웠던 경험과 느꼈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해주려 한다.



〈설계학교 수료식〉

건축디자인 캠프 참가학생 설문조사

1. 교육기관에 대한 의견

- ① 한달간이 바람직(5)
(의사교환과 준비, 생각에 충분)
 - (6)
 - ② 15일 정도가 바람직 : 예비
과정(10일)+본과정(5일)(4)
(한달기간이 너무 길다.)
 - ③ 합숙훈련(본과정)은 1주일
정도 : 2박3일은 너무 짧다.(크리
틱+수정+마무리+친목)(5)
 - ④ 본기간(1개월) + 예비과정
(1학기)(1)
 - ⑤ 시작일정이 너무 이르다.(학
기중이어서 시간투자 못함)(11)
방학시작후
 - ⑥ 길었다.(일주일정도가 바람
직)(5)
 - ⑦ 예비과정이 길었다.(3)

결과

- ① 한달간의 기간에는 긍정적 만족도 보임.
 - ② 캠프 시작일(방학후)과 본 과정(1주일정도)의 기간을 조정 원함.

2. 교육방식(Tutor system)에

과학 의경

- ① 학생과 컴퓨터와의 대화에 도움.(토론시간)(5)
 - ② 전답컴퓨터라서 의견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3)
 - ③ 전답컴퓨터+전체적 교육의 명해희망(2)

(공동Tutor방식 : 다른팀 투터)

- ④ 다른 팀 튜터의 크리틱도 공동으로 듣고싶다.(1)
 - ⑤ 튜터들의 소극적, 소신없는 태도가 불만족(서로 입장생각)(1)
 - ⑥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희망(전시적, 수동적, 능동적 관계 필요 팀의 자율성, 창의성 발휘토록)(5)
 - ⑦ 튜터들의 style에 맞춰야 하는것에 불만(튜터의 개인의견에 좌우)(4)
 - (지도차원만 원함)
 - ⑧ 학생과 튜터간의 인간적 관계위한 충분한 시간 필요(1)
 - ⑨ 튜터의 독특한 건축관 접해서 좋다.(3)

⑩ 팀 구성원과 튜터의 동일학교 배경이 팀 의견 조정에 방해가 된다.(4)
(튜터 교수의 지도방식을 따르므로서)

- ⑪ 1튜터 1팀 지도보다 2튜터 복수팀 지도가 자율성에 좋았다.
(1)

⑫ 결과에 접근 못했다.(조직적 운영희망)(1)

⑬ 실무 소장님들이 바쁜 탓으로 빈번한 만남과 교육이 부족(2)

⑭ 일관성있게 주제를 다루기 위한 튜터들간의 사전준비가 미흡
(1)

⑯ 학생간의 의견충돌의 조정 위한 중계자의 역할도 필요(1)

⑯ 퓨터당 2~3개월이 시간, 정 도등 약속 곤란(1퓨터 1팀회망)
결과

① 퓨터제에는 대체로 만족하나 지도방식에는 불만족

② 퓨터의 태도, 의견조정, 방 향제시등이 학생입장이지 못했다 고 함

③ 교수와 건축사 상호간의 의 견 발언의 소극적

3. 교육내용에 관한 의견

① 자유토론 시간과 개인시간이 부족했다.(2)

② 서로 상이한 건물을 팀별 주제로 한것이 좋았다.(1)

③ 건축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었으면(1)

④ 현실적인 교육문제 외에도 인간적 문제도 고려(학생-선생) (1)

⑤ 긴 기간을 충분히 활용 못 했다.(1)

⑥ 타인의 개념, 생각을 접해서 좋았다.(독특한 주제가 작품분석) (7)

⑦ 광범위한 주제 설정에 의한 혼란함(좀 더 정확한 방향설정 필 요)(1)

⑧ 팀의 자율성 발휘되는 교육 내용 필요(1)

⑨ 주제와 규모중에서의 공통 점을 통해 상호 비교 교육도 필 요함(1)

⑩ 해체와 재구축보다는 설계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 다뤄야함(1)

⑪ 주제 선택이 현실적이고 설 계공부에 유익한 체험적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1)

⑫ 주제에 알맞은 project가 설 정되지 않았다.(주제 축소로 구체 적 교육 회망)(2)

⑬ 퓨터들의 일관된 해석의 결 여로 의견 충돌과 혼란있어서 사 전 준비 필요(1)

⑭ 주제가 너무 힘들었다.(1)

결과

① 현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실제적 학습내용의 보완을 회망

② 주제에 알맞는 project 설정 이 필요함

③ 주제에 대한 퓨터들의 일관 성있는 사전준비 필요

4. 특강에 관한 의견

① 많은 초청이 좋았다.+대전 지역의 교수, 건축사님 특강도 기 대(12)

(유명한 서울 새로운 건축과 건 축가+교수)

②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 어서 빛나갔다.(내용번역)(9)

③ 건축의 분야도 듣고 싶다.(1)

④ 특강횟수가 적었다.(2)

⑤ 한정된 시간에 내용전달의 일관성부족, 질문토론시간 부족 (3)

⑥ 특강의 장소가 부적합(1)

⑦ 일반학생도 들었으면(1)

⑧ 중간에 진행된 특강이 적합 했다.(강의실 아닌 진행에 도움되 는 것도)(1)

결과

1 특강 자체는 좋았으나 토론,

질문시간의 고려필요

- ② 특강이 주제에 맞도록 일관성 필요

토 론

5. 캠프운영에 관한 의견

- ① 무난(4)
- ② 좀 길었다.(1)
- ③ 시내와 너무 멀다.(1)
- ④ 한곳에서 정해놓고 함께 작업 진행이 팀의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2)
- ⑤ 회비가 부담됐으나 좋았다.
- (1)
- ⑥ 돈이 너무 들었다.(1)
- ⑦ 합숙기간 연장에 건축 및 인간관계 시간 갖어야(1)
- ⑧ Tutor의 참여가 저조(특히 건축사들)(1)
- ⑨ 돈을 타서 재료구입은 번거로워 안좋았다.(1)
- ⑩ 크리틱시 일정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1)
- ⑪ 캠프인원이 전부 모일 수 있는 모임과 토론의 기회가 필요(2~3주간 간접적으로)(2)
- ⑫ 작업장소의 고려가 미비(미팅장소, 작업시간, 환경열악)(3)
- ⑬ 의견조정 및 작업과정에 대한 퓨터들이 지도나 특강들이 부족(1)
- ⑭ 팀원간의 상견제 및 주제 과학의 시간적 여유 필요(1)
- ⑮ 친목도모가 적었다.(캠프파이어)(1)
- ⑯ 학생위하기보다 외형적인 면에 치중(자유토론 시간 부족, 필요기자재의 공급 신경 요망)(1)
- ⑰ 강제성과 규율이 필요(1)

결 과

- ① 대체로 무난하였으나 캠프 구성원의 토론과 모임, 친목을 위한 고려가 부족했고

- ② 빈번한 장소 이동과 필요 시설 부족

6. 교육장소에 관한 의견

- ① 샤워, 식사 등은 좋았으나 설계에 필요한 기구가 부족, 불편 (9)

- ②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넓은 제도실, 밤새작업, 복사실, 물 품자유)(8)

- ③ 예비과정시 장소모임에서 돌아다니기만 했다.(조별모임 장소)(8)

- ④ 숙식없어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 필요(2)

- ⑤ 본과정 장소는 만족(피곤, 시간낭비)(7)

- ⑥ 건축사 회의실이 협소(팀간의 교류결에)(2)

- ⑦ 설계사무소 학교의 분위기 접해서 좋았다.(1)

- ⑧ 공적의 강의외에 사적인 스터디 장소 부족으로 시간 손실했다.(1)

- ⑨ 예비과정도 특정장소에서 모여서 의견 교환필요(1)

결 과

- ① 본 과정도 시설면에서 만족 스러우나 설계제도 환경은 불편

- ② 예비과정중 장소이동, 공간과 시간 등이 불편함으로 공동의 장소가 필요

7. Critic에 관한 의견

- ① 주제의 다양성에 기인된 크

리틱 과정에 불만족(3)

- ②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문제점 지적과 방법을 제시)(2)
- ③ 학생과 함께하는 크리틱이었으면(2)
- ④ 충분한 시간갖고 개별적 크리틱 필요(8)
- ⑤ 시간부족 이유로 크리틱 부족(충분한 시간 필요)(2)
- ⑥ 혼란만 가중됐다.(1)
- ⑦ 발표위주보다 실제적 크리틱 필요(1)
- ⑧ 퓨터의 사전 준비가 부족(1)
- ⑨ 크리틱 이전엔 작품배경 이해하고 해야(7)
- ⑩ 선생들간의 자존심 보존위한 소극적 태도 불만(수박겉핥기식)(3)
- ⑪ 주제에 맞는 개념의 충실보다 면적, 건폐율등등은 불만(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난 질문)(3)
- ⑫ 마감직전의 크리틱은 안좋았다.(2)
- ⑬ 과정중 프로그램에서의 건축은 요소, 본질에 대해 토의 요망(2)
- ⑭ 전체보다 2~3개에 대한 많은 토의할 것(1)
- ⑮ 전당 퓨터회에 다양한 건축사 교수들의 의견 모집했다.(2)
- ⑯ 크리틱다운 크리틱을 받았는지 회의(1)
- 시간찾기듯 표면적인 얘기만 있을뿐(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1)
- ⑰ 다른 크리틱도 들고 싶다.(1)

결과

1. 크리틱의 진행방법, 시간, 길이, (수질)등에 상당히 불만

② 일방적 아닌 참여식, 토의식 필요

③ 이해없는 즉흥적 크리틱 절제하고 일관성 있는 크리틱 필요

8. 기타 건의 사항

- ① 예비과정중 잊은 결석자에 대한 규제 필요(1)
- ② 퓨터간의 의견충돌이 있으나 토론식 해결이 못되었다.(1)
- ③ 도면 마무리는 합숙훈련 이전에(1)
- ④ 합숙첫날 크리틱 했으면 작업시간 충분히 줘야(3~5일)(1)
- ⑤ 합숙전날 크리틱을 미리하자(1)
- ⑥ 합숙기간 짧아 친목 부족(1)
- ⑦ 토론회는 조별로 나누어 의견교환 하는게 좋았다.(깊숙한 대화 위해)(1)
- ⑧ 팀수가 많아 크리틱 시간에 깊이가 없었다.(팀수 줄여 심도있게)(1)
- ⑨ 토론시간이 매우 상큼했다.(2)
- ⑩ 팀원간의 의견 충돌 조정에 신경을(1)
- ⑪ 체육대회를 합숙기간에(1)
- ⑫ 퓨터팀와의 타팀은 교류, 친목을 못한다.(1)
- ⑬ 팀원과 퓨터가 조별이길(1)
- ⑭ 퓨터의 적극적 지도 부족(1)
- ⑮ 뒤풀이(1)
- ⑯ 모형비가 부족했다.(1)
- ⑰ 2박3일은 짧다.(학교가 좋다.)길게 하자(1)

제 6 차 건축 디자인 캠프 종합 토론

- 일 시 : 1994년 12월 14일
 - 장 소 : 한남대학 연구실
 - 사회자 : 길성호 교수
 - 참가자 : 김억중 교수, 이왕기 교수, 길성호 교수
최진 회원, 이광수 회원, 서범철 회원
 - 정 리 : 최 진 회원

〈개회〉

· 교장: 김억중 교수

바쁘신 시간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제6차 건축 디
자인 캠프가 지난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동안 다른 해에
비하여 긴 여정 동안, 각 대학교
수님과 건축사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캠프
기간동안 참석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문제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보려고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주시어
앞으로의 디자인 캠프가 좋은 결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 : 김성호 교수

디자인 캠프가 끝나고 참석한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개선해 나갈 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점을 하나씩 토론하고 전체와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 가를 토론의 방향으로 합시다.

첫째, 교육 기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예년과 달리 예비 과정과 본 과정을 분리하여 예비 과정이 한 달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다만 예비 과정기간이 학기중인 관계로 시간을 할당하기가 어렵다는 의견과, 본 과정의 2박3일 기간은 크리틱과 수정하고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짧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참여하신 블터 선생님은 어떠한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억중 교수 : 교육 기간이 교육 내용과 과정 등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과정과 본 과정으로 나눈 뜻은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데에 주된 뜻이 있었는데, 한 달간이라는 기간이 양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중적인 효과를 거두는데는 기대만큼의 효과에는 상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며, 중요한 것은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정도 집약

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의 설정과 과정을 잘 수용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광수 소장 :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장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장소 문제로 인하여 기간 및 교육 프로그램이 조정되고,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교육 기간과 내용 과정은 컴퓨터가 얼마큼 하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평가하기로 하고, 일단 한 달이라는 기간이 사실 저희 건축사로서는 부담스러운 기간입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간 문제는 저희 건축사 입장으로서는 조절했으면 좋겠고, 장소 또한 한 장소에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숙 훈련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서법철 소장 : 제 의견도 이 광수 소장과 비슷합니다만, 시간을 할애하기가 무척 힘들다 보니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동안에 계속 참여할 수가 없고 한 주 일을 불참석시 다음주의 토론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되지 못하다보니 지도의 방향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기간을 조정하여 2주일 정도로하여 예비 과정과 본 과정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왕기 교수 : 제 6 차 디자인

캠프는 기존에 하였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예비 과정과 본 과정으로 나누어 계획, 시행하였습니다. 예비 과정을 둔 것은 예전 방식을 보완하여 보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각 학교에서 개체별로 디자인 교육이 되었던 것을 예비 과정에서 어떤 모든 학교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디자인에 대해서로 결정된 개념을 필드에서 뭉쳐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하여보니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한달간이라는 긴 기간이 튜터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문제는 예비 과정을 소프트하게 강의 중심적으로 운영하여 강의를 끌내고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과정을 하드하게 제1차에서 제5차까지 시행하였던 방법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최진소장: 저도 또한 기간이 길었다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며, 디자인 캠프를 마치고 난 지금 시점에서 돌아켜 볼 때 계획 당시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었나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 생각으로는 계획 당시 의도대로 진행이 되려면 우선 캠프 시작에 앞서 컴퓨터의 회의를 통하여 지도 방법 및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향 설정 등의 의견 조정 및 지도 방법 결정들을 정하면 학생을 지도할 때에 일괄된 하나의 정점으로 진행될 것 같으며, 예비 과정과 본 과정을 나누어 이왕기 교수님 의견과 같이 예비 과정은 강의 중심적

운영과 본 과정을 짧은 기간에
집약하여 시행한다면 기간의 문
제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올
해와 같이 튜터의 어려움도 많이
해소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 길성호 교수 :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도하신 분이나 학생이나 교육 기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예비 과정은 있어야 겠다는 것은 결론이 나있고, 다만 예비 과정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튜터나 학생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며 예비 과정을 융통성있게 계획을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간으로 압축하여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기간에 대한 문제는 내년 캠프 준비시 참고하시고 두번째는 교육 방법, 즉 튜터 시스템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의 종류가 15가지 정도로 나왔으며, 디자인 캠프 진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보면
튜터 시스템에는 만족한다는 생각이나, 튜터 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튜터의 지도 방법이나 의견조정, 방향 제시 등이 학생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지 않고 튜터의 의견대로만 따르라는 것이 아쉬웠고, 2인 튜터 시스템에 있어서 교수와 건축사 두분간의 지도방법이 상호 입장을 감안하였던 것인지 조금은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인 서로의 의견이 간론

을박하며 디자인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옆에서 보는 학생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며, 또한 교육기간동안 퓨터를 쫓아 다니는 시간은 길었으나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직접 지도하여 보신 퓨터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 김억중 교수 : 사실 제 6 차 디자인 캠프는 어떤 면에서는 출 속하게 운영방식이 결정된 것 같았으며 주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건축 설계 학교는 특별한 설계 이념과 우수한 건축가를 표방하고 일괄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한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능력, 또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보여준 건축가들의 다양성을 들어내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다각도로 건축 문제에 접근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 역시 근본적 취지라 생각합니다. 우리팀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비중을 두겠다 하는 어떤 대전제를 두고 하는 팀과 또는 어떤 팀은 정반대로 우리 팀은 이상주의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지향적으로 문제 해결 자체에 중점을 두겠다하는 팀 등 다양성 있는 지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퓨터 간의 이해차이와 준비 부족으로 오지 않았나 하며 내년에 퓨터

지도 방법을 계속한다하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교수님 1인과 건축사 1인의 한팀 운영에 있어 디자인 접근 방식에 서로간의 호흡이 맞게 구성되었는지, 배려가 잘 되었는지 궁금하고, 내년에는 우리 설계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을 최대한 이용하여 좋은 콤비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캠프 시작전에 퓨터간의 충분한 사전 준비 검토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왕기 교수 : 지금 우리가 컴퓨터와 학생간의 대화, 교수와 전 축사간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은 대전 지역에 인적 자원의 부족함을 실감하며, 앞으로 컴퓨터와 인적 확보에 한층 더 분발하여야 하며 주제 문제에 있어서는 법규 우선 원칙이냐, 아니면 디자인 우선 존중이냐 하는 문제이지만 어느 쪽에 우선 원칙을 둘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주제와 얹혀 있는 문제입니다.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것은 법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이었을 것이며 어떤 것은 법규를 우선적으로 해석하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번 같이 다양한 주제 하에서는 이런 문제 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주제는 다시 검토 고려하여 보고 법규에 너무 얹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점이 발생되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길성호 교수: 저도 사회자이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2인 퓨터제라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생각하며 앞으로는 1인 1퓨터제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여러가지 해석이 있었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건축사님들을 통하여 배워보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교육을 많이 받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디자인쪽에서 많이 가르쳤다 하면 실무하시는 입장에서도 디자인 쪽에서 가르치면 좋은 결과가 어떤 점수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 진 소장 : 김억중 교수
님의 말씀과 같이 집단 지도 체제
방식보다는 투터 방식이 효율적
이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접근
하기가 쉬운 방법이라 생각되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스터디 그
룹 및 견학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튜터간의 사전 조정, 교육 등으로
디자인 캠프의 주제, 교육의 방향
을 정하고 심중한 토론을 거쳐
실행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이왕기 교수: 그런 측면에서
튜터들끼리의 모임이 사전에 충
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획

한 건축 아카데미와 스터디 그룹은 이러한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길성호 교수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공부도 하고, 우리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자기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나타냄으로써, 저 소장님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작품은 무엇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 학생도 나중에 튜터 선생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저분은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가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진 소장: 그렇습니다.
터 방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
분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
금까지는 강하게 표출되지 못하
였고, 표현되기를 원하였지만 그
쪽으로 접근되지 못하였으며, 이
러한 계기를 통하여 자기 수렴을
시킨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정
착이 되겠지요.

* 길성호 교수: 정리를 하면 투터 문제에 있어서 투터 방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단지 1인 1투터이냐, 2인 1투터이냐는 문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개선하기로 합시다. 다음은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봅시다.

첫째, 현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실제적인 학습 내용의 보완을 희망한다는 의견과, 둘째, 프로젝트가 주제와 맞지 않

으며, 셋째, 주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퓨터의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고, 넷째, 설계사무소에서 다루는 실제적인 가능한 내용을 다루었으면 좋겠다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억중 교수 : 이번 주제에 있어서의 해석은 여러가지의 의견이 발생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은 해체라 보고, 그 교훈을 오늘 우리 여기라는 테이블에 새롭게 그려내 본다는 것을 재구축이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광범위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의미가 역시 우리 퓨터 선생님들간에 전제적인 주체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이해 차이가 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래에 5회까지 고집해온 "도시와 건축"이라는 테마를 해체와 재구축으로 넘어가는 논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도시와 건축에서 해체와 재구축으로 택하였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속하게 처리된 데도 원인이 있겠죠. 내년도에는 주제 한도에 있어서 파연 도시와 건축이라는 큰 테마를 유지할 것인지 만약 유지하지 않겠다하면 우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광수 소장 : 저희들이 주제를 적절했다 안적절했다 판단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범위가 광범위하였다느는 느낌입니다. 저희 팀은 아래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식으로 용도변경하고 대수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로 함축을 시켜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는 좋은데 튜터의 준비가 부족했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주제였다하는 생각입니다. 주제의 일관성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며, 다만 그 분야 중에서 건축의 역사측면이면 역사, 어휘측면이면, 어휘,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 서범철 소장 : 저는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도시와 건축”의 주제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제6차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처음 참여하였는데 우리 자체도 이해하기 조차 힘들은 생각이 듭니다. “해체와 재구축”을 “도시와 건축”과 비교하여 보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해체와 재구축”이라면 우리 대전시와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도시 발전을 보면 아무래도 “해체와 재구축”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라는 것이 한없이 방대하게 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도시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즉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므로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주제는 좋았었다하는 생각에서 계속 이 주제를 적용하여 내용을 적립하며 학생들에게 이어지는 전통같은 필요성도 느끼게 하였으면 합니다.

* 김억중 교수 : 사실 이 테마를 갑자기 생각한 것은 “도시건축” 쪽에서도 뭔가 잘 쓰려면 잘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큰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곧 바로 물리적인 테마라기 보다 하나의 개념이죠. 뭔가를 읽어서 읽은 것에서부터 교훈을 찾아서 재투영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해체와 재구축”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최진 소장 : 하나의 대지를 놓고 하나의 대지에 어떤 건물을 넣느냐 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올해는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넓은 주제를 놓고 어느 한 건물의 위치에 대해서 그 건물을 읽고 그 건물이 잘 들어섰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하는 폭넓은 주제를 준다고 한 것인데 학생들이 단어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였으며 튜터들도 주제 내용 해석이 충분치 않았던 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왕기 교수 :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그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튜터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일관성이 없이 이어진 것이 원인 같군요. 우리가 “해체와 재구축”이라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존의 건물을 한번 읽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그 얘기는 다 빠져버리고 대상을 가지고 이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제와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방법론까지 전달하였으면 지도하시는 튜터들이 빨리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일괄성있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억중 교수: 그렇게 된 배경은 사실 튜터들이 평소에 늘 건축 활동을 하면서 마음속이나 머리속에 염두에 둔 교훈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을 선정하여 달라고 한 것을 짧은 시간안에, 어떤 작품을 읽어 내려면 미리 생각하여 두었던 건축물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실제로 읽어내는 과정에서도 그 건물이 왜 튜터들이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검증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대상을 읽어낸 내용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다양한 해석을 기대하겠습니다.

* 이왕기 교수 :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퓨터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같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연한 생각하에 인식 체계가 공통되어 있다 추상하였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서브젝트를 정확히 정해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

* 길성호 교수 :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다음은 특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강은 예년과는 달리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는데 질문 시간이 없었다, 10분 듣고 1분 질문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어떤 특강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지 않았다, 조금 주제를 압축해서 해석하여 주면 좋겠다, 장소 문제는 협소하고 안 좋았다, 특히 12명의 응답이 나온건 특강은 좋았고 대전 지역의 건축사님과 교수님의 특강이 들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다 또는 이렇게 읽어와라 하는 것 보다는 먼저 대표적인 케이스를 교수님들이 읽어서 나는 이렇게 읽었다, 저렇게 읽었다 하고 토론을 한 다음 그런 것을 집어 넣어 주면 예비 과정이 한달이 아니라 2주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도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 특강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분 한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왕기 교수: 디자인 캠프 주제와 특강 주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적어서 조금 빗나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특강은 우리가 직접 관계가 적었다는 것은 주제가 정하여 절대는 작품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축하자는 의견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퓨터가 정하는게 아니고 유명한 작품, 예를 들면 외국인의 작품들을 해석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정 한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선정하고 초청강사를 초빙하였으나 중간 과정에서 처음 계획되었던 의도와는 다르게 대상 물이 선정되었으며, 강사는 이미 초빙이 됐고 그러다보니 주제가 조금 빛나갔다는 의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길성호 교수 : 제 생각에는 작품을 우리가 국내쪽에서 선정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수출당을 선정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 작품을 어떻게 읽고 디자인을 했는지 수출당 설계한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작품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분들 한테도 자기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학계에서 연구하는 분들의 자료를 종합 발췌, 분석하여 퓨터분들께서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읽혀 주면 학생들에게 더욱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왕기 교수 : 학생들의 주제와 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대전 지역의 교수나 건축사님의 건축 활동 및 작품 세계에 대하여도 관심이 있으니 다음에는 이 점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 길성호 교수 : 다음으로 캠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은 무난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캠프 구성원의 토론과 친목을 위한 고려가 부족했고, 빈번한 장소 이동과 필요 시설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한군데 정해 놓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시내와 너무 멀다 등등, 전원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공동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럼 교육 장소와 운영 문제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하여 봅시다.

* 최진소장 : 운영을 하면서 한달 동안이라는 긴 기간이 문제였지만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고 그럼으로써 장소에 대한 문제가 난점이었습니다. 한달이라는 동안에 장소를 대여할 수도 없고 하여 궁여지책으로 협회 5층을 선택하여 장소가 비좁았고 또한 문제는 강의할 때 특강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 팀간에 교육 장소로 건축사 사무소를 정해서 시행하려 했는데 대전 건축사 사무소 운영상 학생 한팀만 와도 건축사 사무소가 전폐를 해야 될 판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 교육 기간과 같이 병행돼서 조정해야 될 내용이지만 2주로 한다면 1주일은 예비 교육으로 해서 강의 중심 교육을 하고 1주일 본 과정은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한곳의 장소를 선택하였으면 합니다.

* 이광수 소장 : 일단은 장소가 문제인데 장소가 저희들 캠프가 예비 과정이든 본 과정이든 장소가 지정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찾아오고 찾아가고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어떤 방식이 됐냐면 각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학교에서 장소를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학생들은 나와서 특강 들다 다시 들어가고 또 거기서 퓨터 선생님 한테 가서 체크 좀 받아와라 그러면 다시 이동하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 문제는 예년에 했던 방식이 어떤가 합니다. 물론 담당하는 학교에서는 애로점이 많지만 어차피 이번도 저희가 신협 연수원을 빌리면서 경비지출은 다 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장소만 빌려주고 나머지 부대시설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장소도 해결되고 강의 장소도 해결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때는 가고 싶어도 저희 팀의 장소가 7시가 넘으면 문을 닫으니까 가서 해 주고 싶어도 못가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한 장소만 정해지면 저희가 학교에서 건축전을 할 때 보면 24시간 누구라도 상주하니까 어느때도 가서 볼 수 있고 이동도 적고 또 기간 문제가 우려되는데 장소만 결정되면 기간은 4주 또는 3주가 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건축전 할 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숙식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시간이 너무 소모되는 게 문제입니다만 방법은 교정을 하되 예비 과정과 본 과정을 한 곳에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고, 체적인 방법은 제시를 해야 되는

데 그냥 문제점만 턱 던져주고 말았다는 의견과 집중적으로 넌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해결책의 질문이 아닌 의문만 던져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간에 자존심 보존을 위한 소극적인 태도가 불만이다. 수박 걸 할기식이다.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야지, 방향과 다른 질문이었다. 그 다음 크리틱에서 진행 방식에서는 마감 최종 크리틱이 안 좋았다. 다 해놓고 나서 크리틱하고 하루만에 마감하라고 하니까 결례 조각이 되어서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였다. 크리틱다운 크리틱을 받았는지 회의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에 대해서 결국은 크리틱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 김억중 교수 : 크리틱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지적돼야 합니다. 크리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크리틱의 시간 배정상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겠죠. 크리틱이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아까 프로그램 주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컴퓨터 선생님이 어떤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크리틱이 돼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내용 자체가

크리틱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의 크리틱이 아니라 해도 크리틱으로서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역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다같이 노력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 이왕기 교수 : 크리틱 문제는 우리가 자성의 문제로 결론짓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생들이 말하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 들이는 걸로 답변해야 하며 또 무리입니다. 왜 무리냐면 그 없는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에 맞춰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사무실에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만한 보상이 전제가 된다면 만족한 크리틱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운영상의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크리틱의 질 문제로 우리 자신의 문제니까 앞에서 거론된대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수준이 높은 크리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길성호 교수 : 말씀 고맙습니다. 2시간에 걸쳐 수고를 해 주셨는데 기타 내용으로는 교수님과 건축사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은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의견과 본 과정의 2박3일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고 단합대회 같은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 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견이었으며

그럼 이만 마치기로 하고 내년 95년도 디자인 캠프에서는 94년도의 교육 방법적인 운영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3년정도 참여하다 보니 이건 설계 경기도 아니고 학생들 작품 발표식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나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작품을 하면 캠프기간내 끝낸다 하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도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 크리틱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터 자신들의 명예도 있고 하니 어떠한 작품이든지 내놔야 되거든요. 기왕에 그렇게 될 바에는 예비 과정과 본 과정을 합쳐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설계 경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길성호 교수 :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학교에서나 다른 장소를 대여하여 집행을 하여도 비용은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하여튼 학생 의견도 공통된 점을 취합해 보면 지정된 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퓨터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고 자기들도 시간을 정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틱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도 방식의 한 일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크리틱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크리틱의 진행 방법, 시간, 크리틱에 대한 수준, 깊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 요소가 많습니다. 일방적인 크리틱이었다는 의견과 크리

굉장히 페이퍼되어야 할 수준이라 하더라도 뷔터 선생님팀의 과정상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중요한 결과로 서로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크리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그 팀에서 표방한 것과 그 표방한 것이 결과되어 진 것과의 어떤 괴리나 혹은 잘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주는 그런식의 크리티이 되면 다들 만족스러운 크리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조차 없이 임하다 보니 그런점이 크게 반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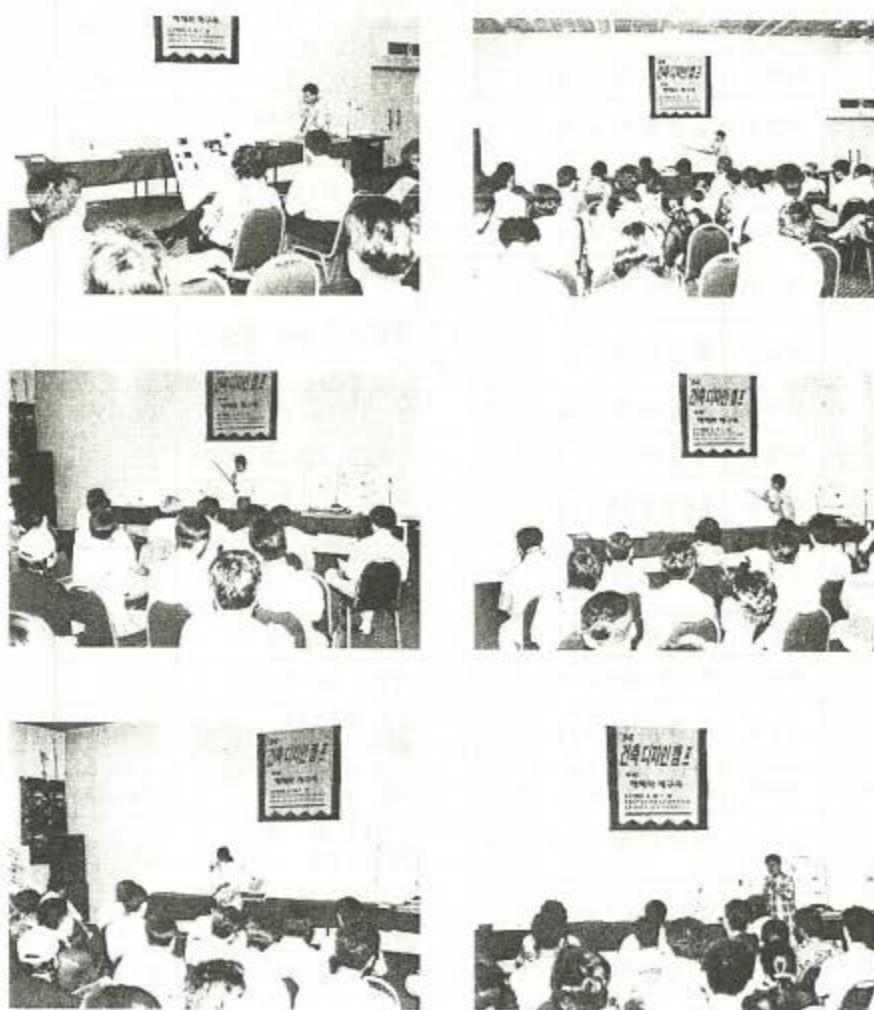
* 서법철 소장 : 학생들이 우선 교수님들이나 퓨터 선생님들의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만 제기하고 답을 안줬다하면 건축에는 답이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것에 대한 토론같은 거야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크리틱을 학생들이 잘만 이해하였다면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시간 없는데 나와서 약속은 2시간인데 4시간이 넘어가도록 했었잖아요. 문제점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군요.

* 최 진 소장 : 제 생각은 그
래요. 이게 너무 운영상의 시간에
쪼들립니다. 왜 쪼들리냐면 디자
인 캠프를 하시면서 매년 최종적
인 결과에 너무 치중하였다고 볼
니다. 맞추어진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작업 시간은 줘야겠
죠. 크리티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짧게 짧게 잘라 나
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불만
족스러웠고 또 결과물 자체도 불
만족스러웠고, 너무 결과물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억중 교수 : 아주 좋은 말
씀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크
리티이 미흡하다고 느낀 것은 이
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야! 너 거기 음정 들
렸어. 박자 놓쳤어.” 이런 지적은
학생의 기량을 높이는데 전혀 도
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렸으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너 손놀
림이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하면 이 사람은 이것을
고치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지적한 수준이 음정
이 문제다, 박자가 문제다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으면 다 지적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지적이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
리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
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학생의
원인이 만약 잘못된 해석이라면
왜 잘못 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째 깊이 줄

팀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적었으므로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방향 제시가 확실치 않았다. 즉, 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 연구하며 더욱 알차고 실속있는 캠프를 준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같이 경주하기로 하며 이만 94년도 디자인 캠프 결산 토론회를 끝낼까 합니다. 아무쪼록 94년도 디자인 캠프에 참여, 고생하여 주신 교수님, 건축사님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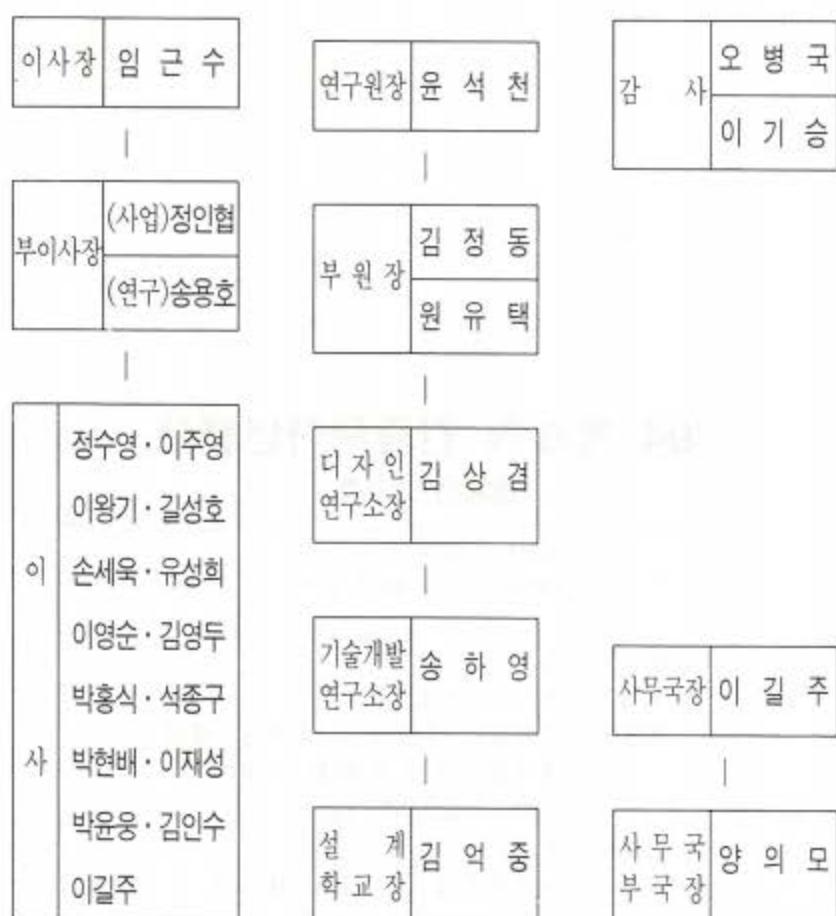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참가학생 주소록

조별	성명	소속학교	학년	주 소	전화번호
1 조	신수범	한남대학교	대학원	동구 성남1동 177-116(4/6)	673-2024
	김지현	한남대학교	대학원	중구 사정동 413-3	581-4097
	김민수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구 가수원동 은아APT 304동 1301호	541-4302
2 조	신동락	대전산업대학교	4학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상아APT 2동310호	
	김재정	충남대학교	4학년	충남 공주시 금학동 대일펜션 B-601호	54-1328
	봉하용	대전대학교	3학년	동구 용운동 285-1	285-1479
3 조	오한석	대전산업대학교	4학년	동구 삼성2동 314-27 9동 1반	
	변진희	충남대학교	4학년	동구 대성동 삼익APT 101-302	272-9556
	김대중	대전대학교	3학년	중구 대흥동 현대APT 6-1506	254-8934
4 조	신호철	목원대학교	4학년	서울특별시 중당구 면옥4동 393-33	494-0955
	김경배	충남대학교	4학년	동구 가양2동 53-10	631-9704
	천성국	대전대학교	3학년	동구 용운동 대한호프스텔 502호	283-0483
5 조	박인규	한남대학교	4학년	동구 내1동 103-2	282-0511
	이철하	대전대학교	3학년	중구 삼천동 13-3 BL 보라APT 202-905호	482-3529
	김태임	목원대학교	3학년	중구 증촌동 411-3	253-2316
6 조	김태경	한남대학교	4학년	동구 삼성1동 150-5	634-2757
	박은영	대전산업대학교	3학년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71-1	
	김금수	대전대학교		충남 당진군 순성면 갈산리 109번지	52-1634
7 조	한창현	한남대학교	4학년	동구 가양1동 450-28	626-1844
	최영진	목원대학교	4학년	중구 선화3동 339-3	252-5791
	김영우	대전산업대학교	3학년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8리 22-2	
8 조	안홍범	한남대학교	4학년	동구 가양2동 162-17 동양주택 301	623-6642
	남승희	목원대학교	4학년	중구 선화3동 339-3	252-5791
	백현수	대전산업대학교	4학년	서구 괴정동 53-26	
9 조	김충렬	목원대학교	4학년	동구 천동 231-13 12동 1반	283-9366
	권문희	충남대학교	3학년	서구 내동 163-8	524-4802
	김준도	충남대학교	3학년	서구 도마1동 85-19 삼창APT 2-103	523-8227
10조	장정예	대전산업대학교	4학년	충남 논산군 논산읍 턱지2동 335-14	
	김학균	충남대학교	4학년	중구 석교동 82-12	271-4647
	안준호	대전대학교	3학년	동구 용운동 285-13	273-1929

대전도시·건축 연구재단 조직표



1994 제 6 차 건축디자인캠프

'94 제 6 차 건축디자인캠프

- 해제와 재구축 -

1994년 12월 1일 인쇄

199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임 근 수

편집인 : 정인협 · 이왕기

발행처 : 사단법인 대전도시 · 건축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87-1

전화 : (042)257-7258

인쇄인 : 문 장 인 쇄 사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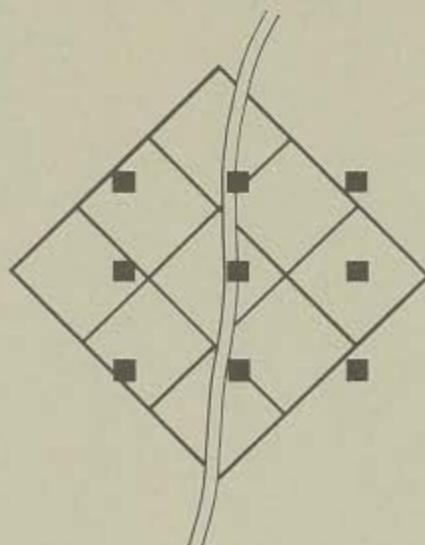
전화 : (042)256-6073

FAX : (042)257-6073

주제 :

형태의 생성과정

(도심속의 근린생활시설)



일시 : 1995년 7월 7일~7월 15일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주관 : (사)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

(부설)대전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

후원 : 한국건축가 협회 대전광역시지부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지부



목 차

1. 대한건축사 협회 대전광역시 건축사 회장(류성희)	1
2. (사)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 이사장(임근수)	2
3. (사)대전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 교장(김익중 교수)	3
4. 참가 학생 소감	
1) 김민수	4
5. 운영개요	5
6. 프로그램	6
7. 참가 학생 작품	
1) A팀	7
2) B팀	21
3) C팀	34
8. 참가 학생 명단	47



디자인 캠프에 대한 향후 바램

대한건축사 협회 대전 건축사회
회장 류 성 희

올해 건축디자인 캠프는 저희 한정되는 강사진이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지역건축가를 육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대상을 제안하였으며 디자인 캠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학교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게 될것이며, 또한 보조 및 크리틱에 참여하는 학부학생들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면서 형태생성의 배경과 형태의 논리 디자인 수단과 기법 등에 관한 폭넓은 크리틱과 함께 색다른 설계경험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건축사보조원과 프로젝트 보조 및 크리틱에 참여할 수 있는 5개 대학 건축공학과 3, 4학년 학생 30명으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건축사 보조원들은 실제의 도심 속의 균란생활 시설의 설계안을 수행하면서 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건 등을 재조명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형태생성의 원인과 과정을 공개크리틱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유익한

실제 대전도심에 지어질 균란생활시설을 주제로 설정함으로써 자기주변에 대한 건축적 이해와 탐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건축적 이해가 지역건축 활동의 활성화를 불러오리라는 것은 또다른 영역의 일이지만, 디자인 캠프를 통해 어느정도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은 또 다른 타지역의 건축 디자인 캠프확산과 건축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볼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디자인 캠프가 장외 교육으로써 정규교육에 보완되는 형태로서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성 있는 건축운동의 일환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캠프가 사회인들의 재충전,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대안 설계교육의 실험무대로서만이 아닌 실제무대로 옮겨져야 할 것이고 또한 많은 검증과 검토를 통해 향후 차세대 건축가 양성 교육의 디자인 캠프로서 방향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디자인 캠프를 위해 애써주신분께 감사 드리며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제7차 디자인캠프를 마치고

제7차 대전 건축디자인캠프
주제: 건축디자인 캠프
기간: 1995년 7월 1일 ~ 7월 15일

“시간의 흐름이란” 단어의 집합체는 시간이 물과 같이 흘러 되돌아올 수 없음을 뜻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89년 시작한 대전 건축디자인 캠프와 인연을 맺은지도 지금으로부터 7년전, 너무도 빨리 지나가버린듯한 시간입니다.

제7차인 건축디자인 캠프를 마감한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금 생각하여 보면 잊지 못할 많은 추억과 좀 더 열심히 하였으면 하는 수식어가 남긴 하였지만 또한 성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을 수 있었던 한 장의 건축디자인 캠프가 아니였을까 합니다.

지난해 무더웠던 날씨와 같이 금년 여름 또하 무척이나 더운 날씨 속에서도 고생을 마다하시고 매일 밤샘으로 학생들과 같이 그 속에 파묻혀 땀을 흘리신 각 대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사무실의 작업을 뒤로하고 참여하신 건축사회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소를 지원해 주신 충남대학교 건축과 여러 교수님들, 또한 투터를 맡아 고생하신 김상겸 교수, 여태석소장

께 다시 한번 짐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큰 의지를 꾹꾹히 지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7차 대전 건축 디자인 캠프를 마친 95년.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소득은 건축을 사랑하고, 건축인이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던 마음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알차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건축인으로 다시금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건축인.

또한 과거의 행적을 밀거름 삼아 새로운 건축 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 충실히 언제나 “가장 앞서가는 건축인”이기를 자부하여 우리 모두가 짚어지어야하고 고민속에 해결되어야만 될 모든 것에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할 사명 완수에 전력을 다하여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건축 디자인 캠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층 더 발전된 건축인의 모습과 내일의 밝은 세계를 꿈꾸며 새로운 새바람을 일으키는 활기찬 건축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임근수

(사)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이사장

건축인 여러분!

축배의 잔을 들어 건축인의 힘차고, 용대한 포효와 함성이 전국,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메아리와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96년 제8차 건축디자인캠프에서 또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다 알차고 획기적인 제안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 새로운 건축 문화 창달에 모두 어울려 함께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

제8차 건축

디자인 캠프는…

보다 알차고
획기적인 제안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95 건축디자인 캠프의 의미

김 익 중 교수

(사) 대전 도시·건축연구소 설계학교 교장

“자율캠프”

“튜터양성 캠프”

“내실캠프”

“연중캠프”

단의 발족과 더불어 대전건축사협회의 후원과 건축설계학교 주관하에 처음으로 치뤄진 ‘자율 캠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디자인 캠프를 상설된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보다 일관된 교육 목표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지역의 건축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퍼스펙티브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주제에 있어서 건축설계 학교의 교육역량 증진을 전제로 하는 ‘튜터 양성 캠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건축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차세대 건축가들을 양성함으로써 이들의 창작여건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부족한 튜터의 자원충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운영에 있어서 모든 형식과 체계를 소규모로 최소화하여 관계 구성원들의 물적, 심적부담을 줄이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크리틱 중심의 ‘내실 캠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캠프 주관처의 몸집을 가볍게 하고 다소 형식에 치우쳤던 운영상

의 부담을 크게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려 했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건축설계 학교가 기획하는 타 사업과의 상호 연계하에 치뤄진 ‘연중 캠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캠프의 성격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축학교 내의 일관된 교육목표에 따라 건축 아카데미의 프로그램과의 조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캠프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할 대목이 바로 차세대 건축가들의 전폭적인 양성과 지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를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일구려면 그 꿈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설계학교는 앞으로도 디자인 캠프를 통해서 이들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활동의 기반을 넓히려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디자인 캠프를 마치게 되어 더 없이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마다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전 건축사협회 유희장님을 비롯한 건축사 여러분들, 장소를 지원해주신 충남대학교 건축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던 튜터 김상겸교수님과 여태석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따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치뤄졌던 디자인 캠프는 그 성과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해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전 도시·건축 연구재

형태의 생성 과정을 마치며

김민수

건축사사무소 탑

1.

한 장의 트레싱지가 제도판 위에 깔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선을 그을 수 없었다. 지난 여름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쉽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모습이 제도판위에 아른 거림일까?

죽은 나무 한 그루, 언제부터인가 한 두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여 이제는 길이 되어버린 끝목길, 오래전에는 많은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하고 정답을 나누며 물을 길었을 듯한 우물, 지금 서 있는 곳에 대한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골똘히 생각하며 메모하던 한 여학생의 모습, 이런 학생들의 모습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느것 하나 그냥 지나침이 없이 많은 양의 현장 조사와 분석 토론을 거듭하여 하나의 안을 만들고 다음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것이 현실인데 또다른 현실이 있

단 말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에 해가 저문다.

2.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5년여 동안의 실무 경험은 현실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니, 안일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맞을 것이다.

건축에 임함에 있어 조금은 느슨해져 있고 얼마 안돼는 경력에 의존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는가? 이런 나에게 디자인 캠프는 건축을 하고 있음을 어떻게 하여 하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자기 주장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긴 시간을 토론하면서 무엇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못해 아쉬워할 때 교수님의 한마디는 그 갈증을 해소하고 밤샘 작업의 피로를 잊게 하는 것이다. 건축이 모든 이들의 생각을 전부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생각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에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꼭 형태로 나타내여 디자인 캠프에 참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기에 참가한 이의 마음은 너그럽다.

3.

건물은 지어졌다. 아니 이 글이 나올 때쯤이면,

모든 이들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무언가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모르는 이들이 모여 같은 주제를 놓고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가면서 충돌과 대립 침묵 포기 고집의 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만든 안으로 지어지지는 않았다.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위움일까? 짓지 못할 안을 만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면서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들로부터 쏟아질 많은 질책이 두렵지는 않다. 다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아쉬워 한다.



운영 개요

취지

대전 지역의 6개 대학 건축공학과간의 설계 교육의 질을 공동으로 증진시키고 산학협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과 실천의 접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지역의 미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건축인의 양성을 도모코자 한다.

주제 : 형태의 생성과 과정

건축가의 디자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는 역사적 선례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 구성의 유형(중심형, 선형, 집산형, 방사형, 격자형 등)에 대한 형태의 특질과 구성의 원칙에 대한 깊은 탐색으로부터 출발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건축가가 특정 유형만을 유일한 표현 수단으로 습득하고 있다면 그의 건축적 의도를 담아내는 형식은 그만큼 빈곤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동시에 그가 천착해야 할 대지 조건의 다양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형만을 고집하는 것은 대지 주변과의 조화로운 모색을 위한 관계짓기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도심 속의 실제 대지 조건에 적합한 형태구성 유형

을 선택하고 주어진 대지조건(실제의 건축 법규를 포함)과 상충, 모순되는 상황 하에서도 그 형태의 특질을 잃지 않는 디자인 능력을 제고하는 설계 공부가 주된 목표가 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건축사보는 실제의 설계안을 수행하면서 설계의 질을 높힐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재조명하면서 그로부터 형태 생성의 원인과 과정을 크리틱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크리틱에 참여하는 학부학생들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지켜보면서 형태 생성의 배경과 형태의 논리, 디자인 수단과 기법 등에 관한 폭넓은 크리틱과 함께 색다른 설계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정 및 장소

- 일정 : 1995년 7월 7일~7월 15일
- 장소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설계실

참여 형태 및 구성

- 프로젝트 참여팀 :
대학원생 및 건축사보
(팀당 3인 구성 : 총3팀)
- 크리틱 참여팀 :
대학 3, 4학년 재학생(30명)

조직 표

• 명예위원장

유성희 소장(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임근수 소장(대전 도시건축 연구재단 이사장)

• 위원장

윤석천 교수(대전 도시건축 연구원 원장)

• 부위원장

이영순 소장(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부회장)

정인협 소장(대전 도시건축 연구재단 부이사장)

송용호 교수(대전 도시건축 연구재단 부이사장)

김정동 교수(대전 도시건축 연구원 부원장)

원유택 소장(대전 도시건축 연구원 부원장)

• 학교장

김억중 교수(한남 대학교 건축공학과)

• 후원회장

이원우 소장(한국 건축가 협회 대전광역시지부 회장)

• 총무

최진 소장(종합건축사사무소 탑)
길성호 교수(대전 산업대학교)
이진숙 교수(충남 대학교)

• 흥선외

이길주 소장(정주 종합건축사사무소)

• 운영위원

이왕기 교수(목원대)

이기승 교수(목원대)

대전지역 건축공(학)과 교수

김영두 소장(대일건축)

박홍식 소장(대전종합건축)

석종구 소장(아트종합건축)

박현배 소장(박현배건축)

이재성 소장(C.N.U건축)

박윤웅 소장(정원건축)

김인수 소장(신화종합건축)

오병국 소장(오병국 건축)

서범철 소장(영건축)

이성희 소장(동인건축)

이광수 소장(협창건축)

이세협 소장(탑종합건축)

박종민 소장(정주종합건축)

윤여경 소장(협창건축)

최재인 소장(신화종합건축)

염규진 소장(두공건축)

김학래 소장(도시건축)

이은석 소장(서원 건축)

지도위원

• 코디네이터 :

설계학교장 김억중 교수

• Tutor : 김상겸 교수(대전대)

여태석 소장(태건축)

• 초청강연 :

우경국 소장(예공 건축)

김준성 교수(경기대)

• 초청 CRITIC : 민선주 소장(민선주 스튜디오)

김현태 교수(경기대)

천의영 교수(계원조형예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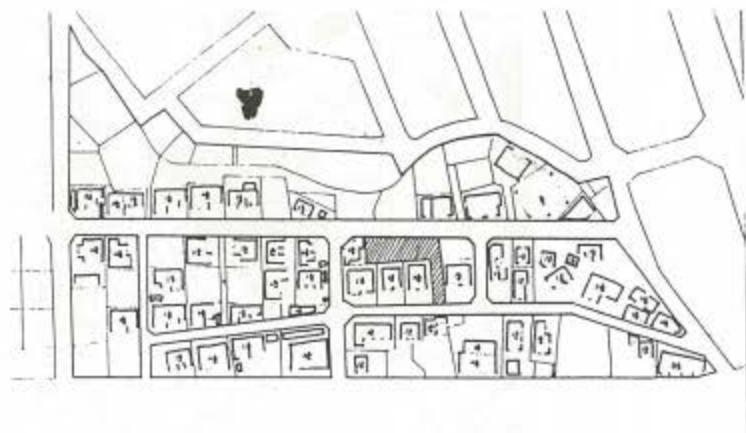
프로그램

일정	시간	내용	강의/진행
7월 7일	14:00	예비모임 강의 I (주제분석)	김상겸 교수 여태석 소장
7월 8일	09:00 10:00 14:00 18:00	입교 크리틱 체육대회 강의 II (작품분석의 실례)	김억중 교수
7월 9일/10일	10:00 14:00	팀작업 팀작업	
9일	18:00	공개크리틱 I	
10일	18:00	팀작업 및 크리틱	Tutor
7월 11일	10:00 15:00 18:00	팀작업 초청강연 I (최근작의 디자인 과정) 초청강연 II (개념에서 디자인으로)	우경국 소장 김준성 교수
7월 12일	10:00 14:00 18:00	팀작업 크리틱 공개 크리틱 II	Tutor
7월 13일	10:00 15:00 18:00	크리틱 강의 III (presentation은 어떻게 하는가?) 팀작업	Tutor
7월 14일	10:00	모델 및 도면작업	
7월 15일	10:00 17:30	초청 크리틱 폐교식	민선주 소장, 김현태 교수 천의영 교수

* 식사 시간: 중식(13:00~14:00), 석식(17: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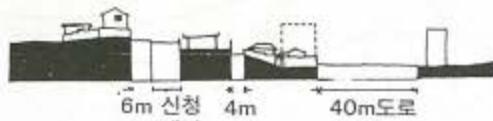


④ 주변상황 III(대지내 매스의 배치)



④ 주변상황IV(단면)

◆ 대지의 종단면도



◆ 도로의 날축 입면도



◆ 도로의 목축 입면도



◎ 도시 형성 과정



◆ 과거



◆ 현재



◆ 미래

◎ 도로에 면한 매스의 통합 형태



◎ 신·구의 비교

생 활 방식		건 육 철학
간 거	식 습	식습
거 리	식 습	식습
간 거	식 습	집 직장

A 팀 작품

- 김민수 · 김보성 · 신수범 -

■ 설계 개요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갈마동
273-34, 35
지역/지구 : 일반 주거 지역
대지면적 : 343.3M²(103.85py)
건폐율 : 60%
용적률 : 400%
조경면적 : 5%

"형태의 생성 과정"이라는 제목 하에 행해진 이번 Design Camp의 취지대로 도시적 맥락에서 대지가 요구하는 형태가 무엇인지?, 대지 자체가 요구하는 건물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대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 되었다.

1. 주변 지역의 상황

이 지역은 과거 서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40m의 대 도로에 의해 서구청 중심생활권과는 단절되어지고, 둔산 시가지의 개발에 의해 새로운 도심의 영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즉, 현재 이 지역은 둔산지역과 서구청 중심 생활권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강한 성격을 띠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이다.

2. 대지의 형태

대지 위치상으로는 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대지 Level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대지 자체로도 부정형의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위와 같은 조사에서 우선 이 지역의 상황을 신도시와 구도시의 "중첩"이라 명하였다. 기존 일반 주거지내에 상이한 용도(설계 사무소)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중심성만을 강조한 독특한 형태보다는 기존의 활발한 마을내 Communication과 친근함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공공적인 공간(파가의 혼적인 골목길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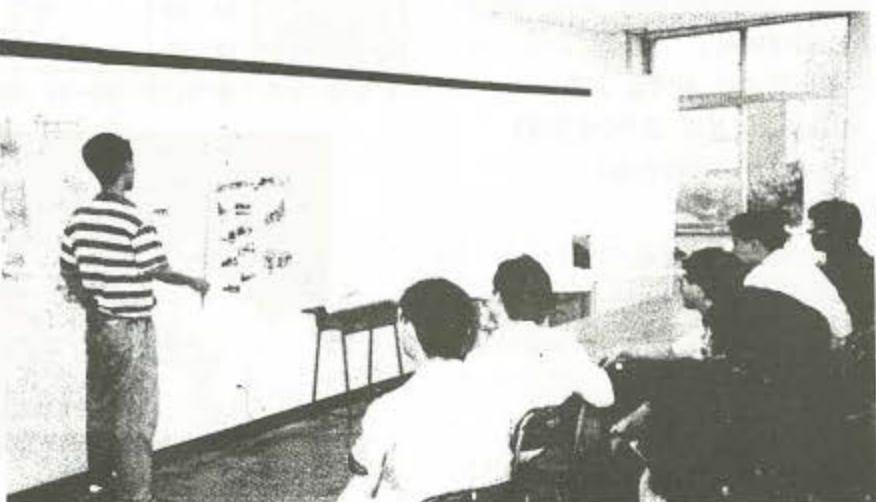
■ 개념

필지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첩, 중심, 경계, 혼적의 개념을 도출하게 되었고, 그들 중 위계가 가장 높은 것인 중첩을 개념으로 삼았다. 중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지하 공간(구도심)에서는 부정형의 필지 형태를 따르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Open시킨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하였으며, 상부(신도심)에서는 분리된 정방형의 매스로 표현하였다.

분리된 정방형의 매스는 주변 mass의 크기와 설계 사무소의 필요 공간에 따라 Scale이 조절되었으며, mass와 mass들은 "골목길"의 개념(구도시의 혼적)을 가지고, 시선의 이동에 따라 느껴지는 공간감의 변화를 체험하며 하나의 건물로 엮어지게 된다.

즉, 구도시의 혼적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골목길, 처마등)이 현대적인 어휘들로 새롭게 변화되어 독특한 공간체험을 가능케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일부로 어우러지기를 기대한다.



■ 대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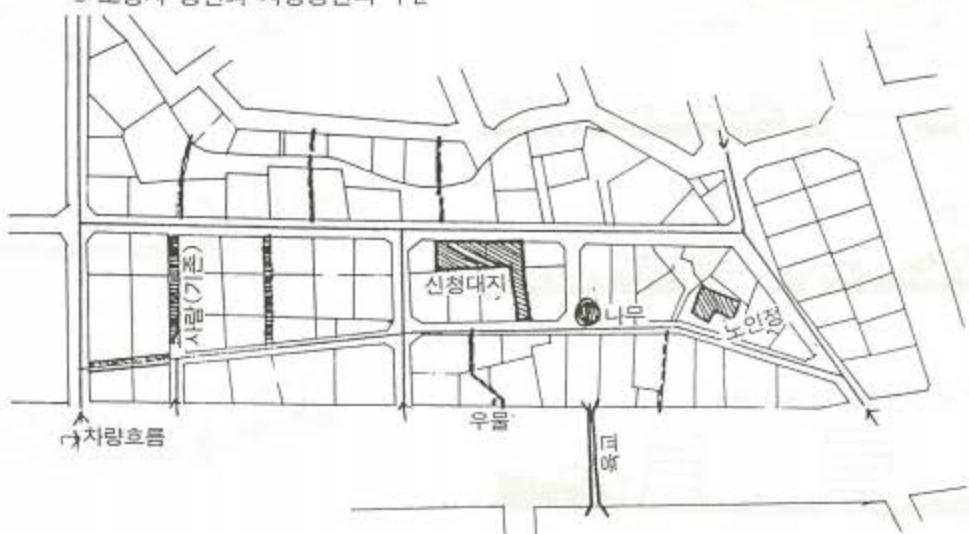
④ 주변상황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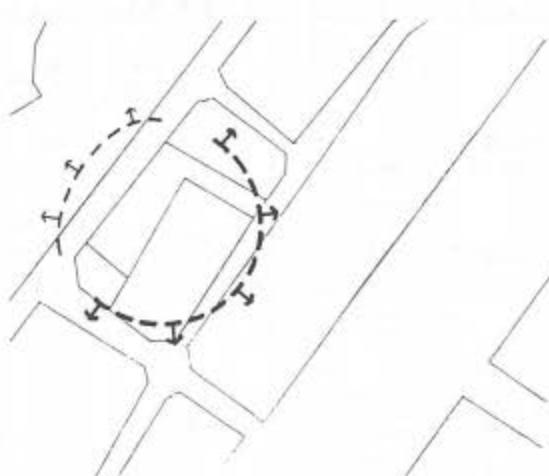
⑤ 주변상황 II(블록과 도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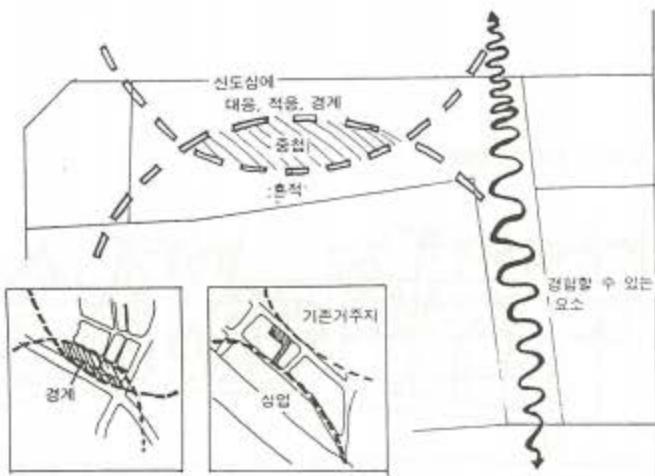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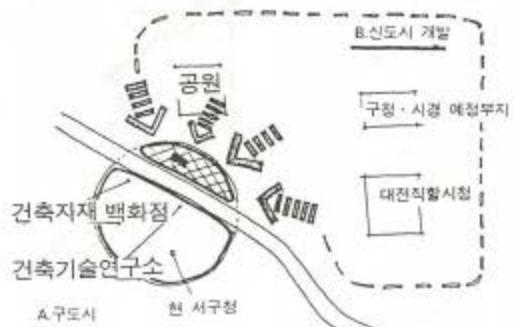
⑥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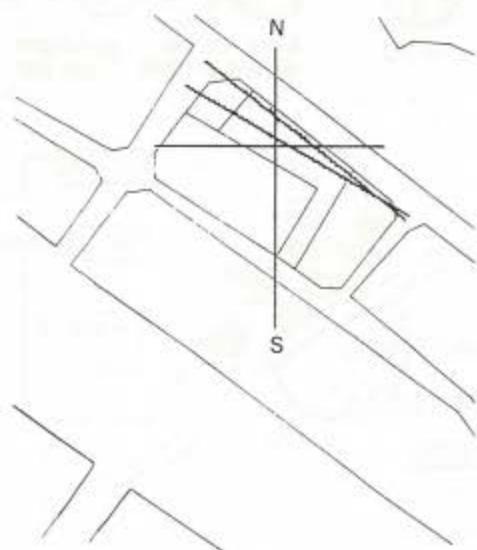
⑦ 조망



■ 설계 개념도



◎ 대지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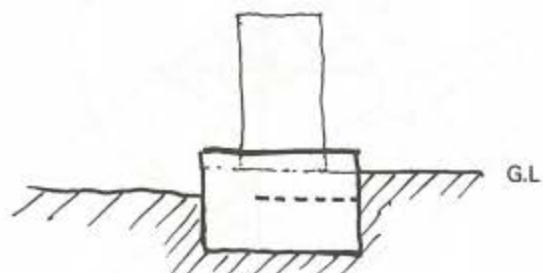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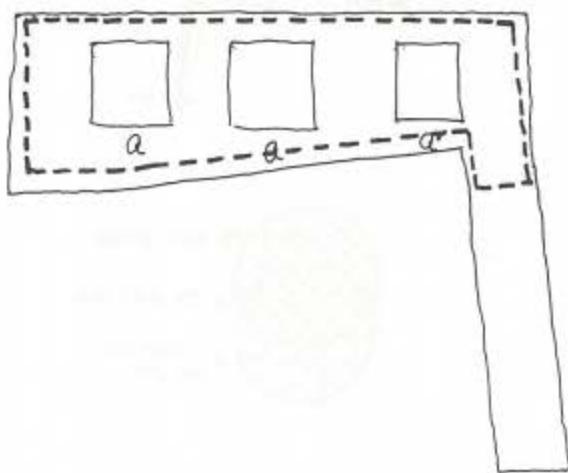
◎ Approach



◎ 매스 유형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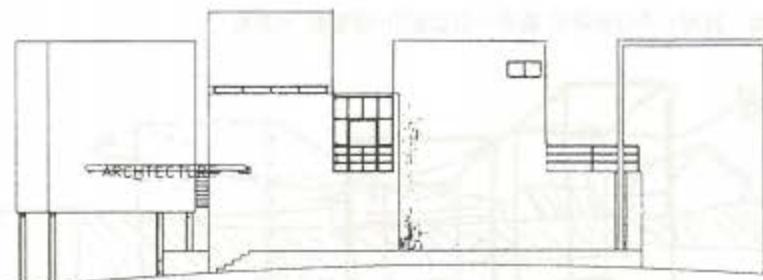
◎ 형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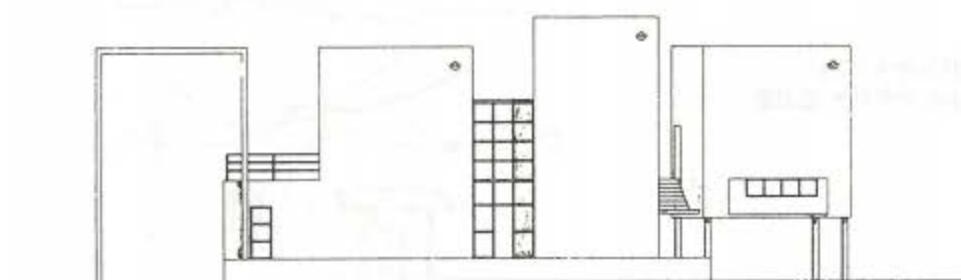
신 : 정방형 매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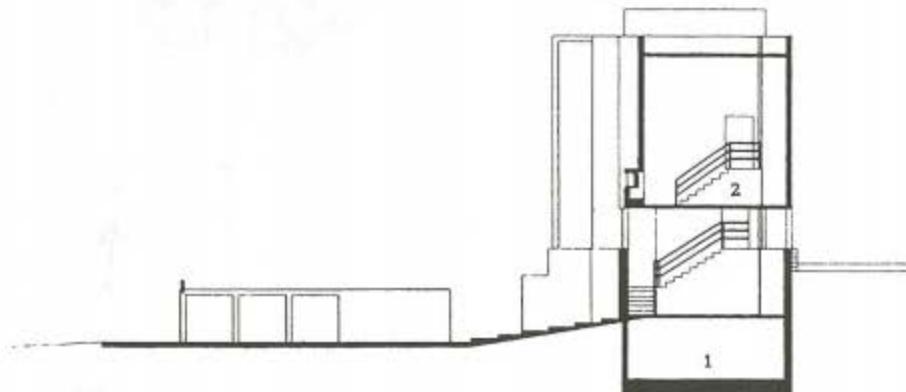
구 : 필지를 따르는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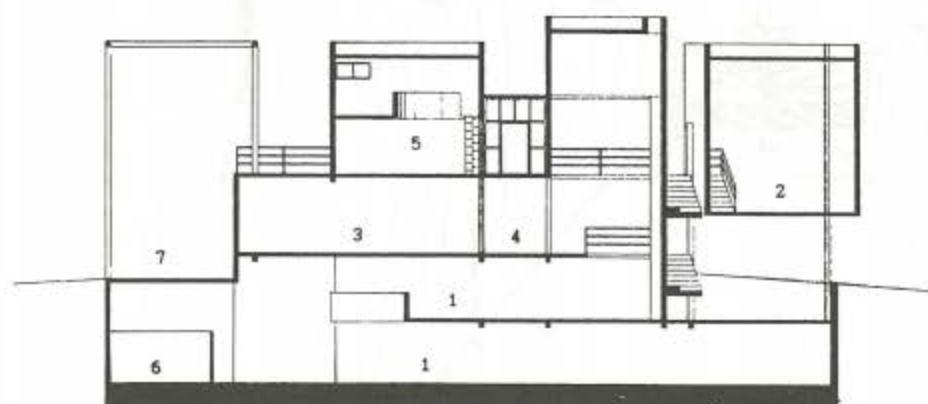
North elevation



South elevation



A-A'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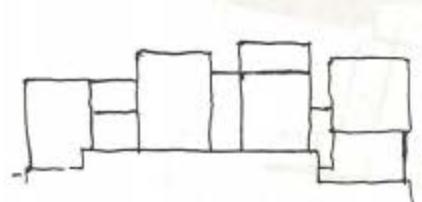


B-B'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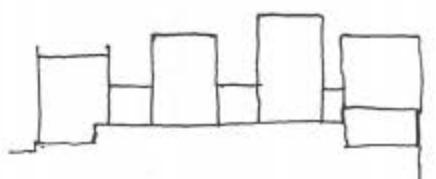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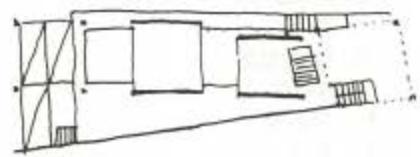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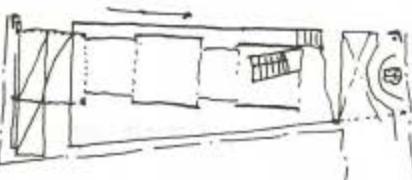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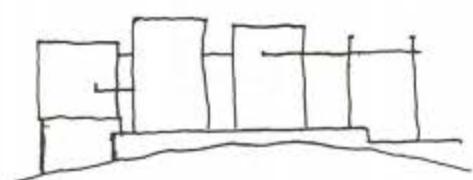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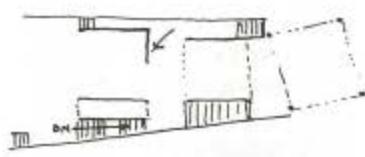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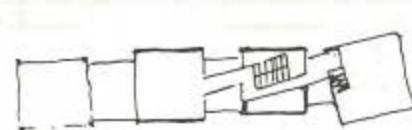
INDEX

1. 설계실
2. 소장실(I)
3. 소장실(II)
4. 로비 및 갤러리
5. 팀 작업실
6. 회의실
7. 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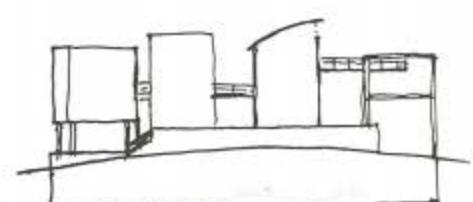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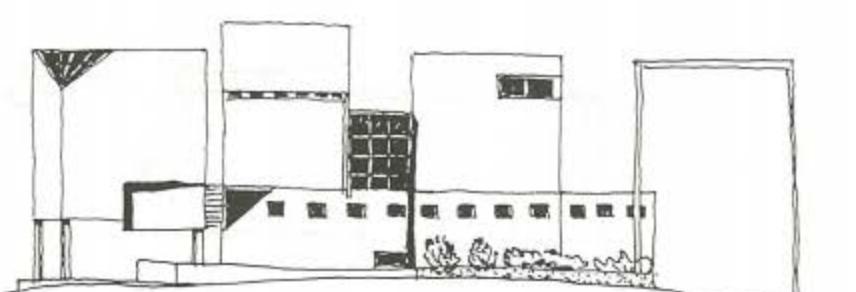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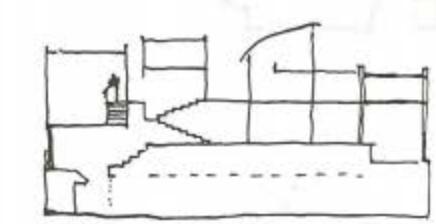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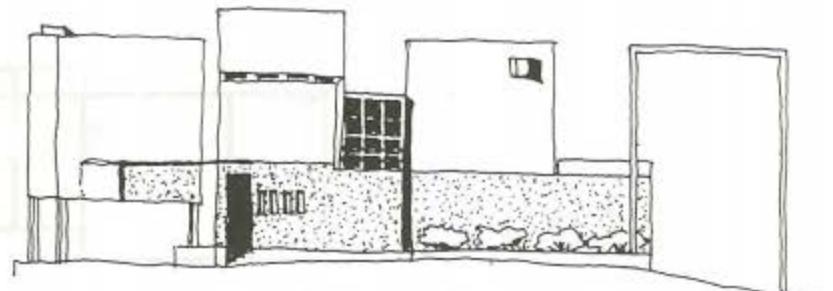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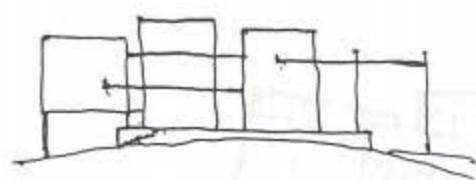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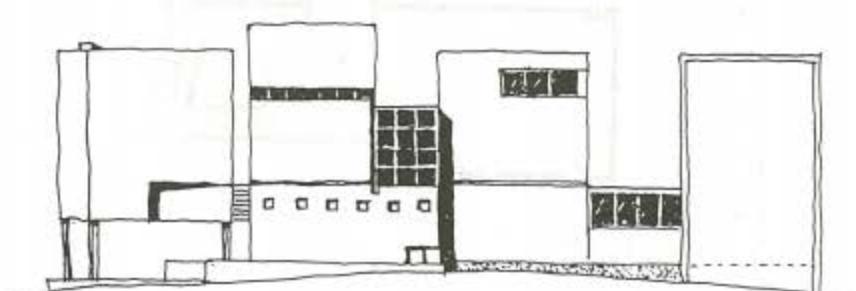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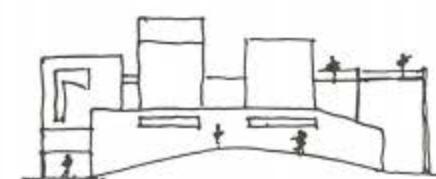
◎ 단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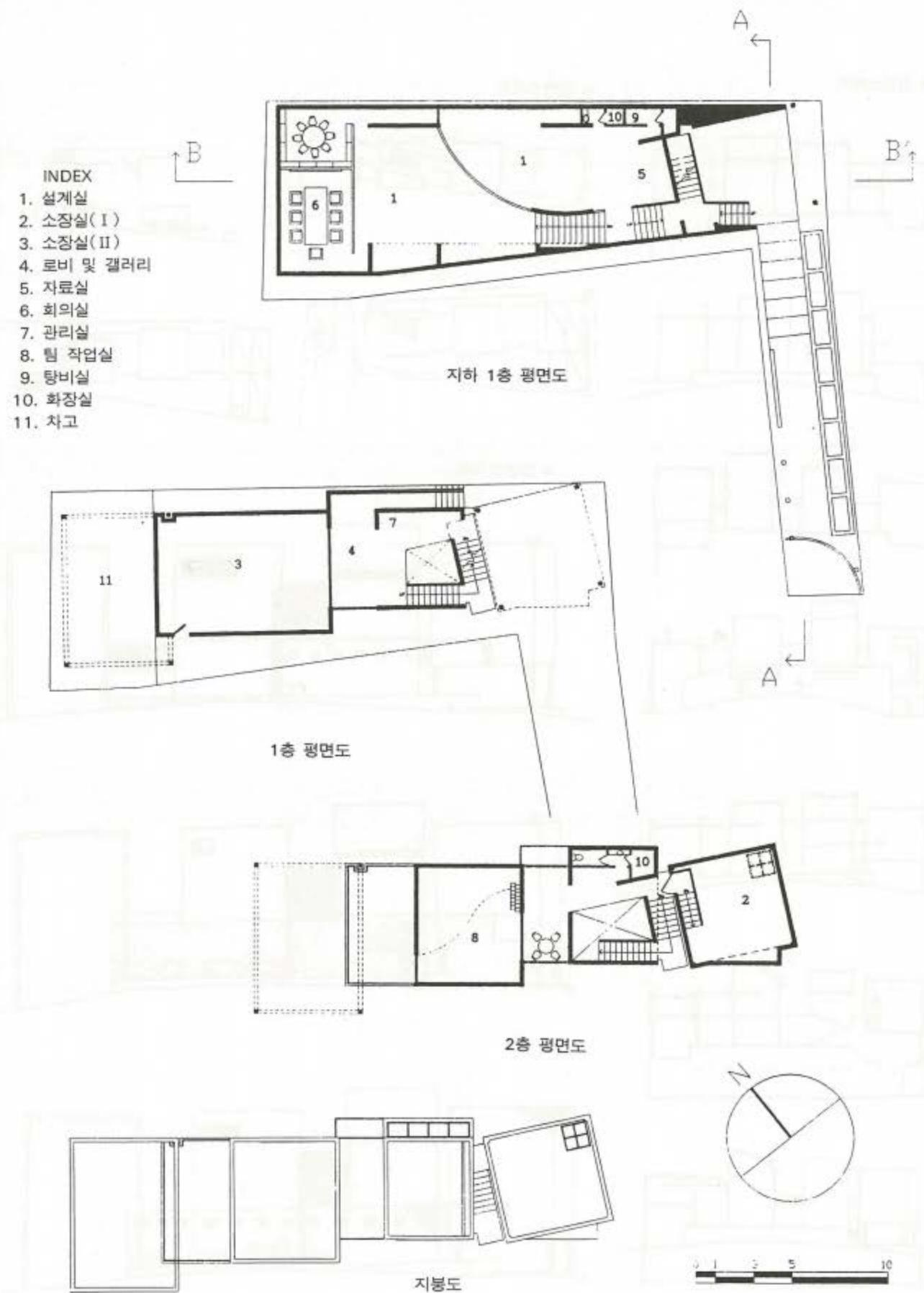


◎ 평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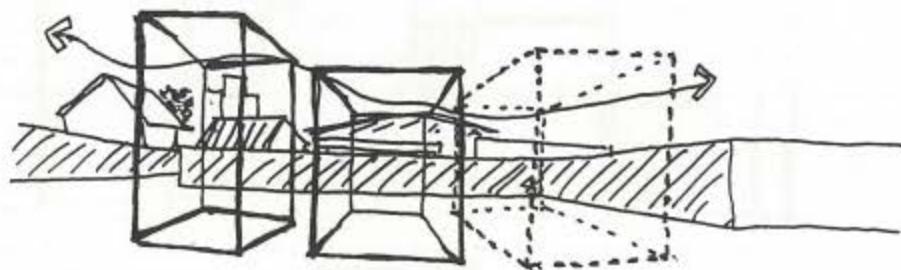
◎ 입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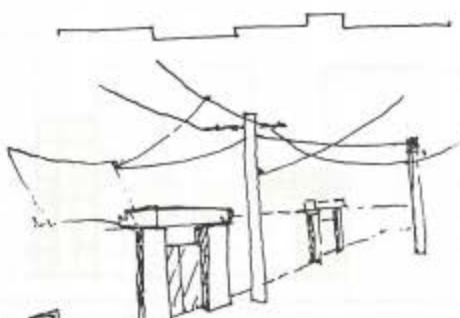
■ 벽 스케치

* 벽 : 경계 + 주변상황의 흡수 + 진입공간(방향성) +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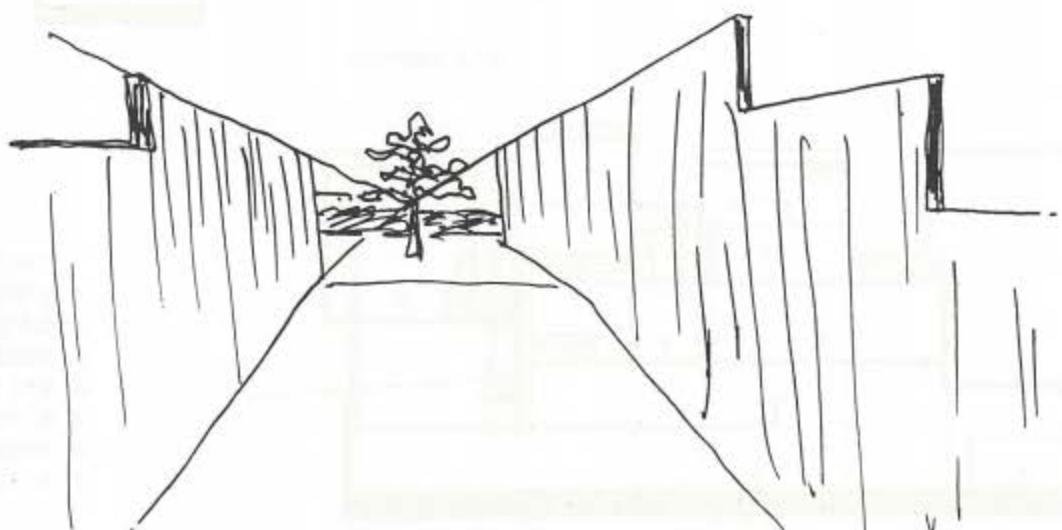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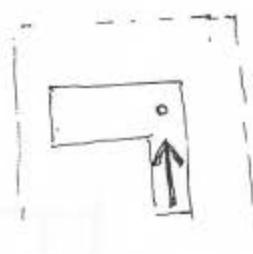
* 과거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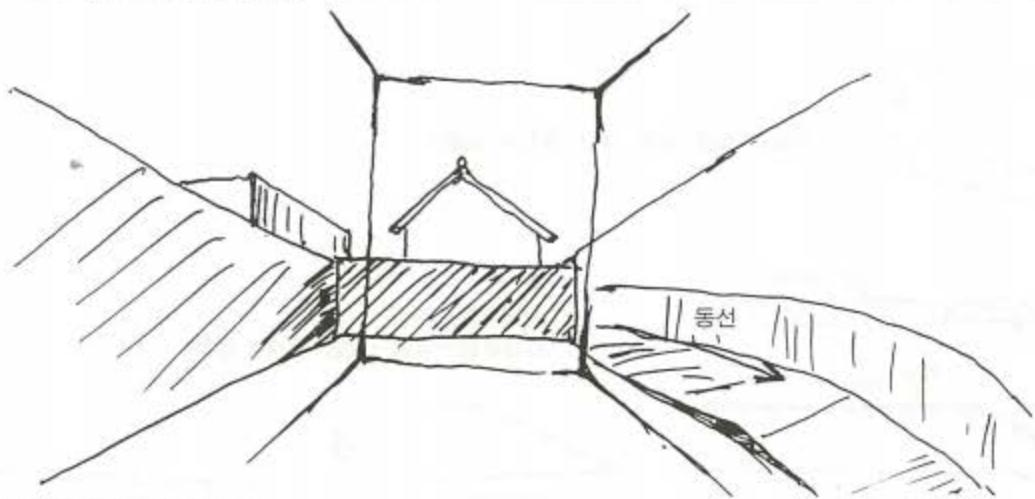
- 불규칙한 건축선(도로에 대한)
- 하늘을 무질서하게 구획하는 전선줄



- 무계획적 상승감

- 블럭벽의 낙서
- 불규칙한 사인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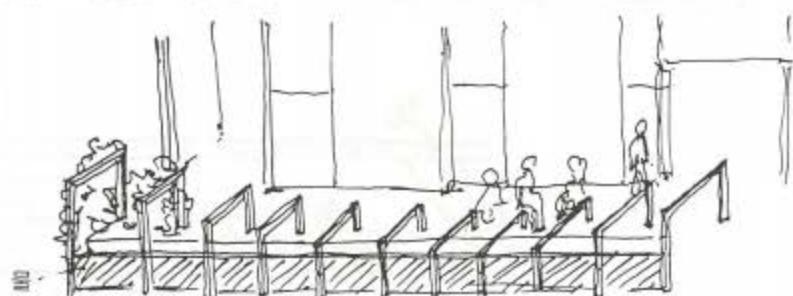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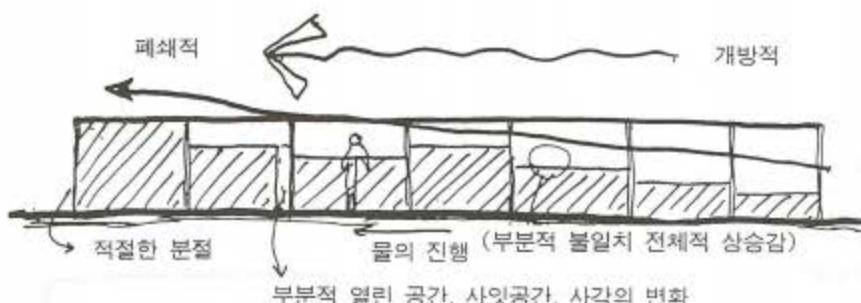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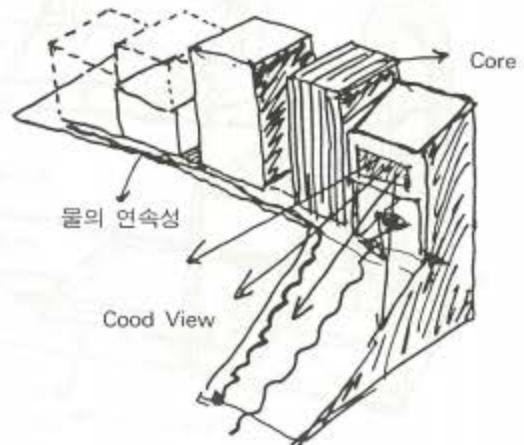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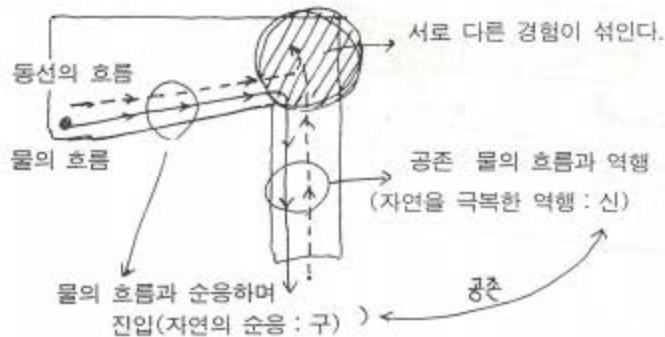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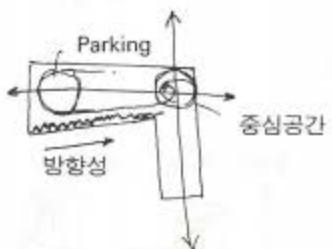
* 건물의 전체적 맥락과 같이

- 중심성이 비워짐으로써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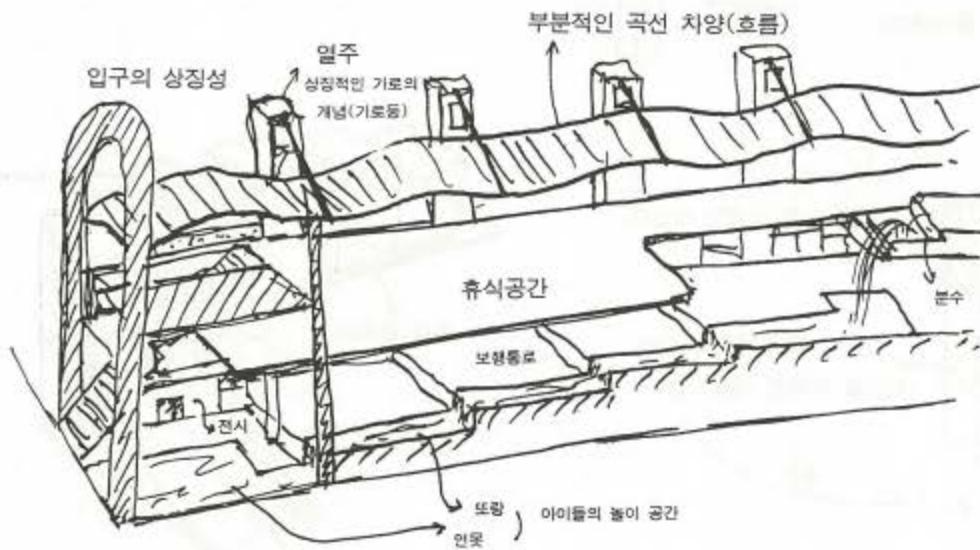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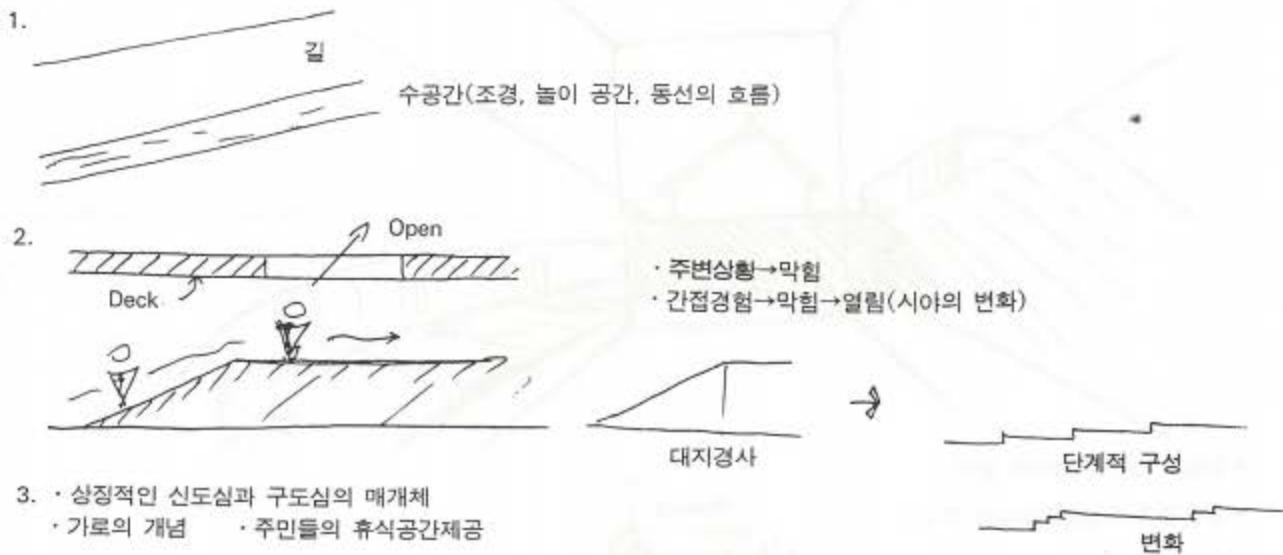
- 벽에 대한 재해석

· 투명한 벽(벽의 속성을 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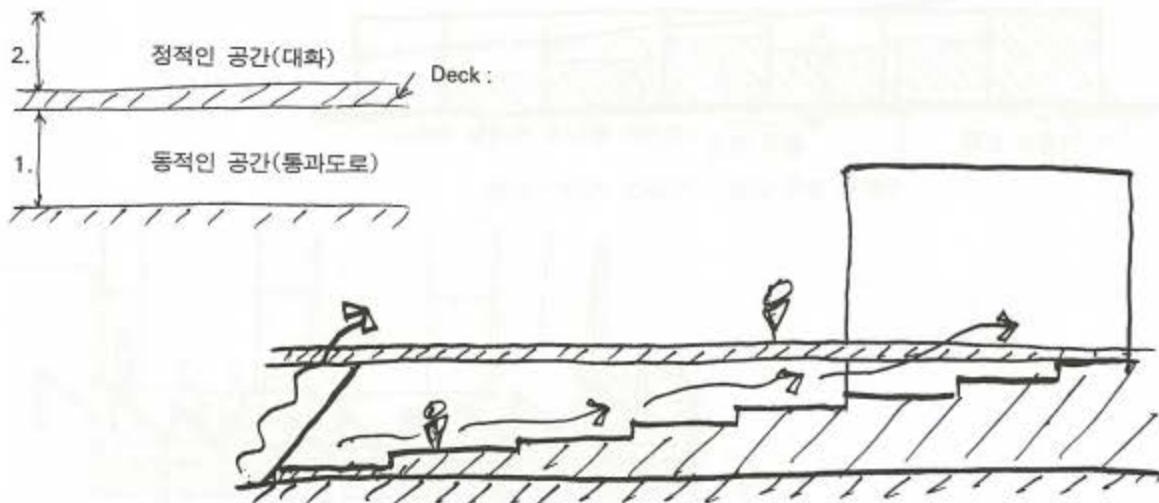
- 물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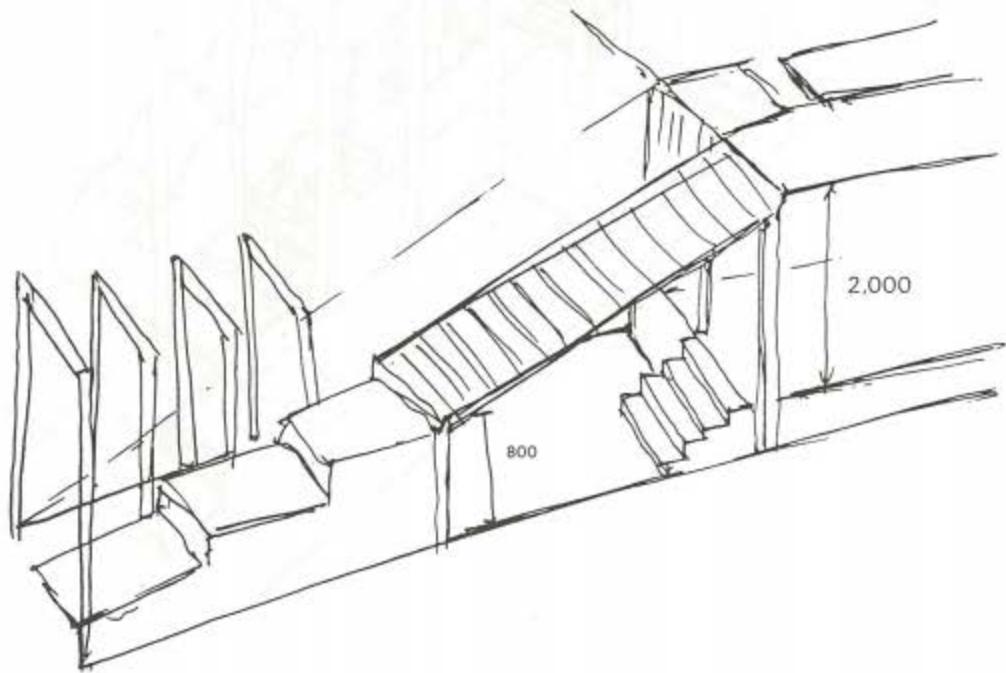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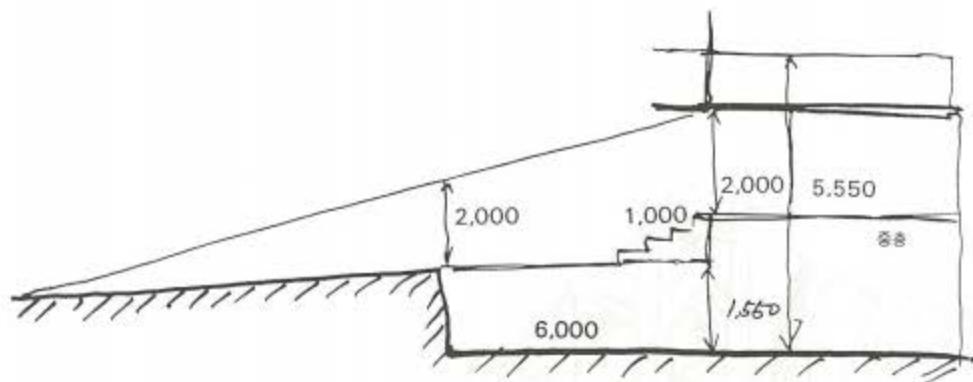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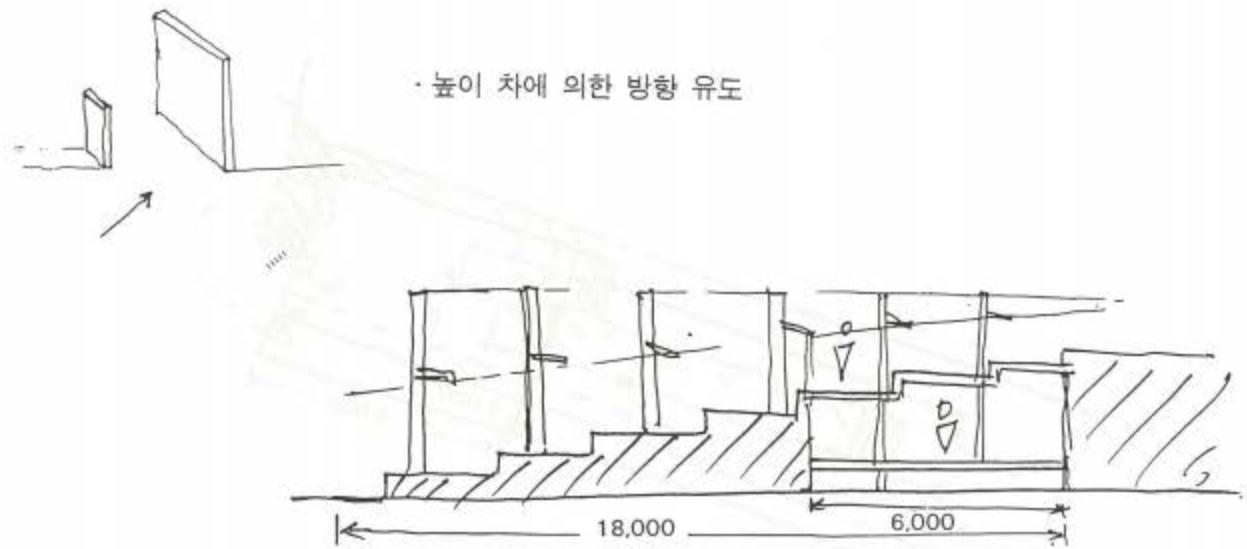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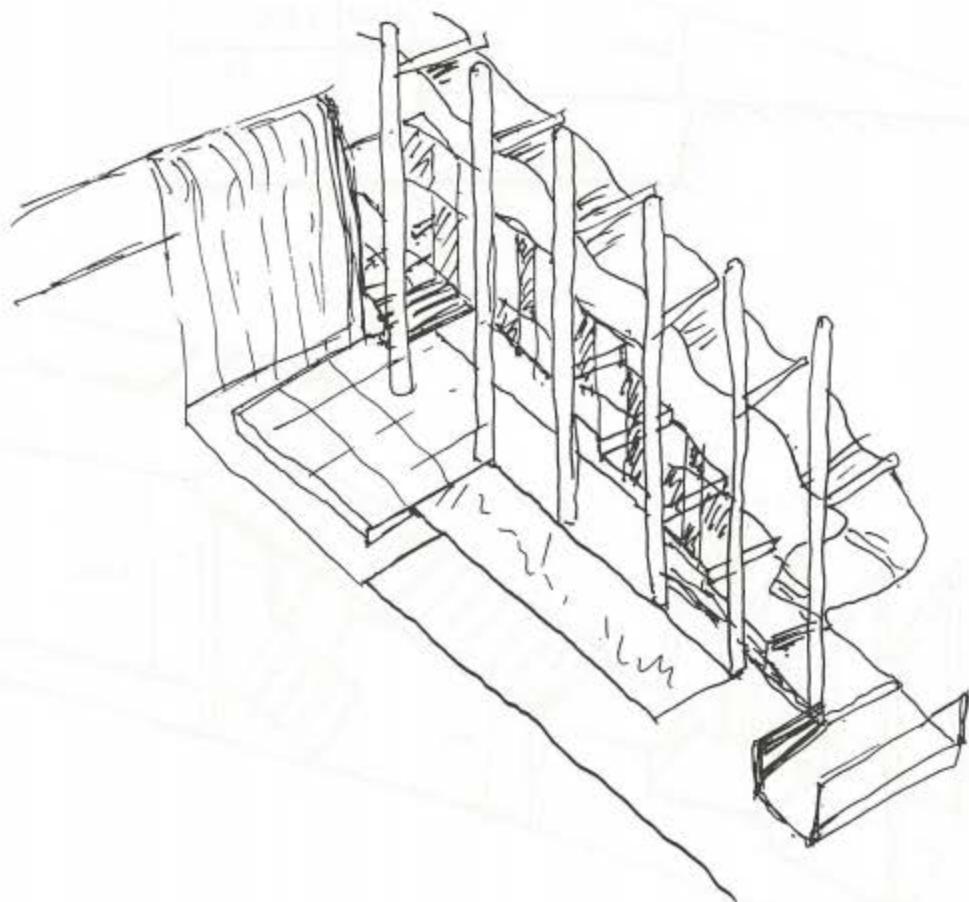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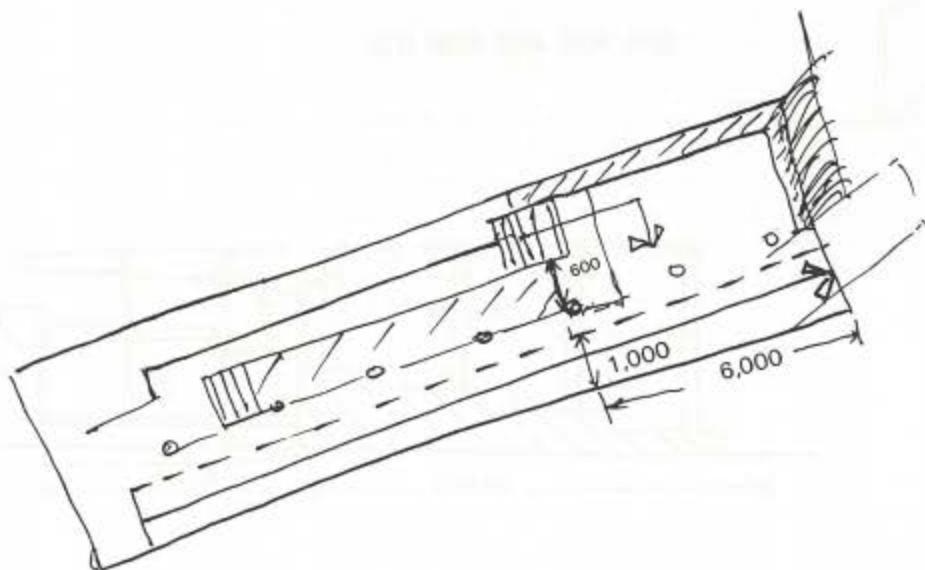
□ 길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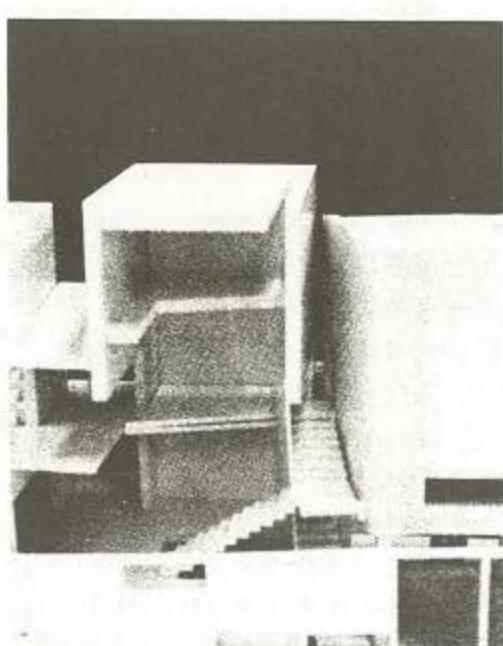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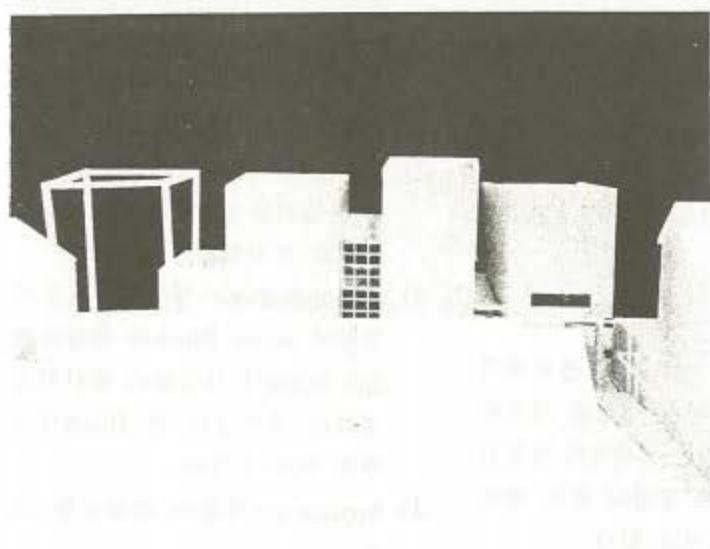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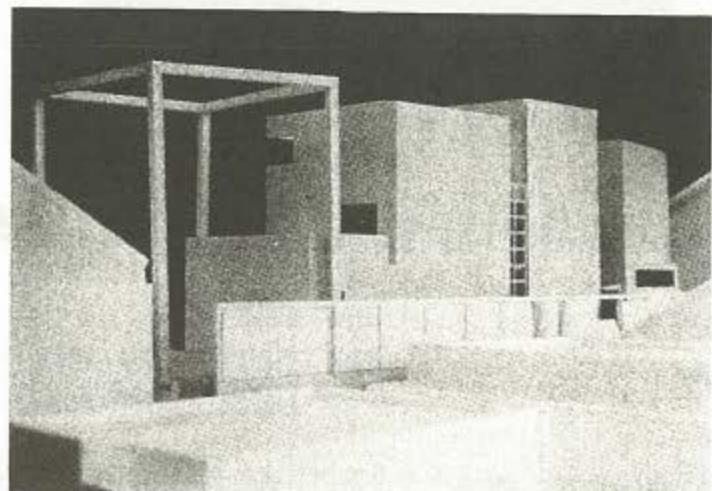


4. 데크와 본 매스와의 연결









B 팀 작품

전이공간을 이용한 순응에서의 변화

팀장 : 오은순

부팀장 : 남태옥 · 장세균

팀원 : 조만재 · 손인원 · 김종완 · 김문장 · 심수진 · 김옥제

서경화 · 여일석 · 염경식 · 박선영 · 최문봉

1. 부지 지번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67번지

2. 부지 면적 : 222³ (67²py)

3. 부지 현황 :

- 일반반주거지역(단독주택용지)

- 위치 : 도심으로부터 10km내 지역에 위치

- 동쪽 : 대전원예농협, 탄방파출소

- 서쪽 : 탄방국민학교

- 남쪽 : 세동서원

- 북쪽 : A.P.T단지 형성

- 대지의 서쪽으로 자동차의 흐름이 많은 8m도로와, 남쪽으로 6m도로로 접해 있다.

* 건물주변현황

- 부지와 접해있는 대지는 현재 공지 하지만 향후 2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건축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지의 8m와 맞은편에 위치하여 있는 학교건물이 서쪽에 시야를 차단시킨다.

- 서쪽을 제외한 부분들은 반경 2km내 건물들은 균형생활과 주택의 복합건물 위치

- 지역특성상 건물이 대부분

mass가 부지를 가득메운 상태로 획일적인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전면도로 8m도로는 경사가 약 2도정도 나있는 경사로이다.
- 8m도로와 6m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로써 접근성이 용이하다.
- 대중교통현황은 북쪽 A.P.T를 통해 접근

◆ 배경

대전광역시는 옛도심의 불규칙적인 형태의 가로망이 형성된 지역과 현재 발달되고 있는 격자형이 정형된 모습의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양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유추

불규칙적으로 발달되었던 옛도시(동구, 서구, 중구) 지금현재 둔산지역과 유성으로 발전하는 (부정형에서→정형으로) 흐름을 취하고 있다.

◆ 인식

그러한 도시의 흐름속에서 가장 옛도심의 잔재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 대지인 탄방동인 것이다.

◆ 부지인식

1) Sky Line - 정북방향으로 형성된 고층건물과 15m정도의 간선도로를 끼고중층의 형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 부지의 정남쪽은 1~2층의 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2) 도로체계 - 15m의 간선도로로 부터 유입되는 8m의 도로와 6m의 도로로 격자형태를 이룬다.

3) Commuication - 부지의 신도시 중심의 Super Bluck의 사람들과 Sub Bluck의 사람들의 공간적인 대화는 중층형의 현 Bluck에서 주로 이루어 진다.

4) Approach - 자동차, 대중교통, 보도

◆ 부지인식을 중심으로 한 유추

Sky Line의 형성화된 중간적인 높이의 전이단계와 Bluck의 형성방향이 가로로 순응된 체재와 세로로 형성된 체재가 만나는 부지인식의 전환인 전이공간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 부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T자형 도로가 가지는 특성

- 시선의 자연적인 유도

- T자형의 도로는 일정한 방향

으로의 방향성을 갖는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벽체가 있기 때문에 3방향의 방향성을 갖는다.

- 도로의 위계상태에 따라 건물의 입면에 표현하는 상태가 틀려진다. 즉 8m와 6m의 도로가 대응하는 면은 서로가 틀린 것이다.

2) View

남서쪽의 가각전제된 부분으로 보이는 조망의 형성은 입면상의 위계를 결정지어 주는 특징적인 요소가 된다. 가각 전제된 부분이 1순위, 8m의 도로에 대응하는 입면이 2순위, 6m의 도로에 대응하는 입면이 3순위, 후방에 법적 제한으로 형성된 면이 4순위 정도이다.

- 3) 교통의 영향—8m의 도로는 도로의 크기로서는 적은 도로이지만 이 도로는 현 도심에서 둔산이나 유성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통의 통행량이 무척 많다. 때문에 이 곳 입면의 성질은 자세한 디자인보다는 커다란 Scale로 입면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경사로—정북방향이 높고 정남이 낮은, 약 2~3도 정도의 경사가 이 곳에 있다. 이것은 경사진 곳 아래에서 보면 건물의 아래쪽 보다는 윗쪽이 먼저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하나는 먼저 보이는 곳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윗쪽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보이게 하는 것이다.

- 5) 모퉁이 대지—대지에 포함되어

한면만 보이는 곳 보다 2개의 면이 보이는 이곳은 대지의 한 쪽을 Limit시켜준다.

4. 형태 유추 과정

◆ 주상분리

1층과 지하층은 상업공간을 유지하고 2층과 3층은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골격을 취한다. 즉, 상업공간은 도시를 대응하는 부분으로써 밖으로 지향하는 부분이고 주거공간은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으로 감싸주는 형식의 골격을 취한다.

◆ 조망

현재는 북쪽과 동쪽에 공지로 있지만 이곳에 2년 이내에 건축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망이 막힌다고 생각되는 바 이 부지의 조망은 남서쪽의 조망이 유일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이곳을 형태상 개구부로 유도할 수 있다.

■ 위치도



◆ 건물사이의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

이곳의 건물은 각 건물의 입면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단절된 느낌을 가진다. 이것은 각 건물이 독자성을 가지지만 연속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에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 안각에 의한 모서리의 인식

◆ 동선

동선은 앞에서도 전제했다시피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동선의 유입이나 흐름을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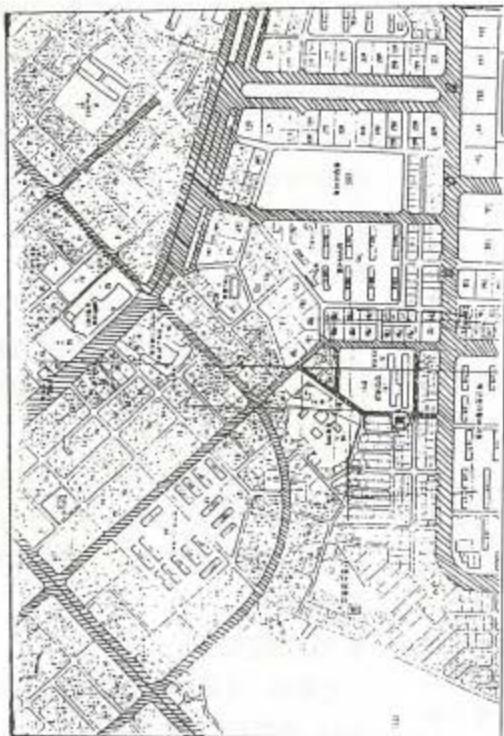
◆ 격자형 필지에 의한 공간분화

신도시가 가지는 격자 Petten을 받아 공간을 분화하는 데 기본바탕으로 한다.

◆ 녹지공간조성

건물의 뒷공간이 Dead Space가 아닌 계획된 대지로 활용한다.

■ 도로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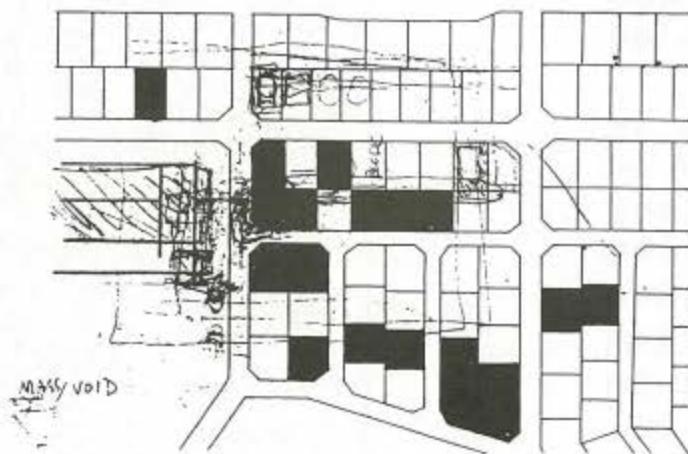


도로망 체계



정북방향으로 APT가 배경을 이룸

■ 공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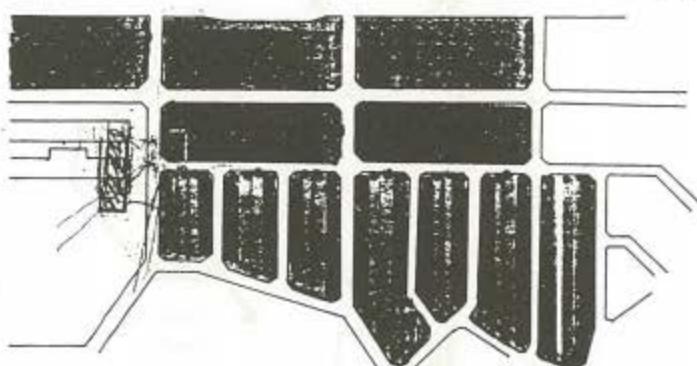


공지현황

■ 용도현황



상가전용 1, 2층 상가 1층 상가



부지의 동쪽과 동쪽은 현재 공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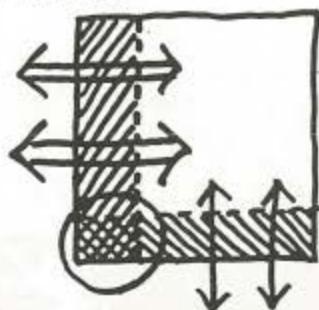
유일하게 조망이 보이는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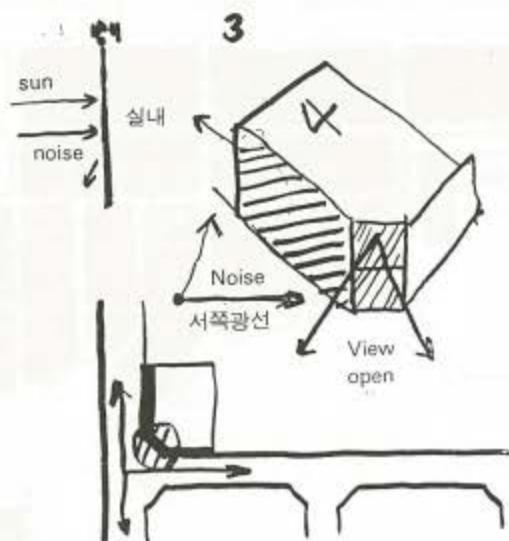
자연적 흐름유도 (전이공간)

■ 대지에의 도입(거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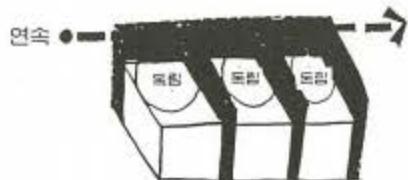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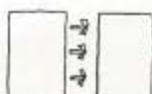
주도로면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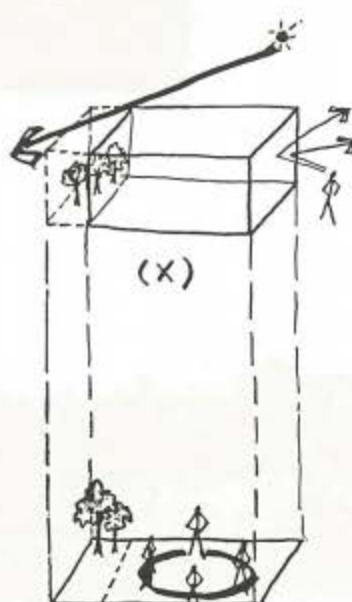
부도로면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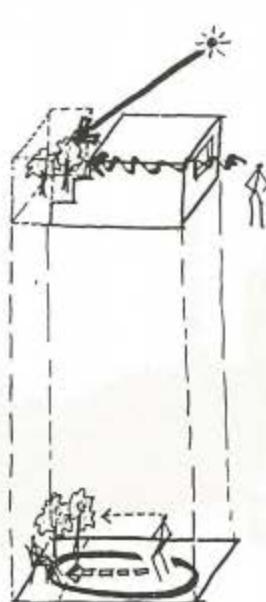
■ 건물사이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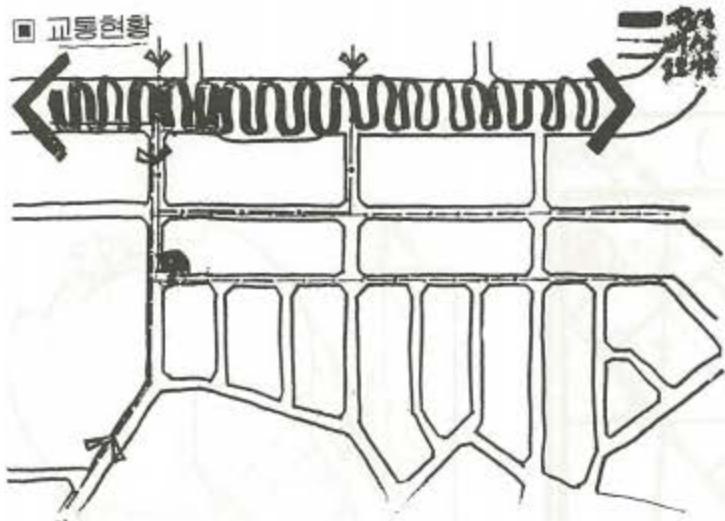
■ Dead Space의 계획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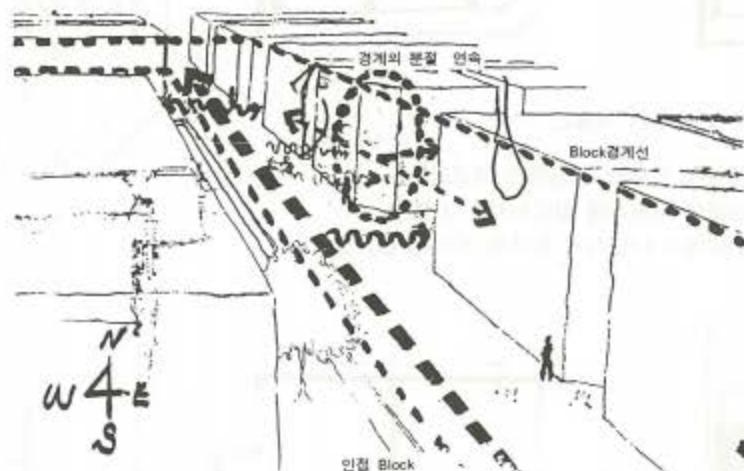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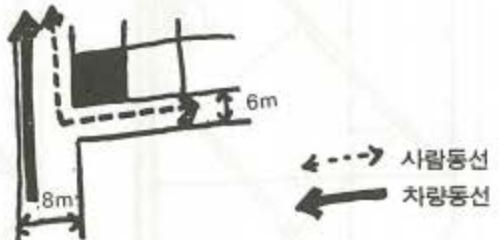
현상황(X)



계획대지(O)



③ 도로상황 및 교통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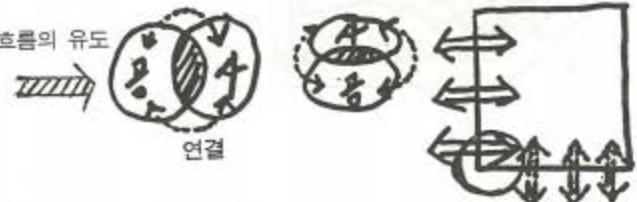
개념유추에 다른 도식 과정



④ 흐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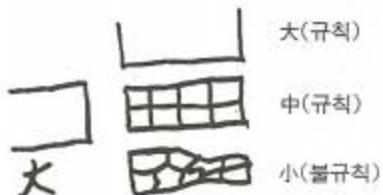


흐름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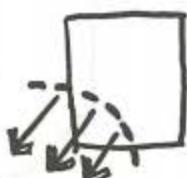


두면의 대응에 의한 교차부심

② 필지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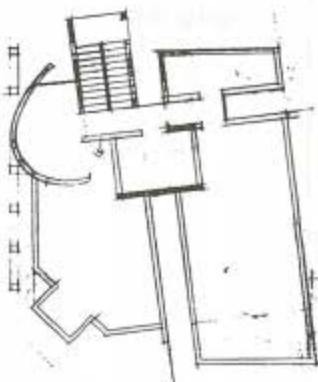


⑤ 조망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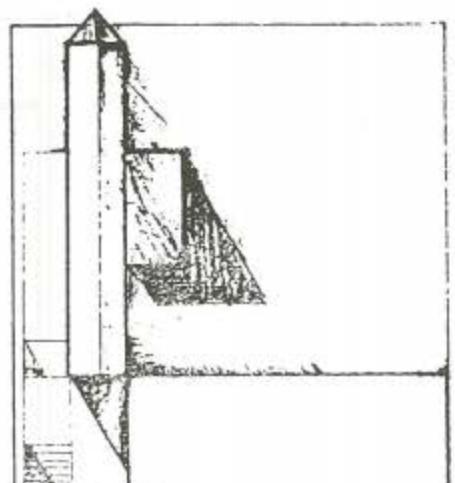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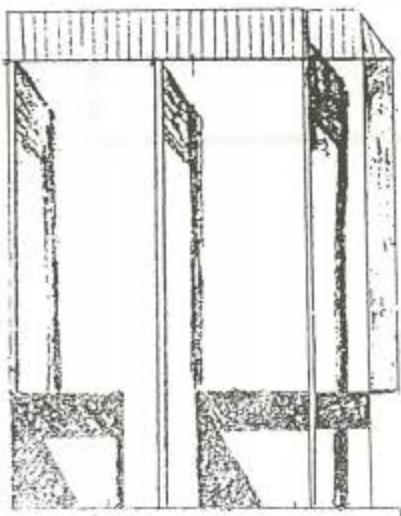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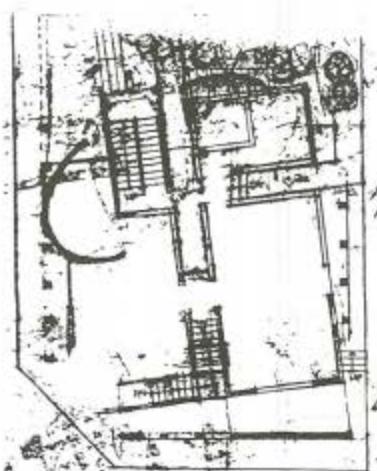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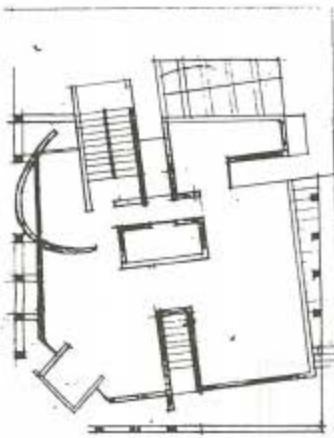
초기 확정안

엄격한 격자를 건물의 유입되는 시선으로 들어서 약6도 정도 대지의 격자에서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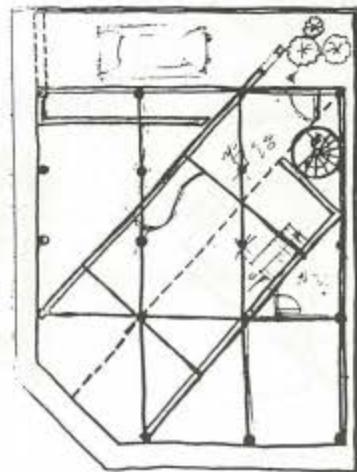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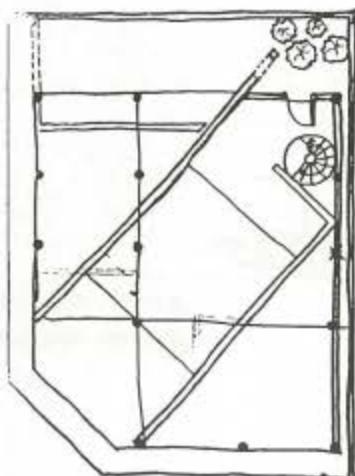
후기 계획안

격자체계를 바탕으로 하나의 모듈을 두고 입면에 위계를 두어 엄격한 패턴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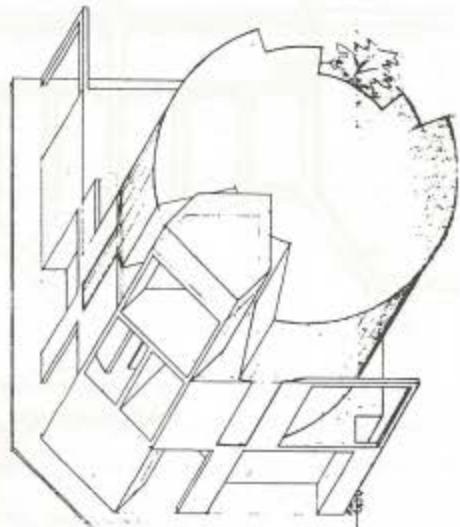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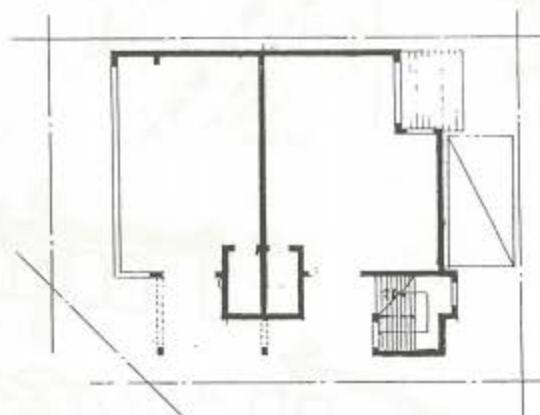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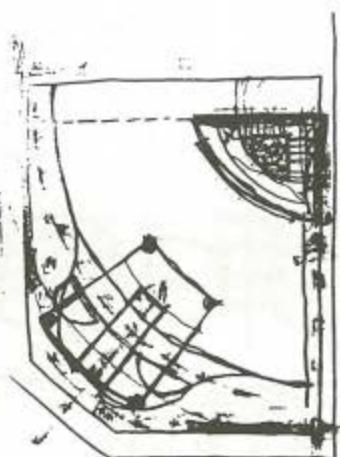
4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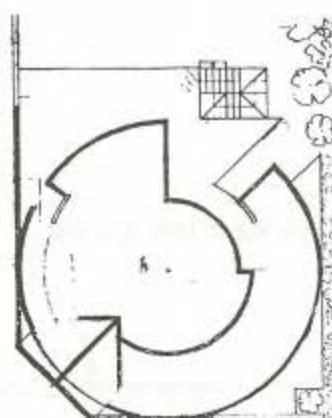
— 초기 계획안 —

다양하게 각자의 팀원들은 개념을
자신들의 머리속에 정립시키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형태화 시켜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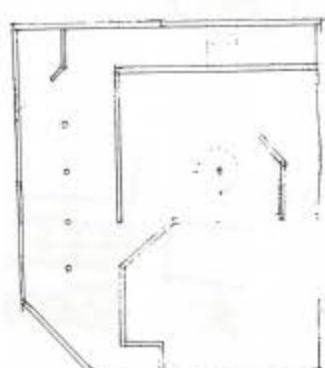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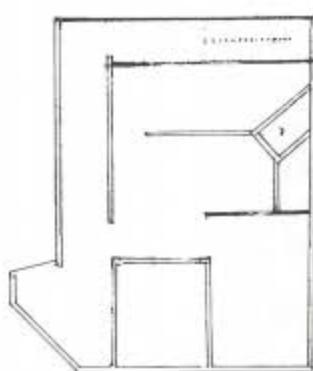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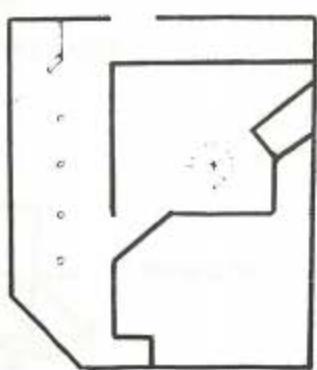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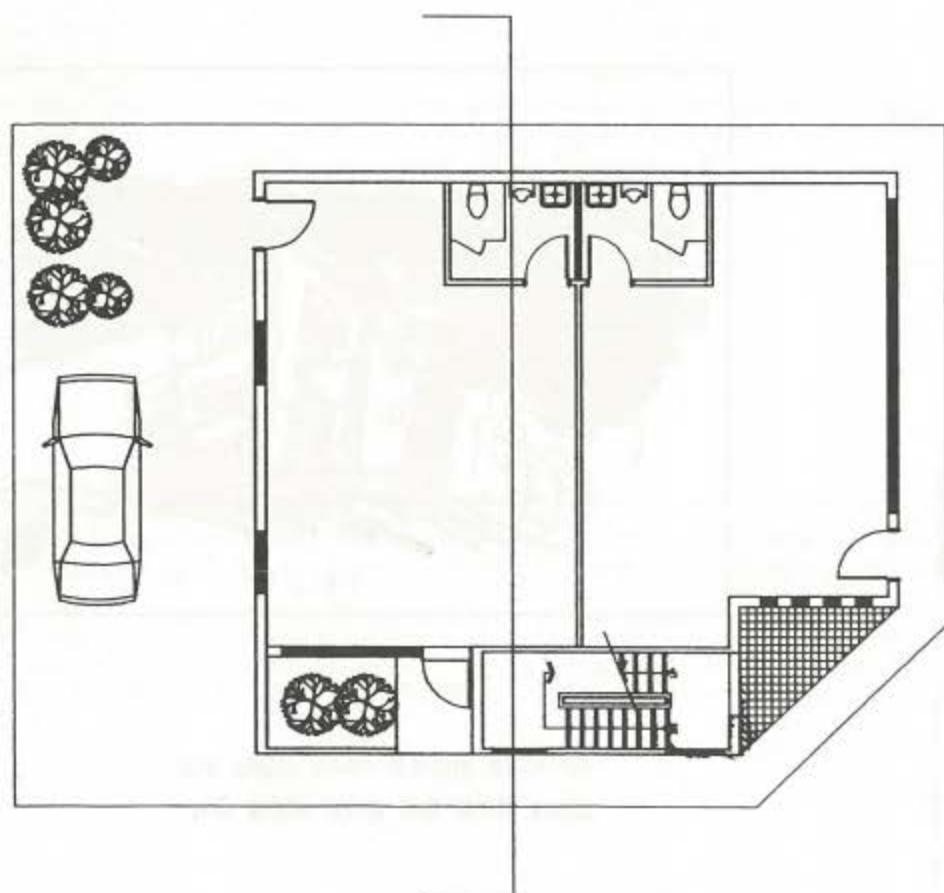


5안



3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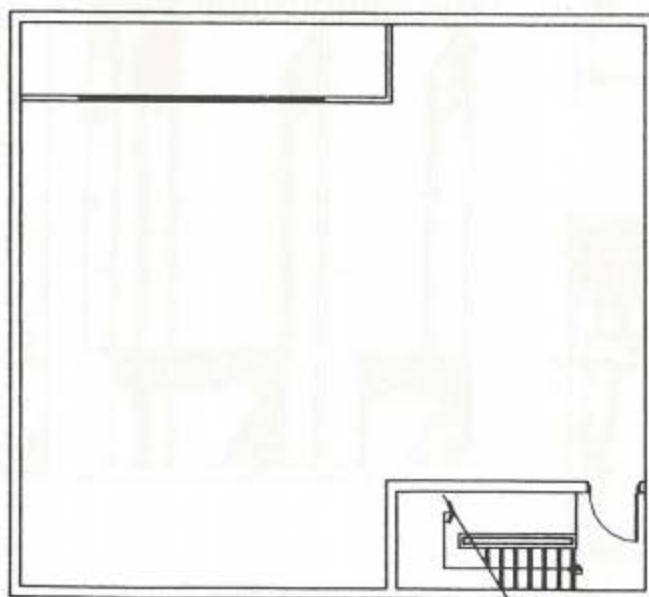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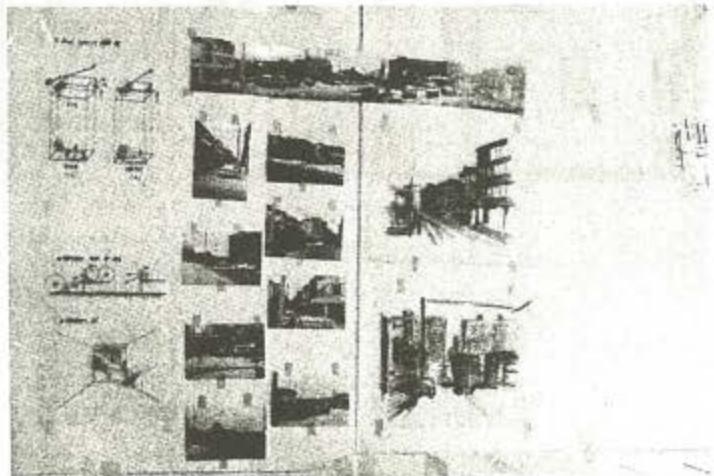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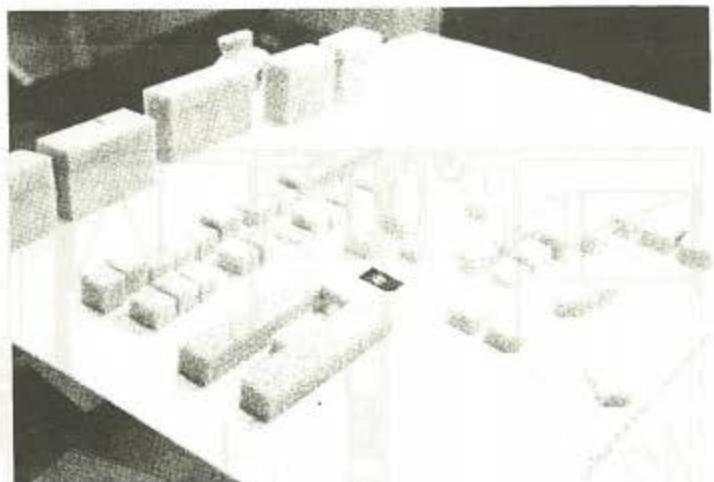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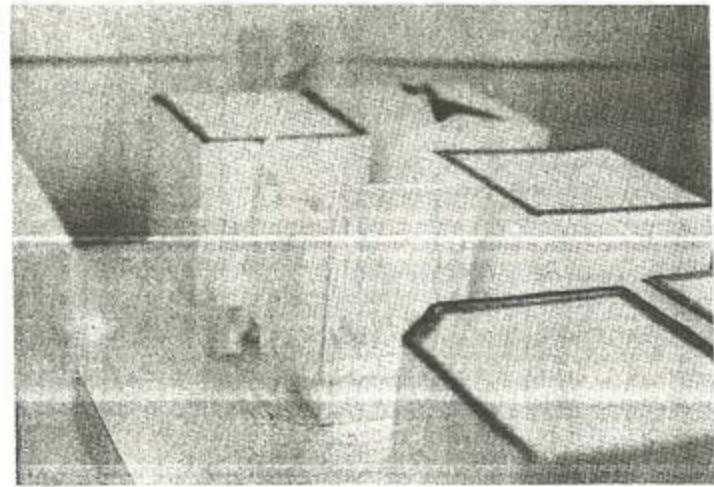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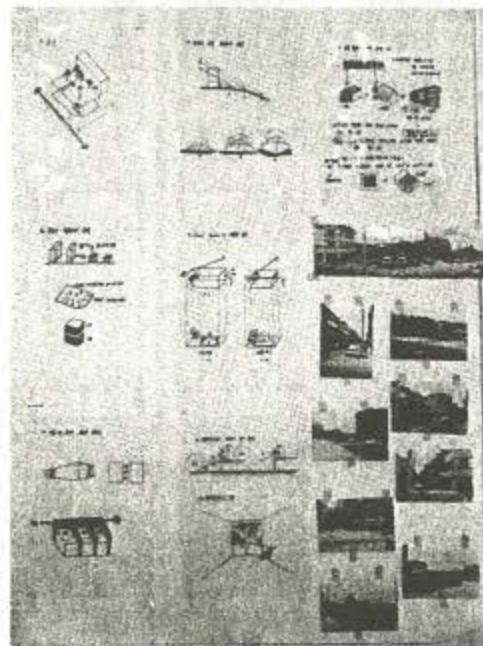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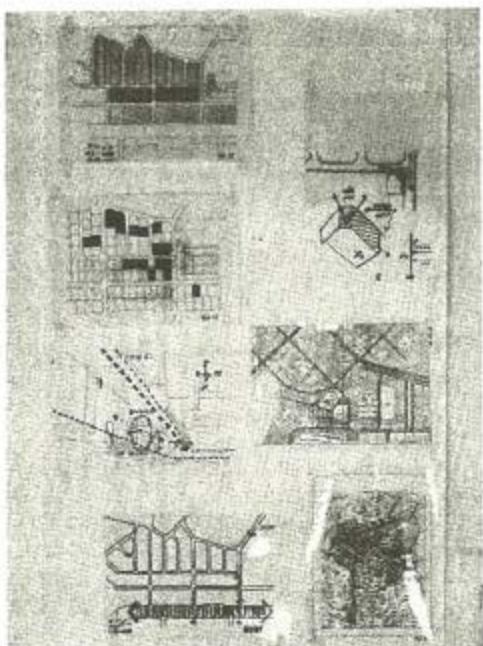
— 후기확정안 —

가벽을 두어 격자체계의
형태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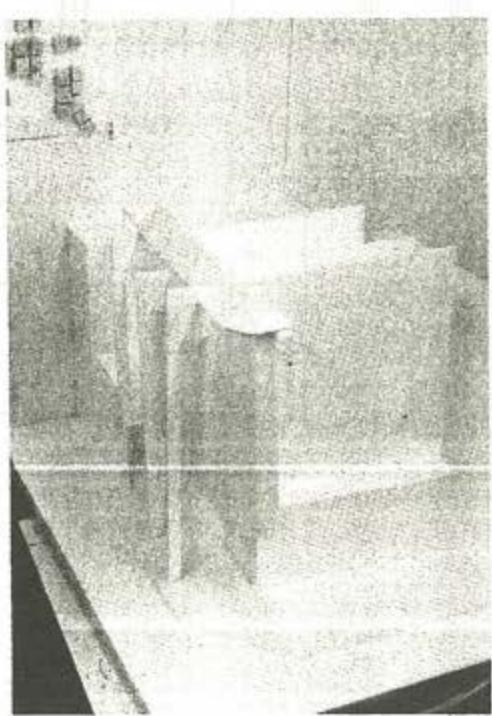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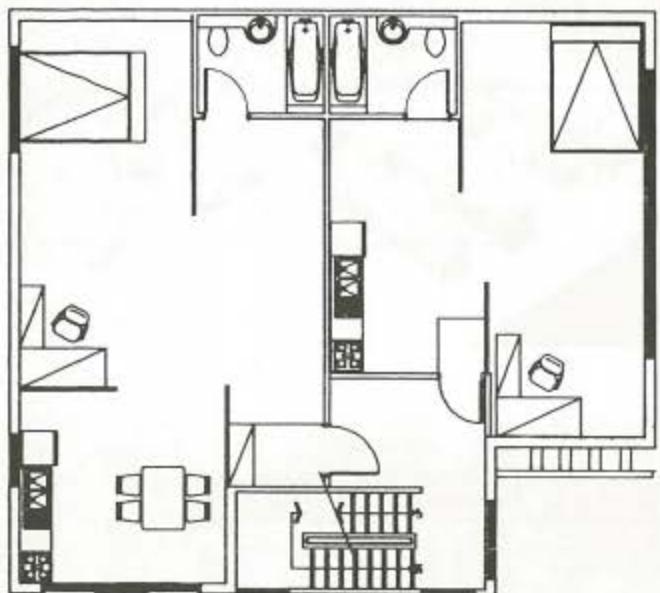


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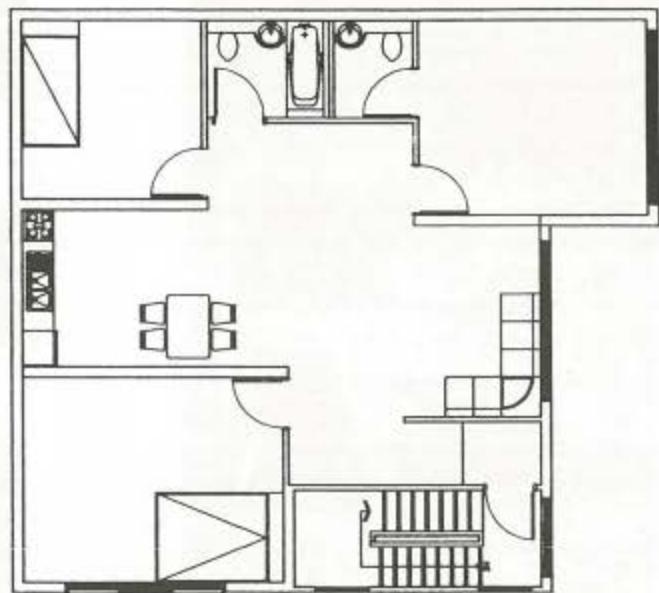


후기 계획안 모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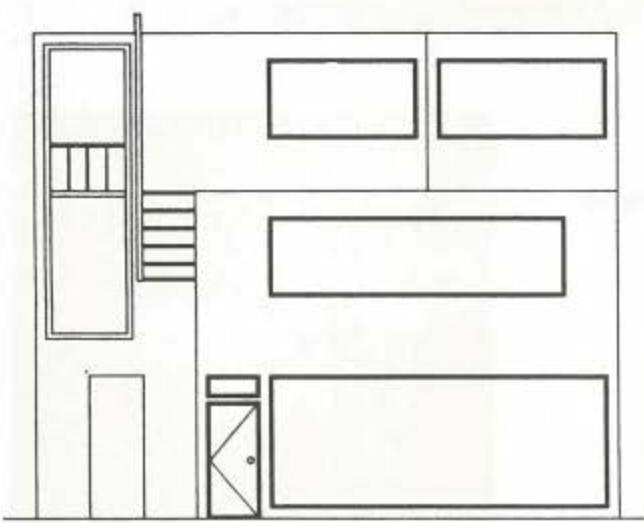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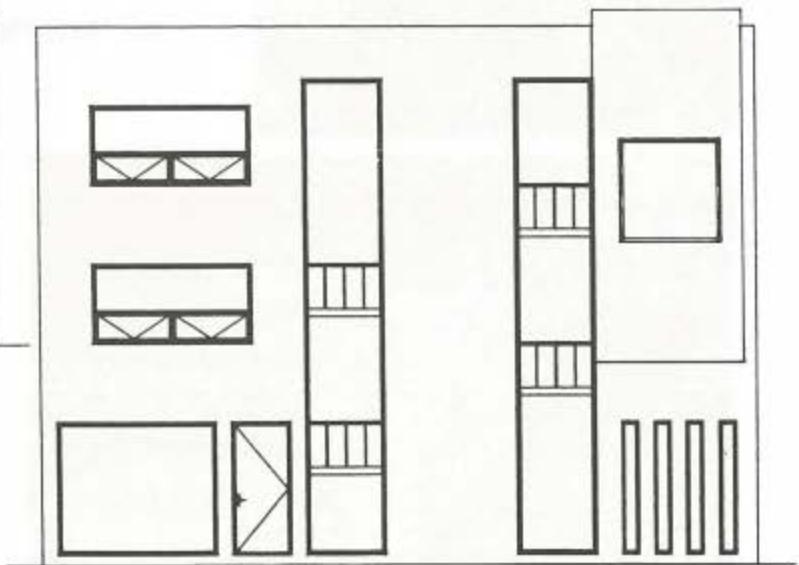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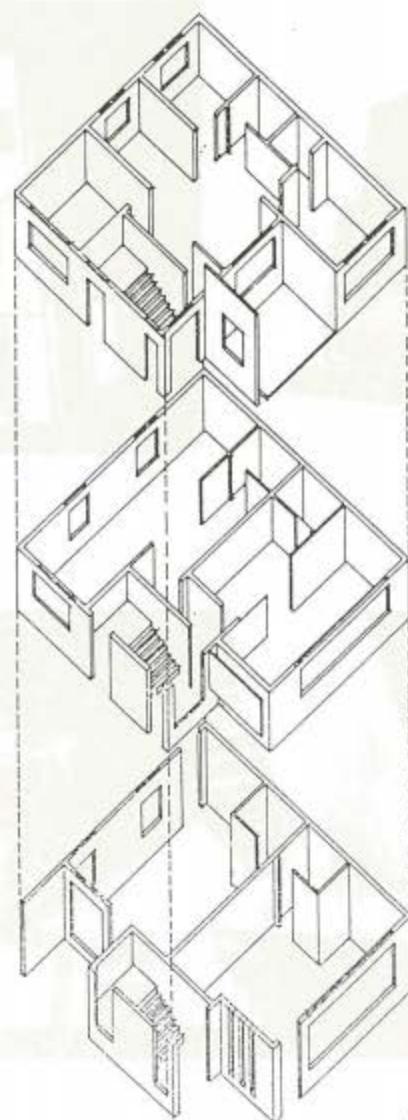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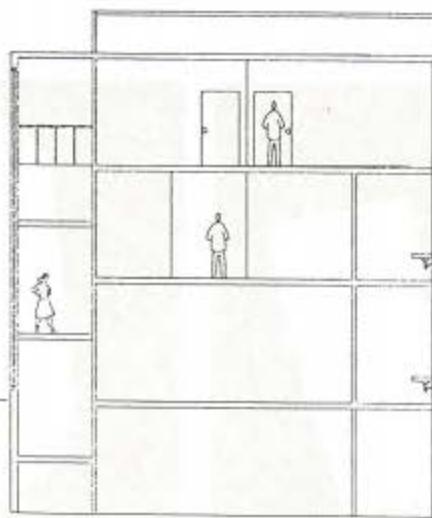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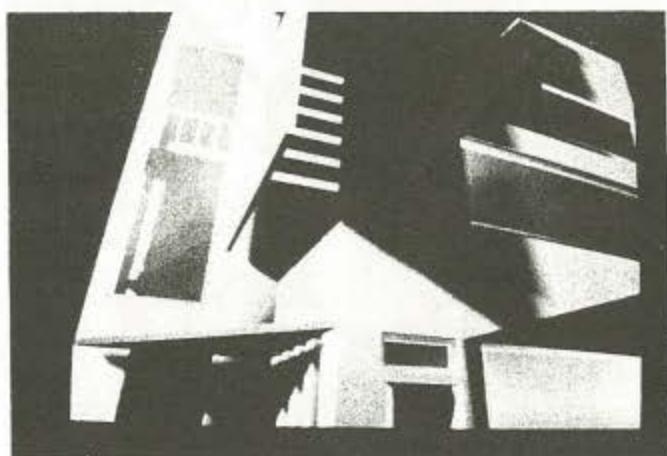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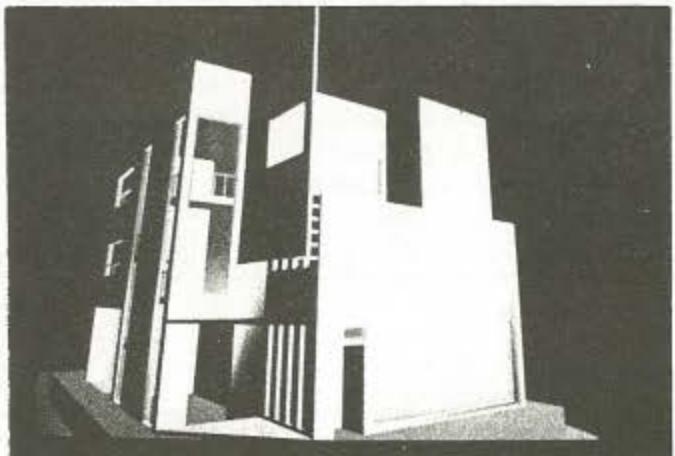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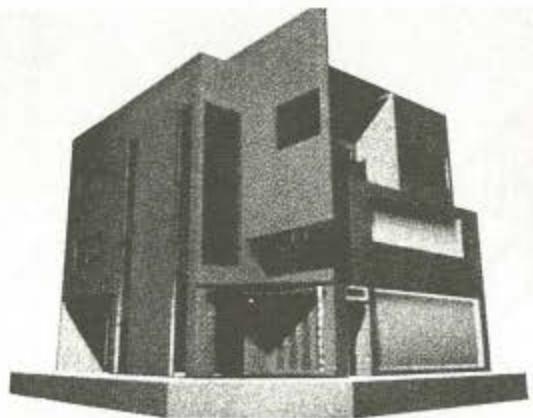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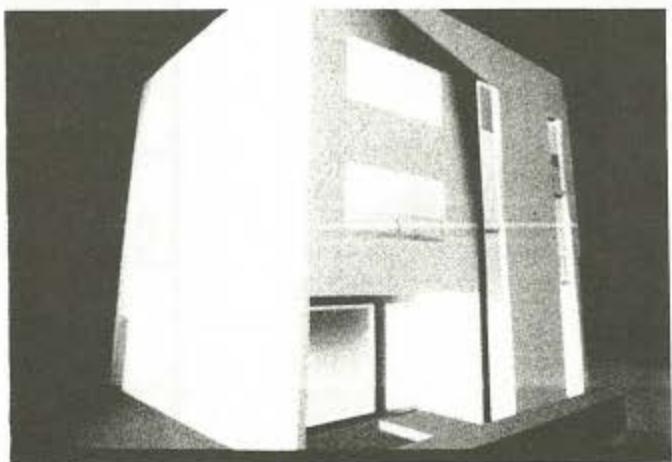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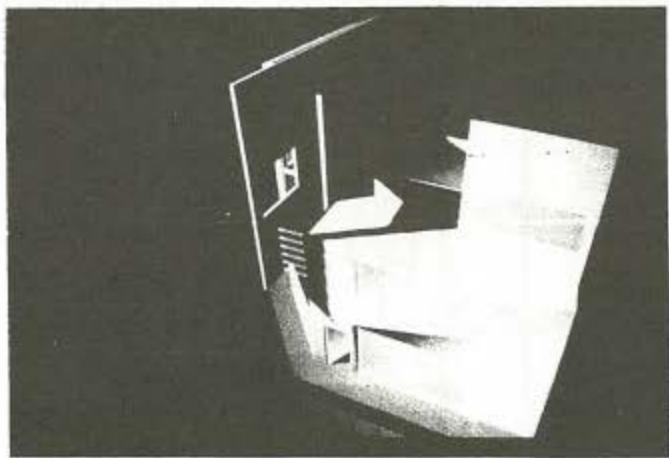
AXONOMETRIC



A-A' SECTION



후기확정안 모델사진



C 팀 작품

주제 : 형태의 생성과정

-조한국·이강복-

의 도

획일적인 대지형태 주변 대지와 같은 법규적 제한

동시 다발적으로 형태적 변함없이 화장만 짚게 한, 곁과 속이 다른 건축물.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건축을 해야한다.

우리만의 의미를 찾아 적절한 형태구성 유형을 선택하고 주어진 대지조건과 상충, 모순되는 상황에서도 그 형태의 특성을 잃지 않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건축을 해야한다. 위의 과제를 갖고 부지의 성격과 도시 맥락적 측면, 물리적 측면, 기능적 측면을 파악하고 도시에서 이루는 건축물이 가져야 하는 의미를 찾아 부여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했다. 여기에 법규적 제한과 건축주의 의도, 경제성 등 많은 요소들이 또다른 변수로 숨어 있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실제적 건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한 우리의 작업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으며 때론 궁지에 몰아넣기까지 했다.



구성도



교통체계도

개념 : 새로운 확산의 시작

논, 밭, 산, 들이었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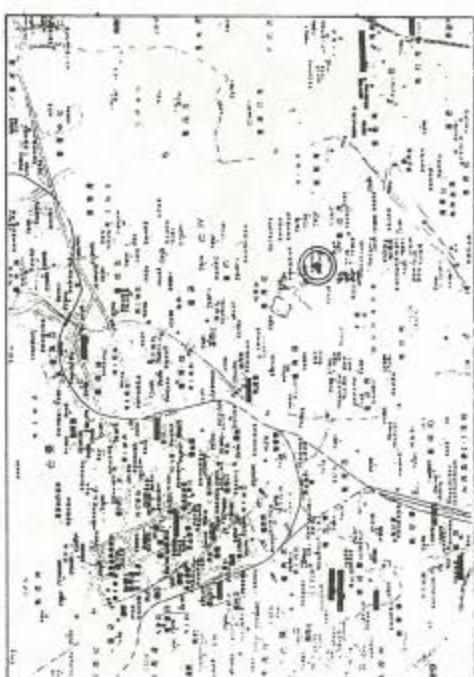
도심에서 벗어나 그저 그런 곳이었던 둔산에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매입하여 도로에 의해 비슷한 크기, 비슷한 모양으로 분할하

여 분양한 곳, 지붕 모양과 용도를 규제하는 곳, 동시 다발적 건축 행위로 인한 혼란한 건축물, 건축주의 경제성, 이쁘게 보이기 위한 화장들 이러한 함으로 혼돈이 난무한 둔산건축을 보며, 우리팀은 외부 형태를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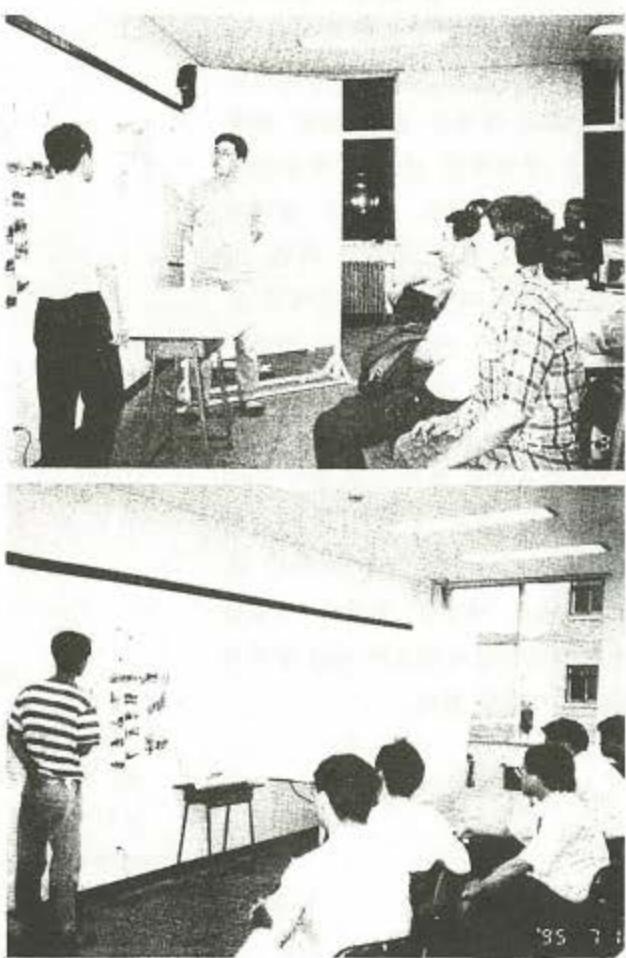
공간으로 연결되고, 형태의 변화로 화장을 하며, 솔직한 건축물, 색다른 형태로서 혁신적인 건축물은 아니나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건축을 하고자 한다. 즉,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블럭의 시작으로 행해지는 우리 건축물에 랜드마크적 요소는 아니어도 서서히 변화, 부각될수 있는, 하나의 시도를 하며 한 구획을 이루고 있는 주변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관련자에게 "의식의 깨침"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도로와 필지의 방향성



주변현황도



1. 위치

대전 구 시가지와 유성을 연결하는 계통로와 엑스포장과 서대전을 연결하는 대덕대로가 만나 이루는 사거리를 내려다 보는 언덕 그 중간 지점, 대덕 대로를 방향으로 하는 블럭과 계통로를 방향으로 하는 블럭이 만나 시비가 엇갈리는 정점에 교회와, 공원, 유치원이 있고, 바로 밑에 우리 대지가 있다.

2. 주변현황

서쪽으로 언덕을 넘으면 서구청이 있다. 이곳은 구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차, 교통, 인구 모든면이 복잡하다. 동쪽, 북쪽으로 계통로를 건너면 중앙 행정용지, 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아파트군이 한참 건설중이다. 얼마후면 복잡해

지겠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도심에 한가롭다.

대덕대로를 축으로 남쪽으로 약간의 신도시 잔재가 있으며 깊어지면 예전에 형성된 도심과 새로이 구획된 도시와 만나 그 경계가 흐트러진다. 대덕대로를 건너면 경성큰마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주변에 건물군이 이루어지면 음식점, 상점, 슈퍼등 근린 생활시설의 부족으로 차후 이런 시설이 요구 될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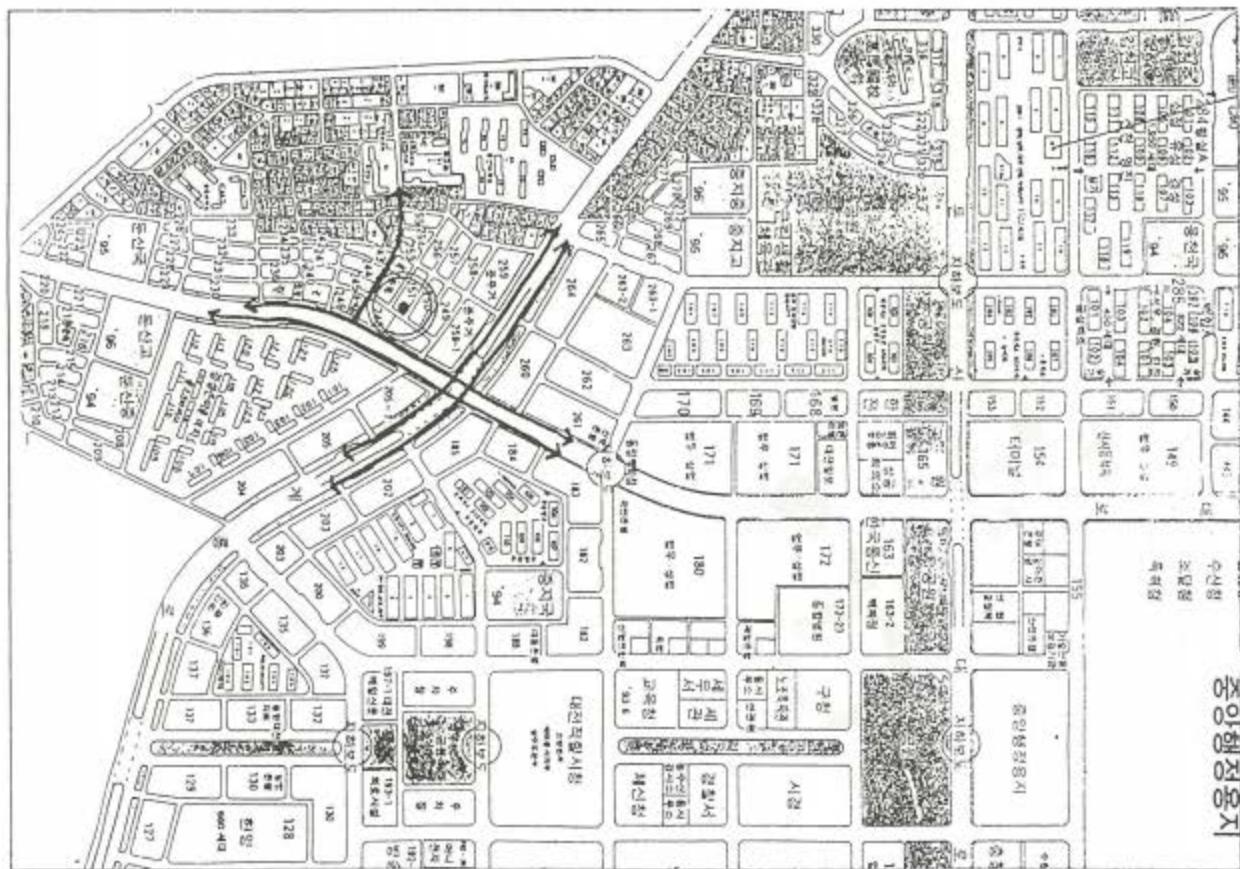
3. 도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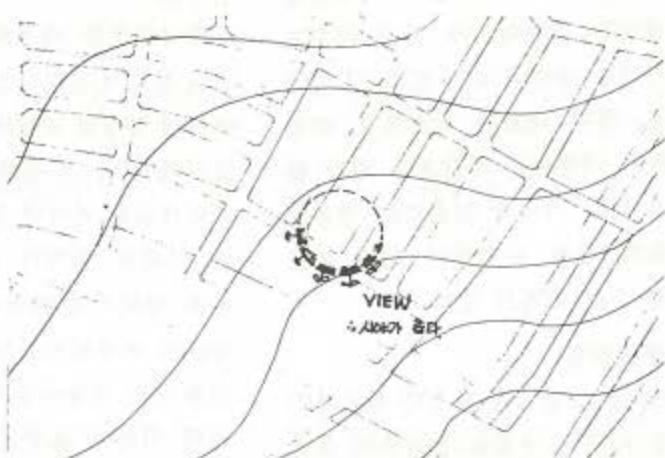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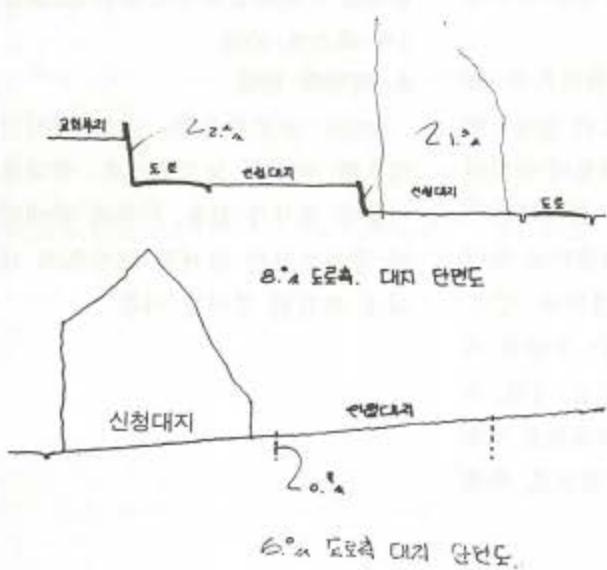
대덕대로를 진입이 용이한 1차 패스로 보면, 서구청으로 넘어가는 언덕으로 난 도로를 2차 패스, 각

블럭을 구획하는 8미터, 6미터도로를 3차 패스로 본다.

4. 대지의 형태

6미터 도로측으로 길게 경사가 있으며 8미터 도로측으로 축대를 이용한 경사가 있음, 각지의 반대편에 중심으로 한 부채꼴 모양으로 대지내 복잡한 경사를 이룸







신청대지 주변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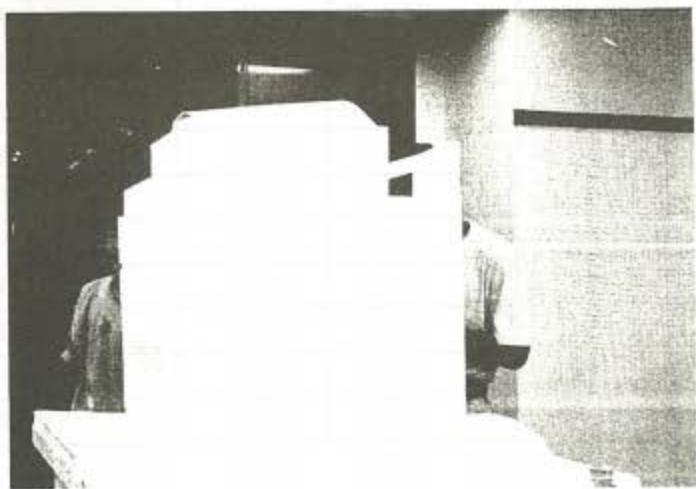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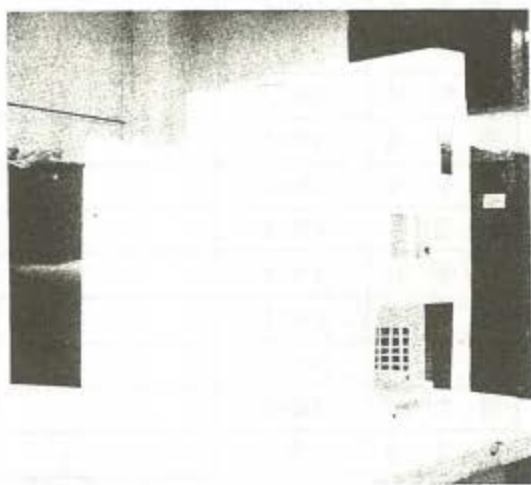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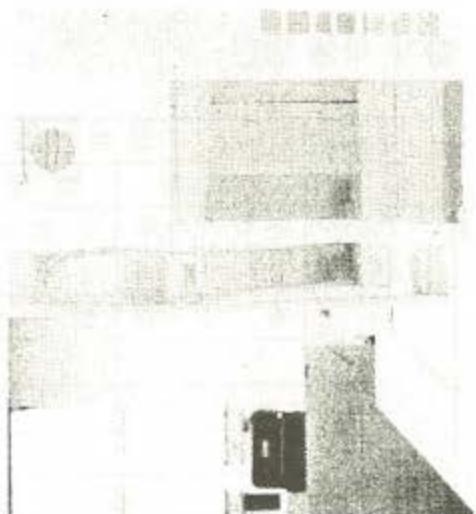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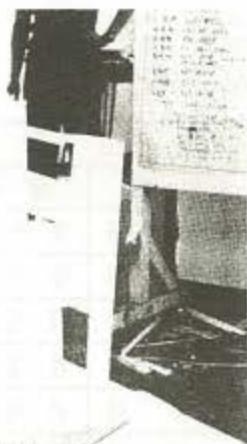


신청대지 주변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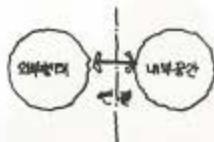
일반적인 둔산지구 건축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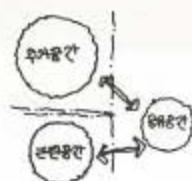
5. 기타 해결 해야할 대지 요소들

1) 솔직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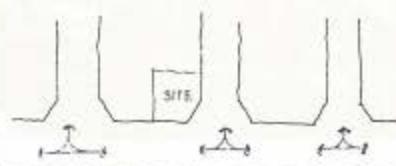
외부 형태를 내부공간으로 연결
장식성 위주의 건축 형태 탈피

2)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의 유대



전이 공간 필요 동선의 분류

3) 반복된 T자형 도로에서의 인지도 결여



4) 본 건축물로 인한 인접 블럭의 불거리 제공 - 획일적인 도시에 모법이 되는 기준점으로의 불거리 제공

5) 매우 작으며 정사각형에 가까운 대지 형태

6) 각지의 인식성



대지 고저차에 의한 위계
접근자의 인식성이 가장 큼

7) 세 방향이나 되는 대지의 축 건물 주출입구 설치의 모호성

8) 150평 미만으로 해달라는 건 축주의 요구사항

건축물 매스의 획일성

9) 세로블럭과 가로블럭이 만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밑에 대 지가 있다.

10) 단위 블럭의 하단에 있어 시 작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끝이 될 수도 있다.

지붕의 형태 : 모임 및 박공 또는
눈썹 지붕으로 해야 한다.

건축선 후퇴 : 모든 건축선에서 1M
후퇴

대지안의 공지 : 외벽 및 처마에서
0.5M 이상 공간 확보

지하층의 설치 규정 : 50M² 이상일
경우 비상 탈출구나 둘 이상의 피난
계단 설치

건축물의 규모 : 건축물의 높이는 2
층 이상으로 한다.

6. 법규적 제한

전폐율 : 60%

용적율 : 400%

조 경 : 0.5% (교목 : 0.3본 / 1M², 판
목 : 0.6본 / 1M²)

주차대수 : 주택 300M²까지 1대, 300
M² 이상 200M²마다 1대.

근린 : 200M²마다 1대.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
대쪽 경계선 까지의 거리의 1.5배
초과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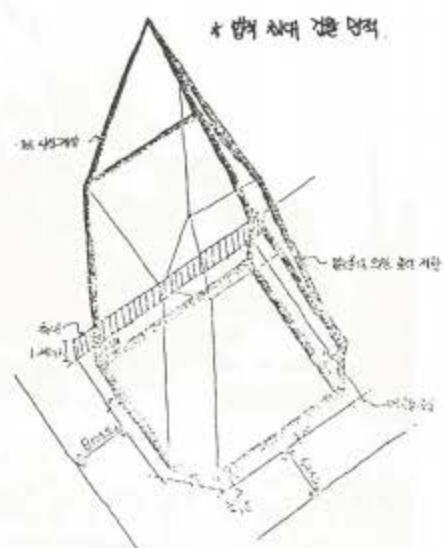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

1층으로 4M 이하는 1M

2층으로 8M 이하는 2M

3층으로 8M 이상은 각 부분에서
1/2H 이상

주거비율 : 주거 : 근린 생활시설 =
60 : 40



선형으로써의 새로운 확산의 시작

의 도

8미터 도로에 의한 축을 가장 높은 위계로 해석 8미터 도로측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

방 법

건축물을 8미터 도로측으로 길게 배치하며 보다 선형으로 하기 위해 6미터 도로측에 직각으로 양분하여 그 사이에 복도를 두며 또한 복도를 사이로 바닥 슬라브에 단차이를 두어 진입자 및 사용자로 하여금 대지내의 고저차를 인식 시키며 전면의 선형적 공간에 균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주요실을 배치하고 후면의 선형적 단위 공간에는 계단실 화장실 보일러실등 부대 공간을 둔다

또한 축대를 따라 경사로를 만들어 사용자로 하여금 보면서 직접 대지내 레벨 차이를 인식 시키며 2,3층 주거 사용자와 지하1층 지상1층 균린 사용자와의 동선을 분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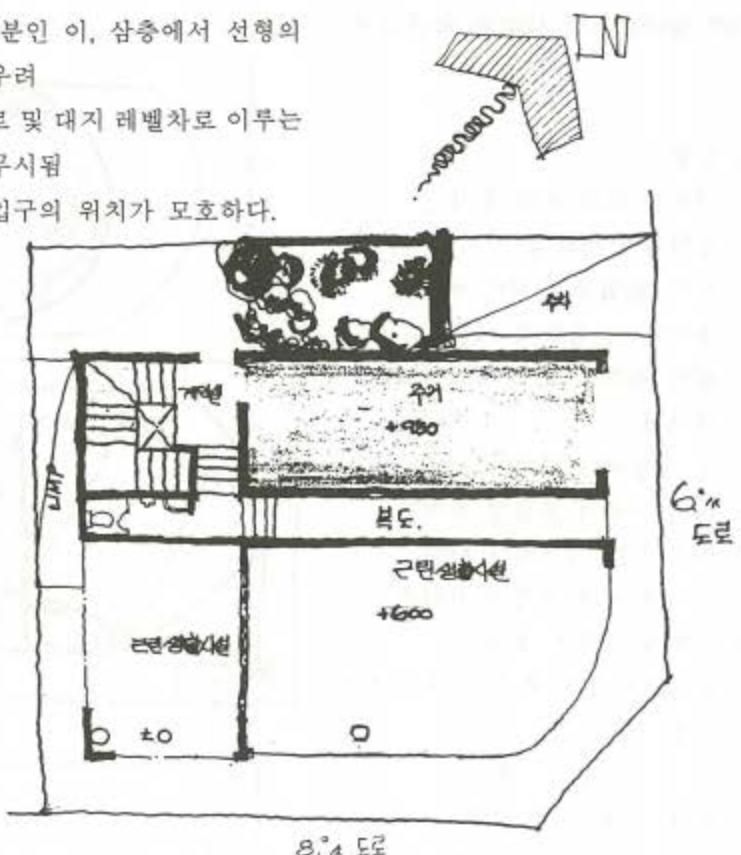
장 점

1. 대지내 레벨차를 사용자에게 재미있게 인식 시킬 수 있다.
2. 8M도로에서 균린생활시설 사용 용이
3. 주거와 균린생활시설의 동선 분류
4. 8M도로의 위계 강조

단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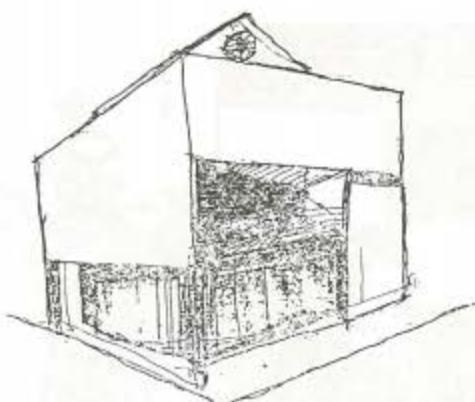
1. 일층 점포면적 감소로 경제성이 나쁘다.
2. 균린시설 이용자는 출입이 용이 하나 주거 사용자는 출입이 나쁘다.

3. 주거부분인 이, 삼층에서 선형의 파괴 우려
4. 6M도로 및 대지 레벨차로 이루는 축이 무시됨
5. 주 출입구의 위치가 모호하다.



결 론

선형으로 선택시 대지의 레벨차나 8M도로의 축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며 주거 부분의 평면이 좋지 못하므로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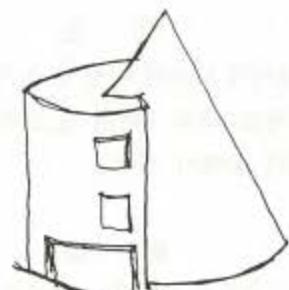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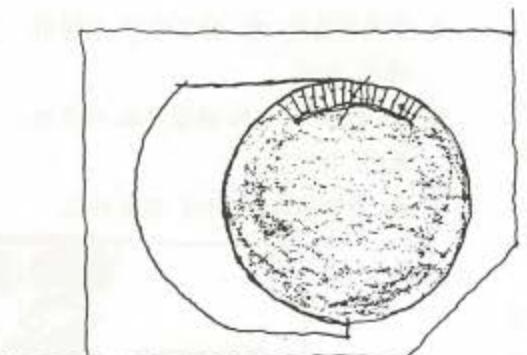


다른 형태로서의 새로운 확산의 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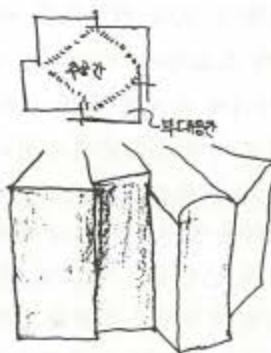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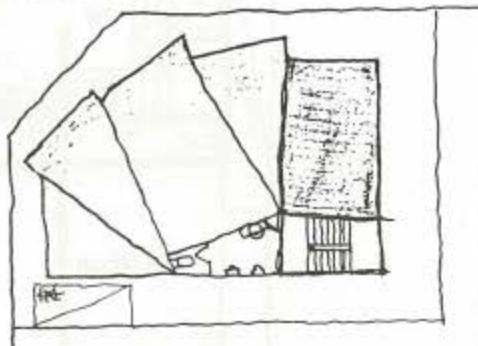
1. 원형 :

- 기준점 확산 표현 용이
- 방향성이 사라짐
- 각지, 출입구 해석이 어려움
- 대지의 비 효율적 이용
- 평면 계획시 실 구획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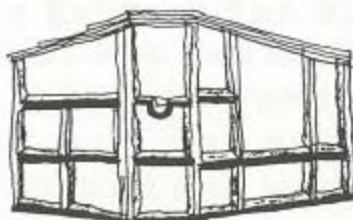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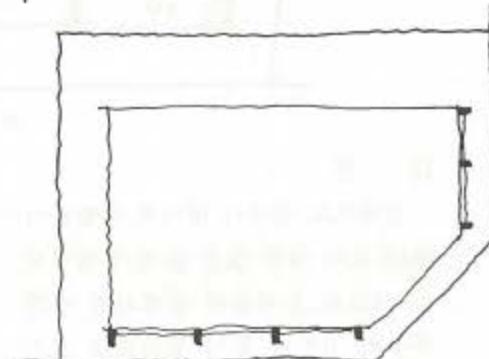
2. 방사형 :

- 주 출입구(전면성이) 사라짐
- 대지 사용의 효율성 적어짐
- 시공성 및 경제성이 나쁨
- 각지에 대한 해석이 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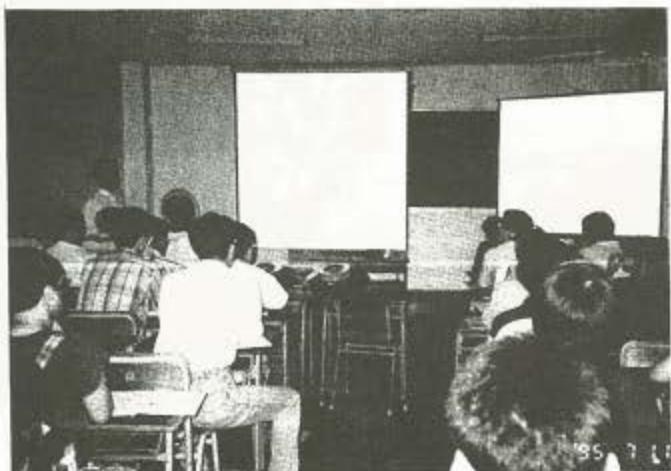
3. 전면에 부족별 설치

- 형태로서의 변화가 아닌 장식적 요소



결 론

원형, 원뿔형, 방사형등, 다양한 형태가 유추되었으나 어느 특정한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실질적 건축이라는 전제속에선 더욱 많은 부분을 충족 시킬 수 없어 포기됨



박스와 박스로서 새로운 확산의 시작 의 도

8M도로 6M도로 및 각지 쪽으로의 대지경사등 대지가 갖고 있는 모든 축을 중요시 하며 대지의 활용도를 최대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함.

방 법

- 법적 최대 측적표를 이용하여 대지의 형태를 따라 생기는 사각형을 입방체로 하는 박스(기본 박스)를 설치하고 각지 부분을 따내어 형태의 변화로 접근자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이곳에 같은 박스(주 박스)를 접목 시킴으로 단순성, 획일성을 피하도록 함
- 주 박스와 기본 박스가 이루는 공간을 이용 이곳에 복도, 계단, 보일러실, 화장실등 부대공간을 둘으로써 주 박스에 계획될 근린시설 및 주거의 주 공간과 비교 박스를 사용자가 느끼게 한다.
- 따내진 기본 박스의 부분과 주박스의 모서리는 접근자의 시선을 유도 및 고정 시키는 역할로 T자형 도로에서 브릭의 시작에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따내진 기본 박스를 지하부분으로 연결 시키여 그곳에 식수를 함으로 지하 근린사용자가 빛과 그림자를 느낄 수 있게하며 따내진 기본 박스의 형태를 계속 유지도록 함.

5. 기본 박스와 주 박스가 이루는 일층 부분의 공간에 경사로 및 낮은 계단의 설치로 대지내 경사를 쉽게 인식하도록 함.

6. 일조권 확보를 위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에 주차장 및 쌈큰가든을 설치하여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하층에 조경을 설치함으로 자칫 나빠질 수 있는 지하층의 환경을 보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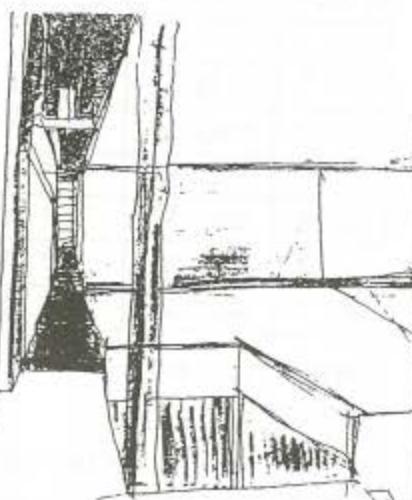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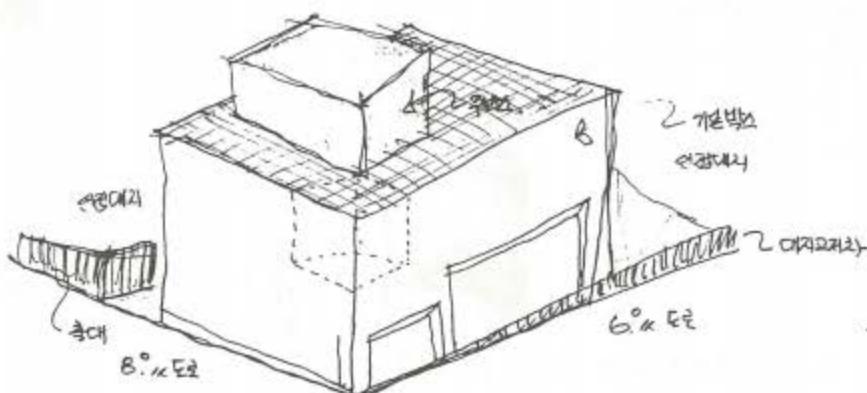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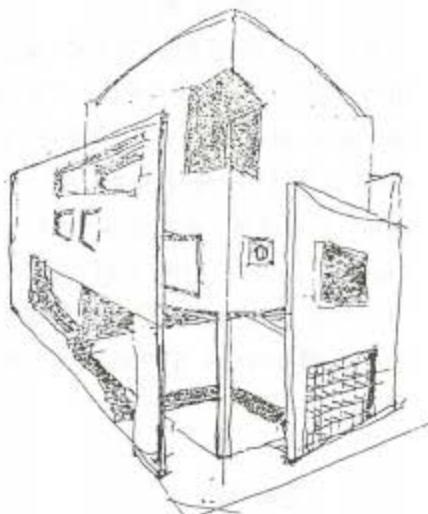
7. 8M, 6M 도로에 일층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를 둠으로 임대 면적의 극대화와 이용도를 높이도록 함.

8. 인접대지 축대부근에 수직 이동 방법으로 계단을 둠으로써 이웃 건물에서의 내려다 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9. 계단실(주 출입구)를 8M도로측에 설치 함으로써 두 방향의 도로중 주 출입구쪽 도로가 다소 위계가 높음을 상징하려 함.

10. 도로면에 계단실을 두어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주거 이용자간의 동선의 겹침을 최소로 하도록 함.

11. 주 박스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층에서는 거실 및 안방등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건축물이 박스로 이루어짐을 인식하도록 함.



설계시 유의 사항

1. 가장 기본적 형태로 보면 획일화 된 형태가 될수 있다.
2. 주 박스와 기본 박스와의 이질감 을 느낄수 있다.
3. 디테일의 변화가 너무짙은 화장이 될수 있다.
4. 형태의 유추와 의미의 부여가 아닌 경제적 가치(건축주의 의사)에 너무 치우치는 우려가 있다.
5. 일종에 설치된 경사로와 계단이 보행자의 흐름을 막을수 있다.

결 론

향후 주거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근린생활시설의 수용이 필요하며 대지의 효율적 사용과 보다나은 평면결정에서 또한 대지 형태의 인식에서 우리팀의 개념인 “새로운 확산의 시작”이란 곳에서 점차적인 의식 변화의 선두적 역할을 충분히 해나아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001번지(대)

대지면적 : 228M²(69.⁵PY)

지역지구 : 일반주거 지역 대전둔산지구(단독주택건설용지)

구 분	면 적		용 도
	M ²	PY	
지 층	108.5 M ²	32. ⁸² PY	근린 생활시설
1 층	124.2 M ²	37. ⁵⁷ PY	주택, 근린 생활시설
2 층	130.5 M ²	39. ⁴⁸ PY	주택
3 층	130.5 M ²	39. ⁴⁸ PY	주택
합 계	493.7 M ²	149. ³⁴ PY	

건축면적 : 135.⁵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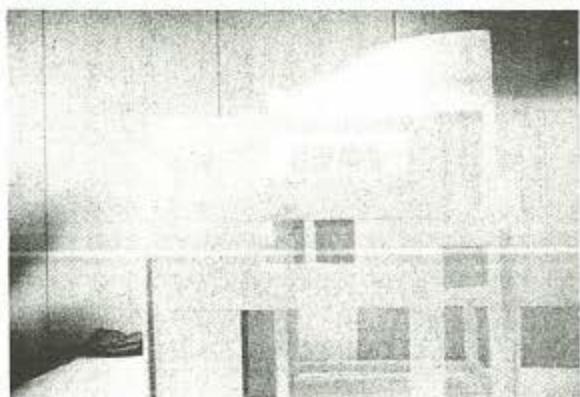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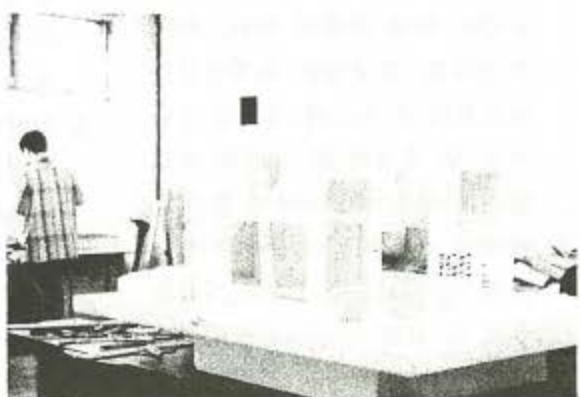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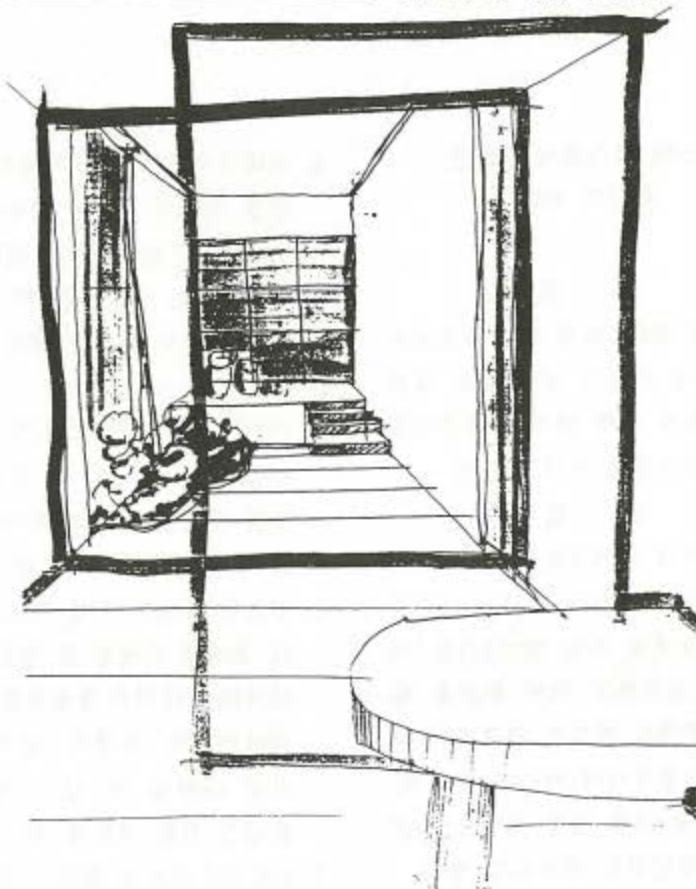
연 면 적 : 493.⁷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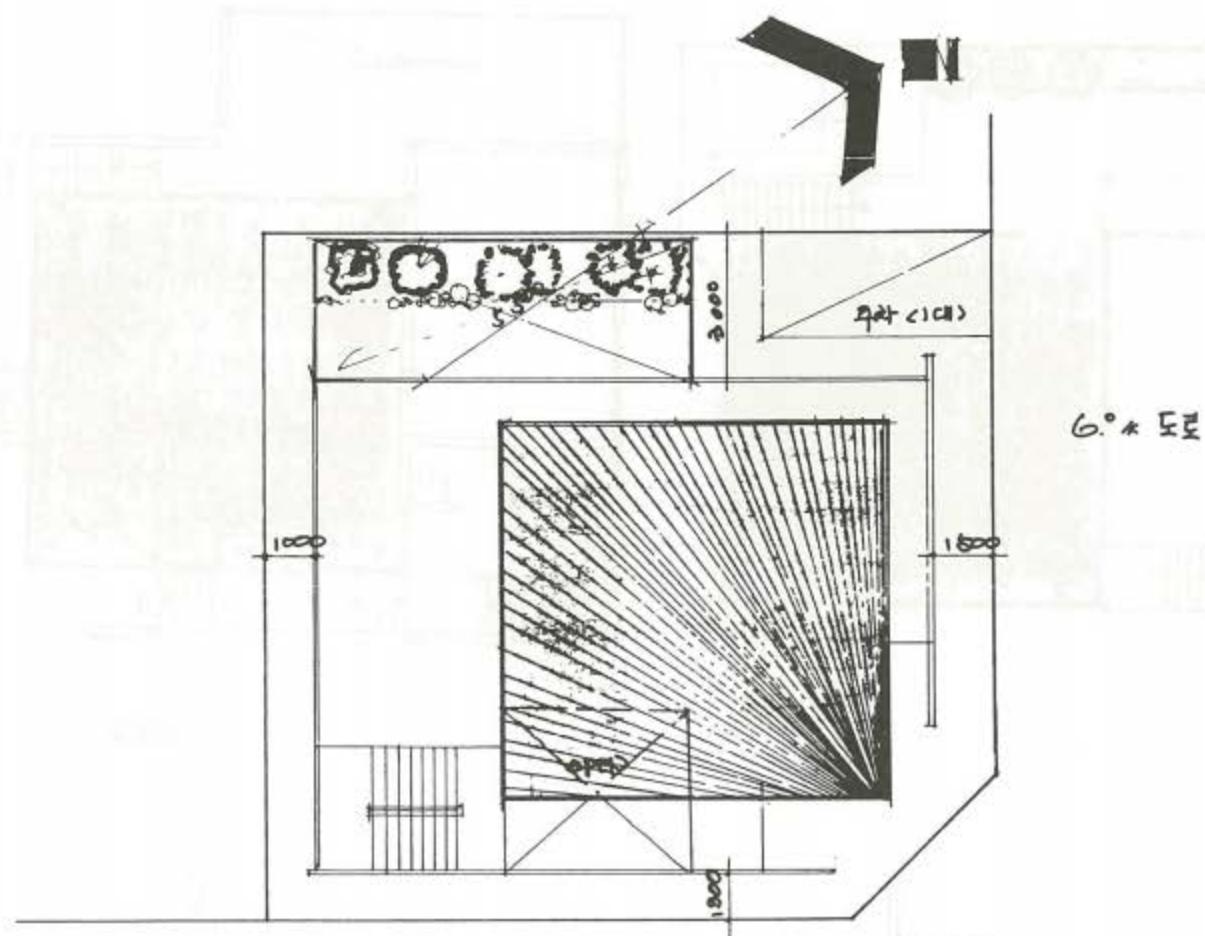
건 폐 율 : 135.⁵ × 228.⁶ × 100 = 59.²⁷ %

용 적 율 : 385.² × 228.⁶ × 100 = 168.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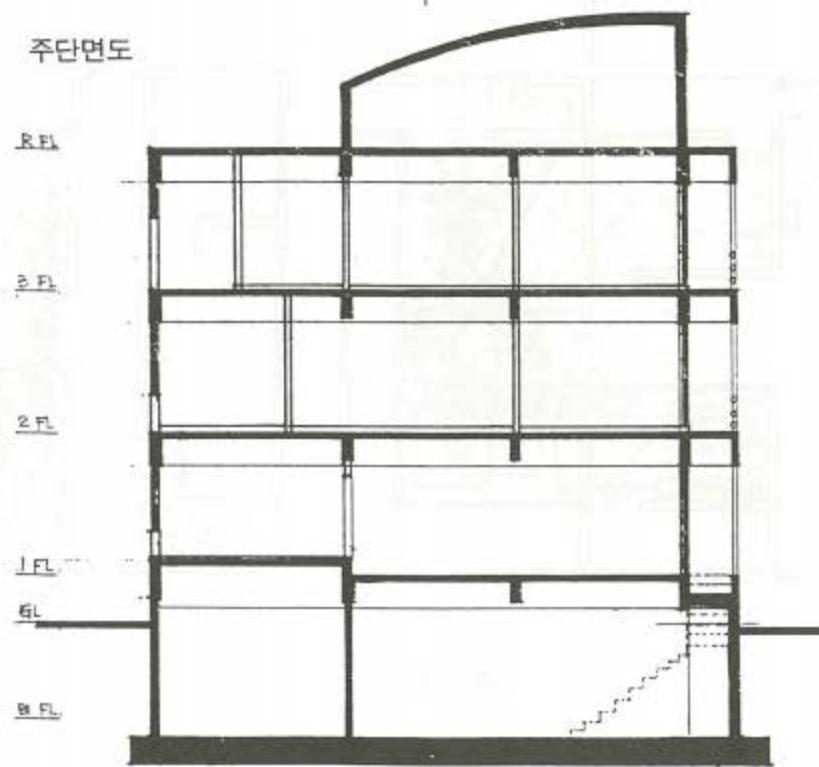
주 차 : 주거 200M² 이상 300M² 이하, 근린 200M² 이하 이므로 1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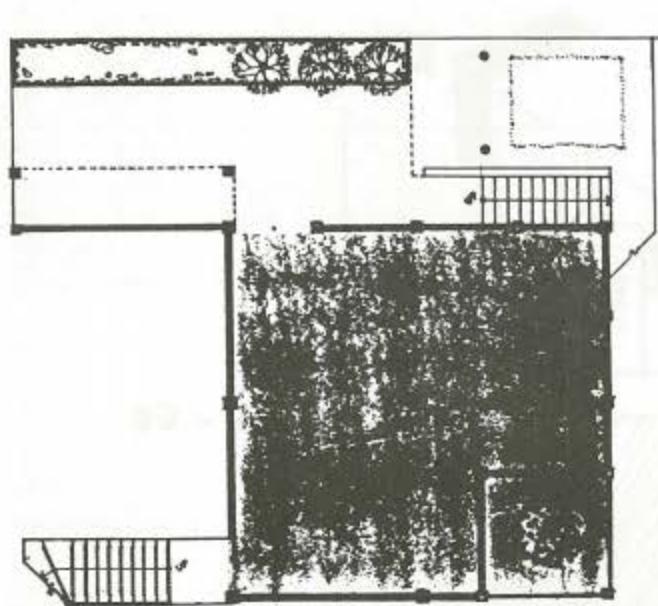
조 경 : 법정 면적(11.⁴³ M²) < 실시 면적(15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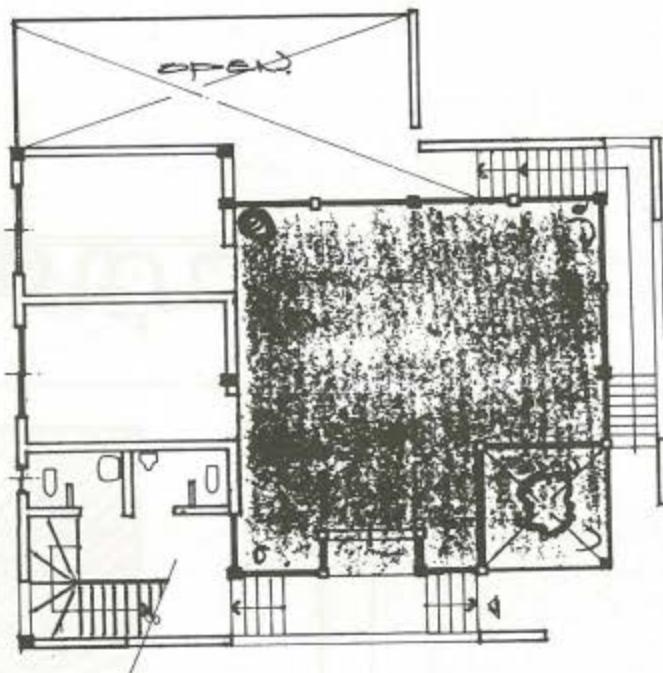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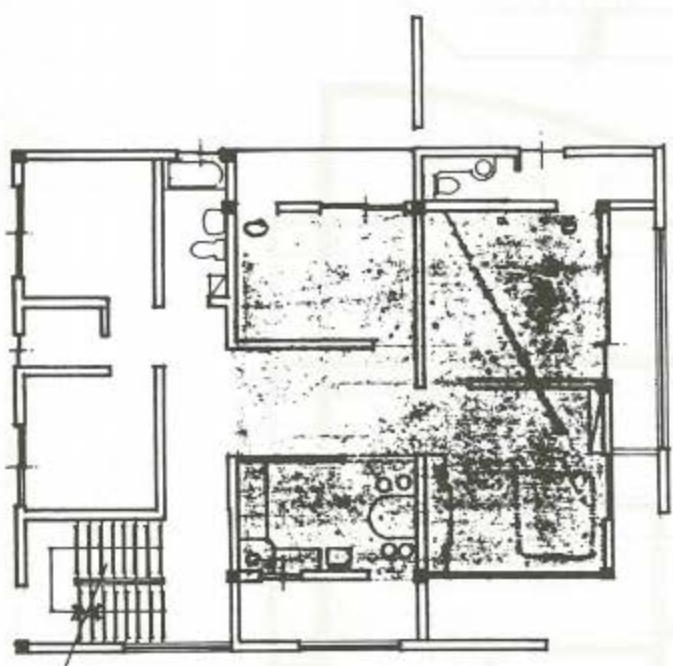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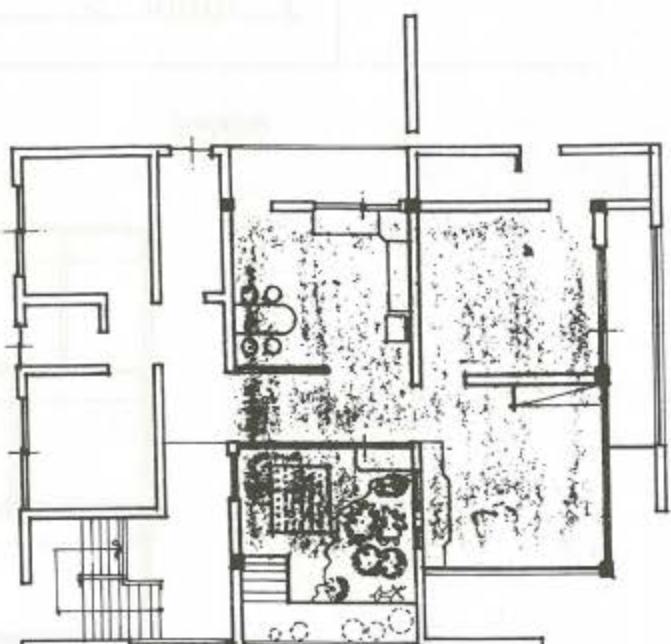
지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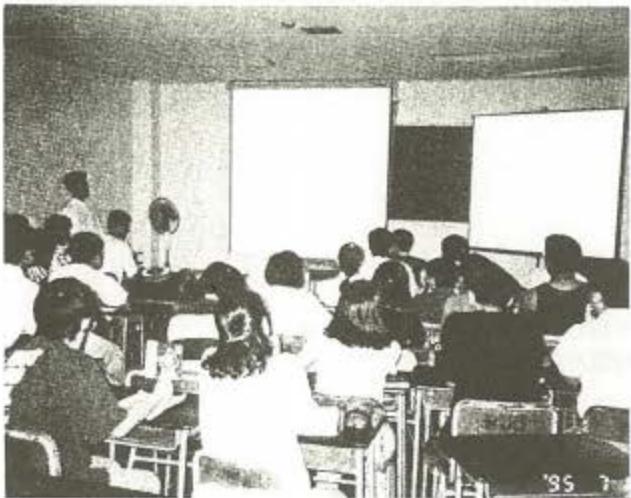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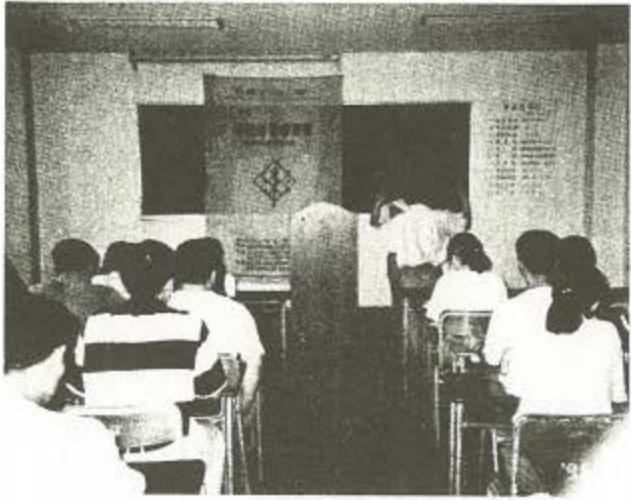
2층평면도



3층평면도

참가 학생 명단

	프로젝트 팀			참여 팀			비고
	소속	성명	학년	소속	성명	학년	
1팀 (A팀)	종합건축팀	김민수	건축사보	충남대	성우경	4학년	
	충남대	김보성	대학원생	충남대	류호덕	3학년	
	한남대	신수범	대학원생	충남대	이상민	3학년	
				한남대	엄홍규	4학년	
				한남대	권명상	3학년	
				대전대	강규민	3학년	
				대전대	권기풍	3학년	
				목원대	김덕현	4학년	
				목원대	신호철	4학년	
				대전산업대	김관기	4학년	
				대전산업대	신은경	3학년	
2팀 (B팀)	대전종합건축	오은순	건축사보	충남대	김문장	4학년	
	충남대	장세근	대학원생	충남대	여일석	3학년	
	대전대	남태욱	대학원생	충남대	심수진	3학년	
				한남대	최문봉	4학년	
				한남대	서경화	4학년	
				대전대	김옥제	3학년	
				대전대	손인원	3학년	
				목원대	조만재	4학년	
				목원대	박선영	3학년	
				대전산업대	엄경식	4학년	
				대전산업대	김종완	4학년	
3팀 (C팀)	종합건축팀	이기필	건축사보	충남대	김학균	3학년	
	한남대	조한복	대학원생	충남대	조은일	3학년	
	목원대	이강복	대학원생	충남대	박소영	3학년	
				한남대	강효현	4학년	
				한남대	조병철	3학년	
				대전대	이창희	3학년	
				대전대	최인석	3학년	
				목원대	안진숙	4학년	
				목원대	송환규	3학년	
				대전산업대	송재향	4학년	
				대전산업대	이용호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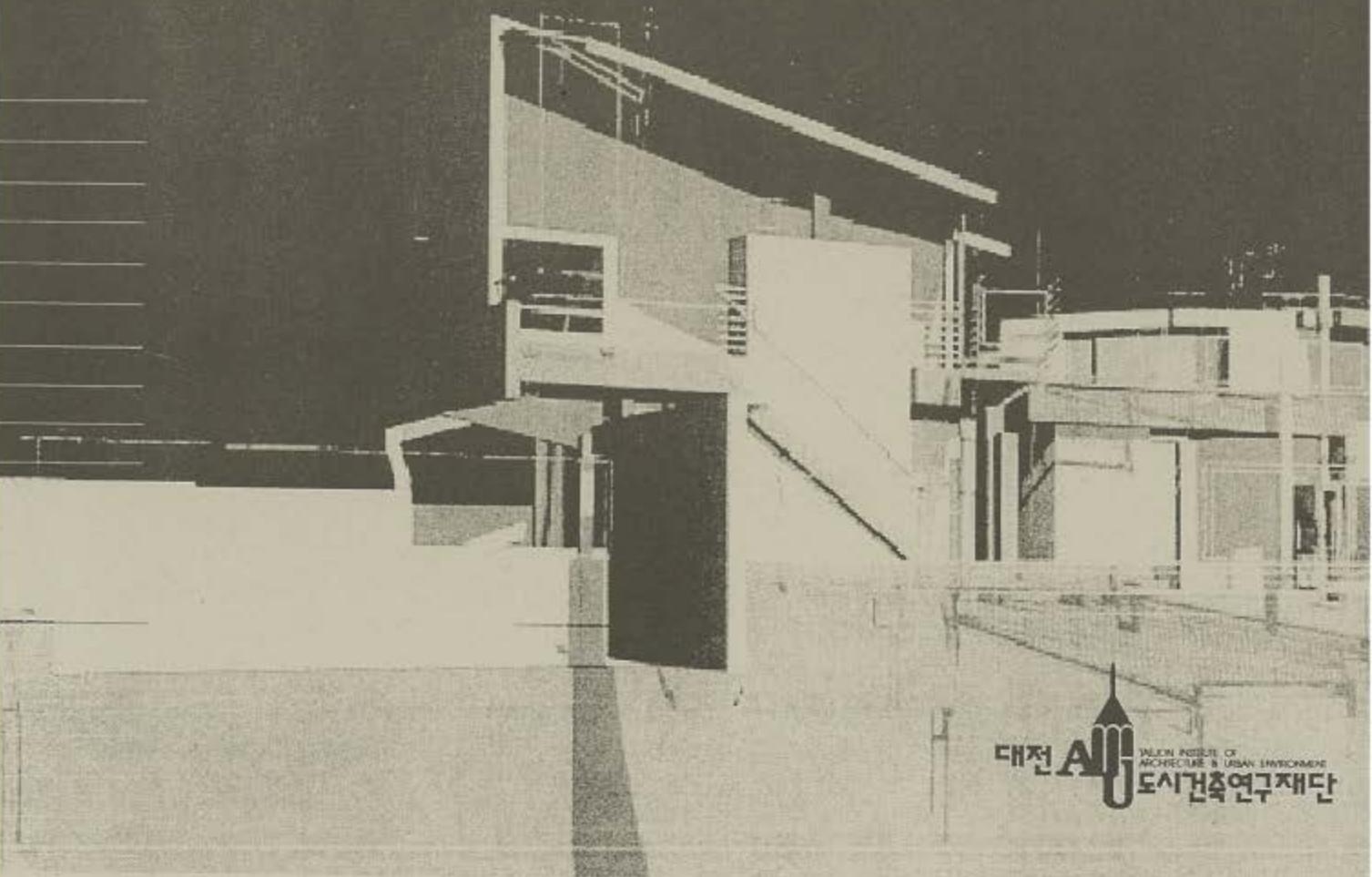
'95 제 7 차 건축디자인캠프

— 형태의 생성과정 —
(도심속의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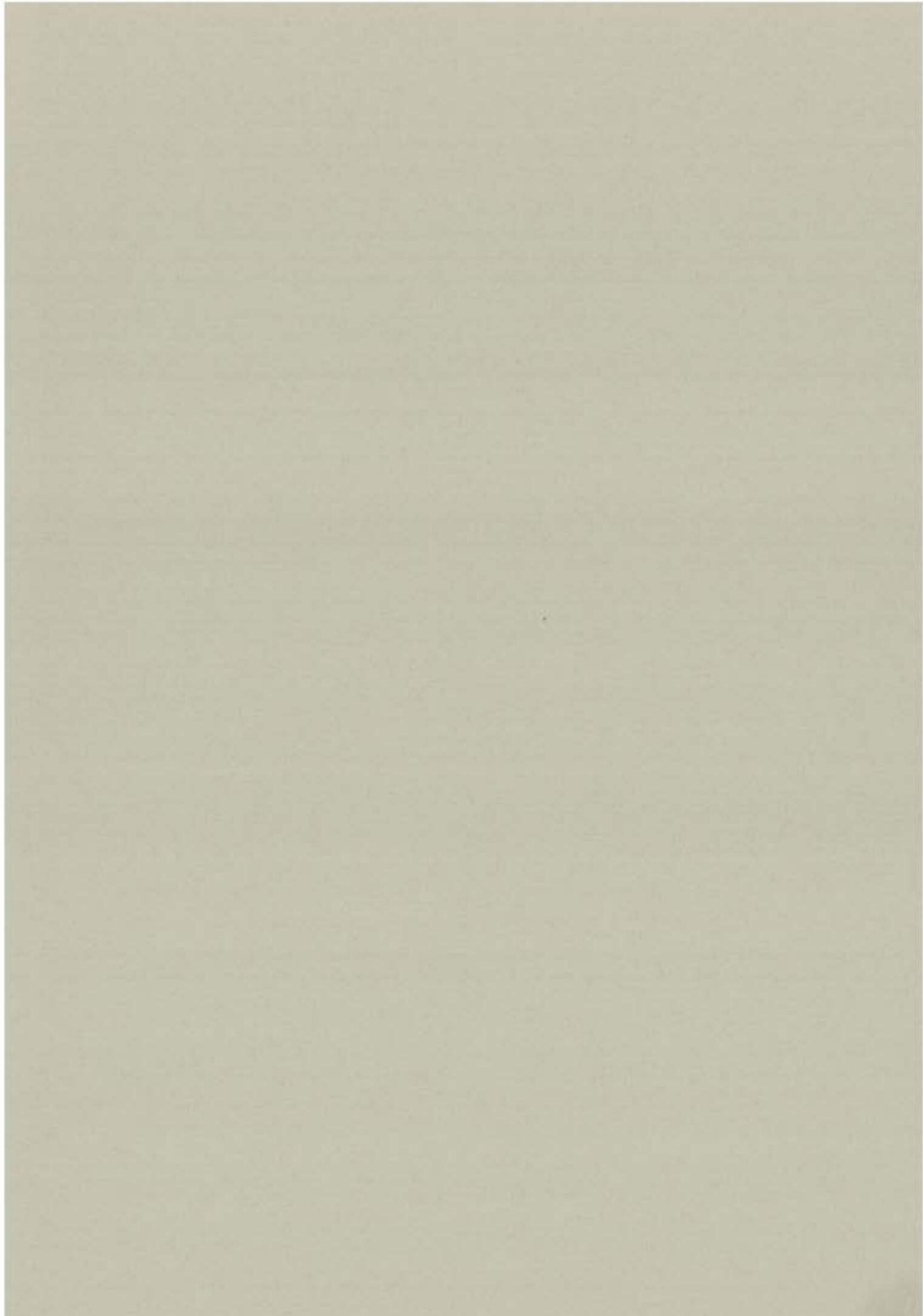
1995년 12월 1일 인쇄
199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임 근 수
편집인 : 정인협 · 최 진
발행처 : 사단법인 대전도시 · 건축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87-1
전화 : (042)257-7258
인쇄인 : 문 장 인 쇄 사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전화 : (042)256-6073
FAX : (042)257-6073

건축디자인캠프 1996



대전 AII
TAEJON INSTITUTE OF
ARCHITECTURE & URBAN ENVIRONMENTS
도시건축연구재단



인사말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류 성 회

무더운 여름날씨에 본 디자인 캠프에 동참한 건축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나 그늘을 마다하고 본 캠프를 찾아 그동안 교수님들의 강의만 듣던 생활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획을 긋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와 이론을 바탕으로하여 그룹 토론도하고 지면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모형을 만든다는 것은 커다란 발전을 기약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내가 택한 전공이 반듯한 길일수도 있고, 모래 자갈이 섞여있는 험한 길일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앞날에 중요롭고, 완벽한 길을 만드는데 튼튼한 기초가 될것이며, 꼭 필요한 경험일 것입니다.

어떤 과제에 그룹친구들과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디자인의 일면을 경험한다는 것은 학교생활과는 다른면을 경험할 것입니다.

과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대지(위치), 구조, 표현방법(강의내용), 토론을 거쳐 작품을 만드는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는 반복작업에서 지도교수와 지도튜터님들의 가르침에서 경험한 것과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구경험을 살려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번 캠프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들로 구성된 튜터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람있고,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것을 후배학우 여러분들에게 지도한 튜터님들 노고와 지도 교수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의 문제점이 된것은 학생들에게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설명이 부족했던것 같고, 튜터들간에 사전협의(주제설명, 계획, 지도방법등)가 적었던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임하는 자세는 모두가 진지한 자세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경험을 살려 앞으로는 건축학우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실을 맺는 완벽한 캠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반성도 해봅니다.

일주일간 캠프생활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탐구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체자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보람이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교수님들과 튜터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7.

건축디자인 캠프에 대한 바램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
이사장 임근수

금번 제8차 건축디자인 캠프는 각 대학 교수님과 건축사회 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행사를 치르게 되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디자인 캠프는 제1차에서 8차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수, 건축사 또는 컴퓨터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학생들간의 지도차원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지도해 나갈것인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추천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박 6일로 진행된 제8차 디자인 캠프는 너무 무겁지 않고 작지만 이지역 꼭 필요한 "건축환경=인간사회의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심지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써 진행된 것 같습니다.

또한 산학협동차원에서 실무를 다루고 계신 젊은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수 있도록 이번 캠프에는 컴퓨터선생님들의 구성을 건축사로 하여금 전담토록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교수님께서 협조하는 컴퓨터시스템 체제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컴퓨터들이 확보될수 있었으며, 토론회를 통하여 향후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파악하므로써 디자인 캠프의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8차 디자인 캠프일정을 마치면서 토론회를 통해서 본 캠프에 대한 바램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사, 교수, 학생들 스스로가 진정 대전, 지역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한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될것이며 이에 따라 열린캠프, 사랑의 캠프, 성숙된 지역의 캠프로서 발전될수 있을 것이다.

둘째, 캠프 준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돌아오는 캠프 10주년 행사에 대비토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캠프운영위원회는 제8차 캠프운영에 따라 조직-프로그램의 내용, 컴퓨터들의 교육, 지도방식, 운영방법, 초청강사님의 문제, 학생의 선정등-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여 다음캠프에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끌으로 제8차 캠프를 진행하느라 고생해주신 목원대교수님, 그리고 컴퓨터 선생님,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노고를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러한 캠프에 대한 바램이 내일의 희망찬 미래로 영원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7

'96건축 디자인 캠프 운영개요

취지

대전지역의 6개 대학 및 전문과정(대학원) 건축공학과간의 설계교육의 질을 공동으로 증진시키고 산학협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과 접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건축인의 양성을 도모코자 한다.

주제·建築環境=人間社會의 회복

건축가의 디자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는 노인 복지시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능의 구성에 대한 역할과 구성 원칙에 대한 깊은 탐색으로부터 출발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캠프에서는 도심속의 실제 대지 조건에 적합한 노인복지시설을 선택하고 주어진 대지조건(실제의 건축법규를 포함)과 상충, 모순되는 상황 하에서도 그 기능의 특징을 잃지 않는 디자인 능력을 제고하는 설계 공부가 주된 목표가 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실제의 설계안을 수행하면서 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재조명하면서 그로부터 인간 존중의 회복 과정을 크리틱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며, 크리틱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지

켜 보면서 노인복지시설의 배경과 역할을 논리, 디자인 수단과 기법 등에 관한 폭넓은 크리틱과 함께 색다른 설계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용도 : 都心地老人福祉施設

위치 : 5개 구에서 각 1곳, 둔산에 있는 공원중 2곳, 총 7개 SITE

규모 : 연면적 50평 내외, 부지 면적 150평 이내 공간 구성은

- ① 휴식공간
- ② 급식시설
- ③ 간이진료 & 건강상담
- ④ 기타

일정 및 장소

일정 : 1996년 7월 1일~7월 6일 (5박 6일)

장소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실

참여형태 및 구성

프로젝트 참여학교 : 6개 대학(대전대학교, 대전산업대학교, 목원대학교, 우송산업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3, 4학년 재학생(33명), 대학원생(2명) 계 : 35명

참여팀수 : 7개팀(팀당 5명)

조작표

- 명예위원장 : 유성희 회장(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 임근수 이사장(대전 도시건축 연구재단 이사장)
 - 위원장 : 윤석천 원장(대전 도시건축 연구원 원장)
 - 부위원장 : 이영순 부회장(대전광역시 건축사회 부회장)
 - 정인협 부이사장(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 부이사장)
 - 김정동 부원장(대전도시건축연구원 부원장)
 - 원유택 부원장(대전도시건축 연구원 부원장)
 - 학교장 : 이왕기 교수(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캠프장 : 이기승 교수(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후원회 : 박정원 교수(건축학회 대전 충남지부장)
 - 정수영 교수(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 지부 회장)
 - 박홍우 소장((주)협창 건축사사무소)
 - 강우식 소장(조형그룹 건축사사무소)
 - 송승호 소장(건축사사무소 세원)
 - 총무 : 박태근 교수(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정하균 소장(건축사사무소 그린건축)
 - 부총무 : 김병글 소장(이상 건축사사무소)
 - 홍보섭외 : 이길주 소장((주)정주 건축사 사무소)
 - 양의모 소장((주)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
 - 양와숙 소장((주)실크E.N.G 종합건축사사무소)

- 편집 : 도용호 교수(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종원 소장(건축사사무소 시상)
 - 이현희 교수(우송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 협력위원 : 손세욱 교수(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송하영 교수(대전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신경재 교수(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오덕성 교수(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재연 교수(목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상기 소장(김상기 건축사사무소)
김영두 소장(대일 건축사사무소)
박현배 소장(박현배 건축사사무소)
석종구 소장(석종구 아트 건축사사무소)
안중삼 소장(안중삼 건축사사무소)
유병우 소장(씨.엔.유 건축사사무소)
유창열 소장(동인 건축사사무소)
이상목 소장(목 건축사사무소)
이철규 소장(이철규 아트 건축사사무소)
이총희 소장(이총희 건축사사무소)
장창호 소장(건축사사무소 피엘)
최율 교수(건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탁광호 소장(세일 건축사사무소)
한하온 소장(한하온 건축사사무소)

• 지도 위원

코디네이터 : 설계학교장 이 왕 기 교수
캠프장 이기승 교수

Tutor : 전임튜터 14인, 예비튜터 7인, 협력튜터 6인

	퓨 터	전화 번호	협 력 퓨 터	공개 크리틱지도위원회/초청강연 및 초청 크리틱위원
전 임	1 김 인 철 (이상 건축사사무소)	533-6507	길성호 (대전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상겸(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진규(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관석(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임암빈(건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종현 (우송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공개 크리틱 지도위원 교수 : 각 대학 건축과 교수 건축사 : 강영창(건축사사무소 대원건축) 김인수 ((주)신회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재범 (법 건축사사무소) 김종덕 ((주)세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남병대 ((주)다듬 건축사사무소) 박문웅 ((주)경원 건축사사무소) 여태석 (고유 건축사사무소) 이규홍 (창우 건축사사무소) 이병수 ((주)정전 건축사사무소) 이재성 (창우 건축사사무소) 이택준 ((주)건축사사무소 목성) 임성국 ((주)국립 건축사사무소) 정종태 (노아 건축사사무소)
	2 이 현 철 (M.A건축사사무소)	636-6411		
	2 김 학 래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523-7300		
	3 강 회 완 (조형그룹 건축사사무소)	533-6507		
	3 박 종 원 (건축사사무소 시상)	823-2280		
	4 염 규 진 (두공 건축사사무소)	226-6888		
	4 박 영 준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635-0025		
	5 이 상 훈 (가가 건축사사무소)	533-0633		
	5 박 종 민 ((주)정주 건축사사무소)	254-3314		
	6 이 세 앱 (탑 건축소사사무소)	632-2105		
	6 곽 문 수 (동인 건축사사무소)	221-3569		
	7 김 영 환 (동인 건축사사무소)	533-6507		
	7 유 병 구 (씨.엔.유 건축사사무소)	257-0004		
	7 최 재 인 ((주)신화 E.N.G 종합건축사사무소)	632-3224		
예 비	8 서 범 철 (영 건축사사무소)	822-4173	초청강연 : 초청강사-1: 강병근 교수(간국대학교) 초청강사-2: 서유석 교수(창원대학교) 초청크리틱 : 송인호 교수(서울시립산업대) 김병운 교수(부제예술전문대학) 이정규 교수(배재대학교) 이순주 소장((주)정주 건축사사무소) 여태석 소장(태 건축사사무소)	
	9 설 용 찬 (칸 건축사사무소)	254-3119		
	10 한 상 용 ((주)신화 E.N.G 종합건축사사무소)	630-6411		
	11 이 성 회 (건축사사무소 아기바전)	256-4113		
	12 윤 여 경 ((주)협창 건축사사무소)	221-2456		
	13 이 광 수 ((주)협창 건축사사무소)	221-2456		
	14 김 종 일 (M.A 건축사사무소)	636-6413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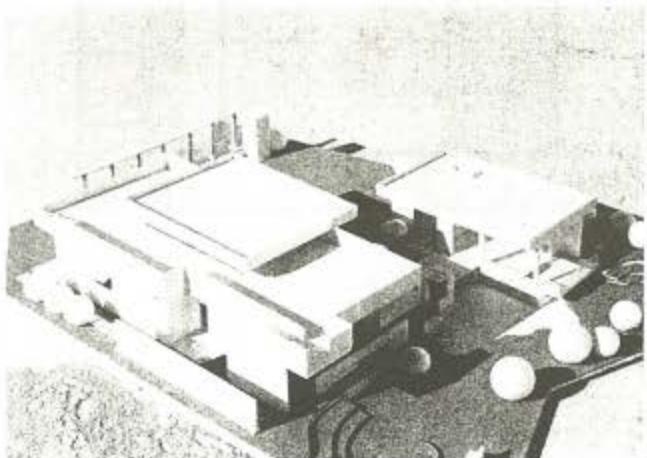
일정	시간	내용	강의진행
6월 26 (목)	14:00 15:00	예비모임 TEAM배경 강의-1:주제의 분석	김상겸 교수 길성호 교수
7월 1일 (월)	09:00 10:00 14:00 18:00	입교식 초청강연-1 초청강연-2 TEAM 작업	학생/건축사교수 초청강사-1:김병근 교수 초청강사-2:서유석 교수 TUTOR
7월 2일 (화)	09:00 18:00 18:00	강의-2:TEAM작업 공개 CRITIC-1 TEAM 작업 및 CRITIC	이순주 소장 TUTOR
7월 3일 (수)	09:00 18:00 18:00	TEAM 작업 체력단련 단합대회 TEAM 작업	TUTOR 학생/교수/건축사 TUTOR
7월 4일 (목)	09:00 18:00	TEAM 작업 TEAM작업 및 CRITIC	TUTRO
7월 5일 (금)	09:00 14:00 18:00	TEAM 작업 공개 CRITIC-2 TEAM 작업 및 PRESENTATION 준비	TUTOR
7월 6일 (토)	09:00 14:00 17:00	TEAM 작업 초청 CRITIC 수료식	초청건축가:김병윤 교수 송인호 교수, 이정규 교수 이순주 소장, 여태석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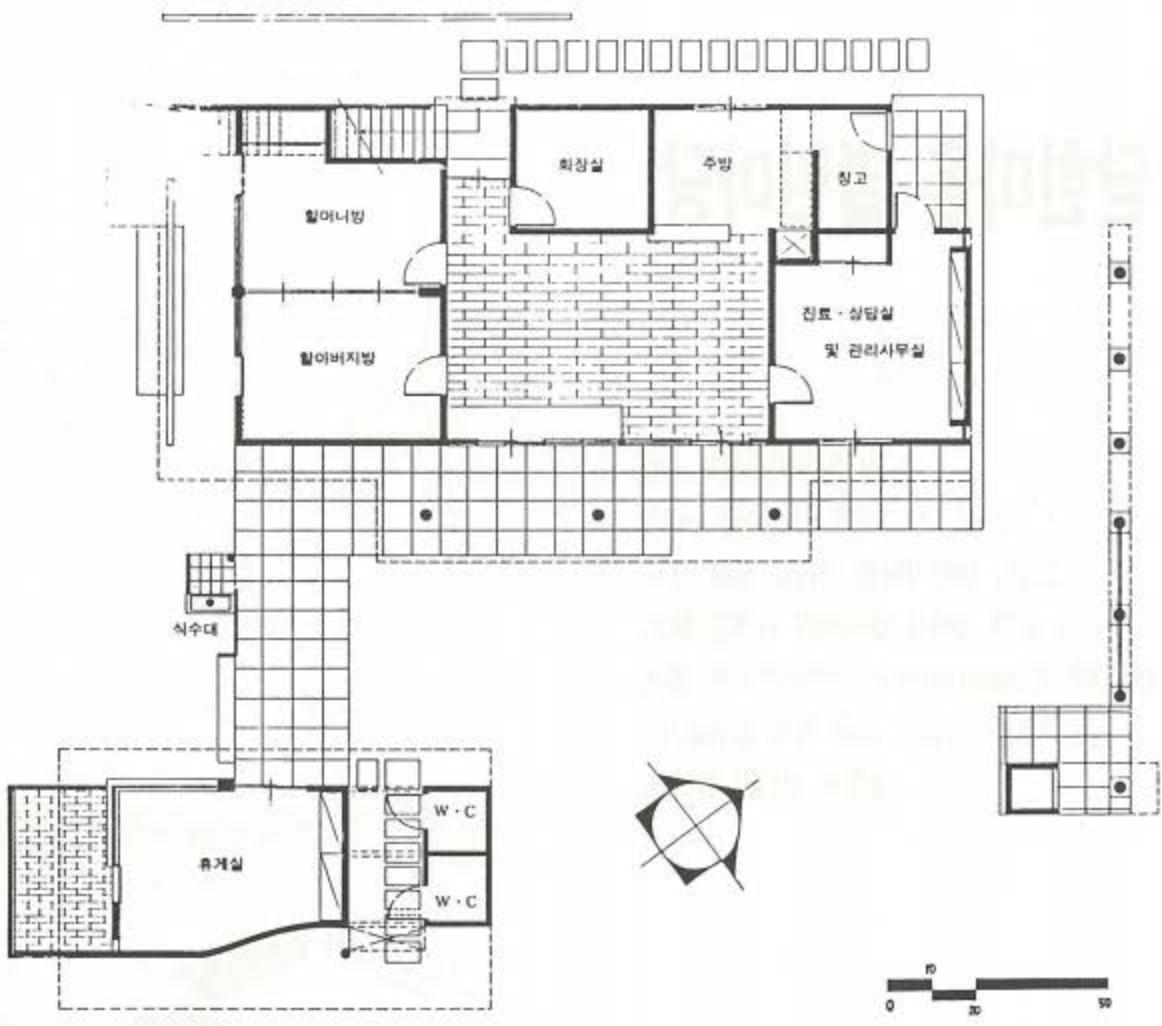
* NOTE : 중식(13:00~14:00), 석식(17:00~18:00)

단한마음·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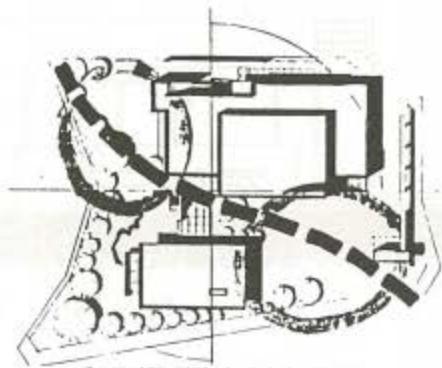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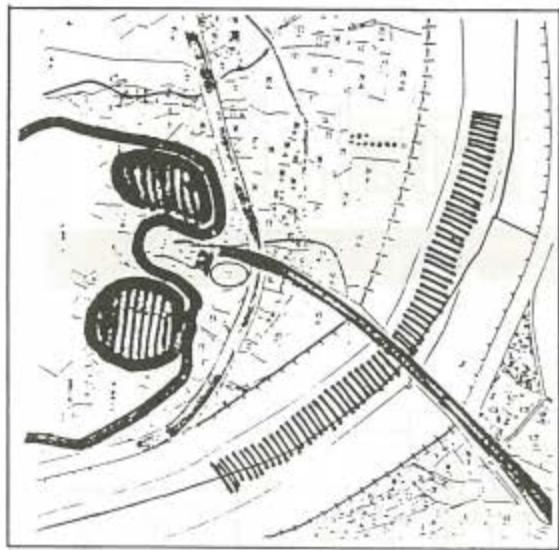
마을 어른으로서의 노인
그러나 그 자리를 잃어버린 노인들
그들의 단한마음을 마당을 통해 열고,
그 공간 속에서 잃어버린 위계를 찾고,
세대간의 단절없는 COMMUNITY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열린마당은 그들의 삶을 함께 영위해가는
공존의 공간인 것이다.

정 윤(목원대학교 4학년)
김성은(우송산업대 4학년)
이혜정(한남대학교 4학년)
권철범(대전대학교 3학년)
한미연(대전산업대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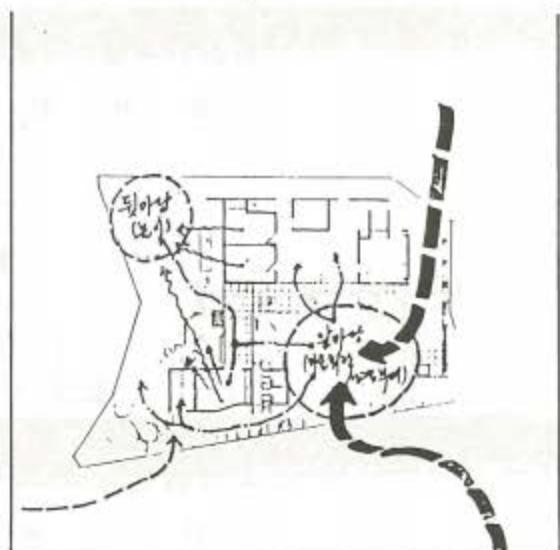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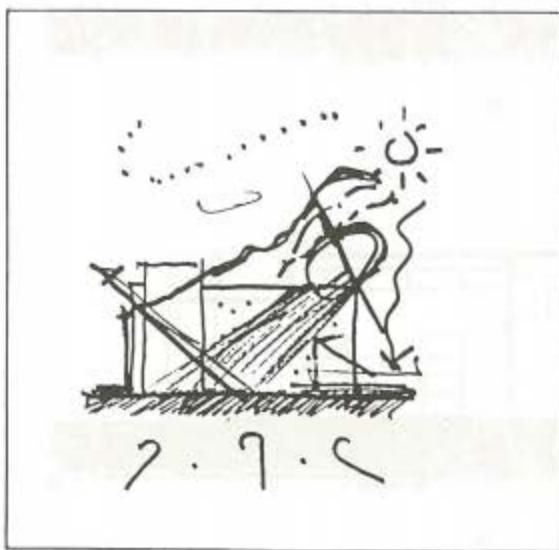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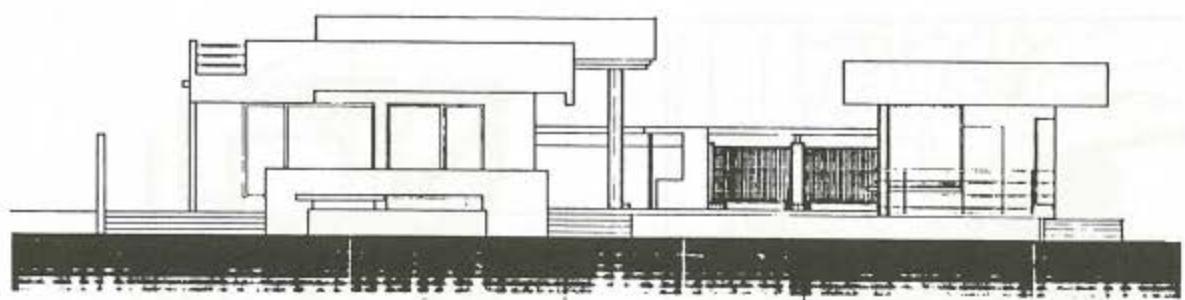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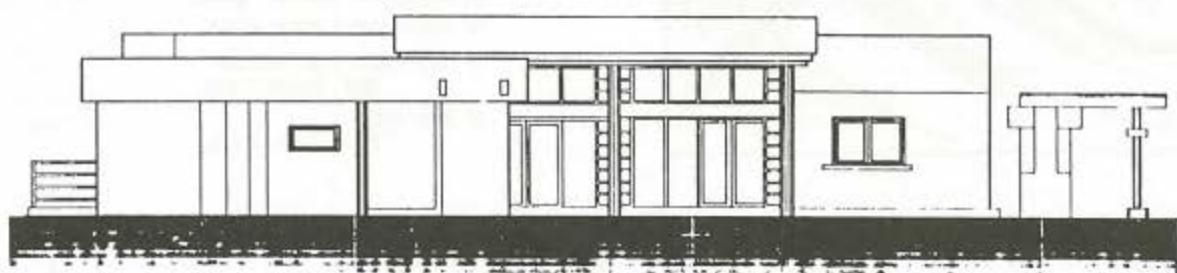


- ❖ 도시적 액학 속에서의 결절점
- ❖ 마을과 외부 사회와의 연결점
- ❖ 노인과 청년, 마을구성원간의 결합·협력의 구심점
- ❖ 통적 공간과 점적공간과의 교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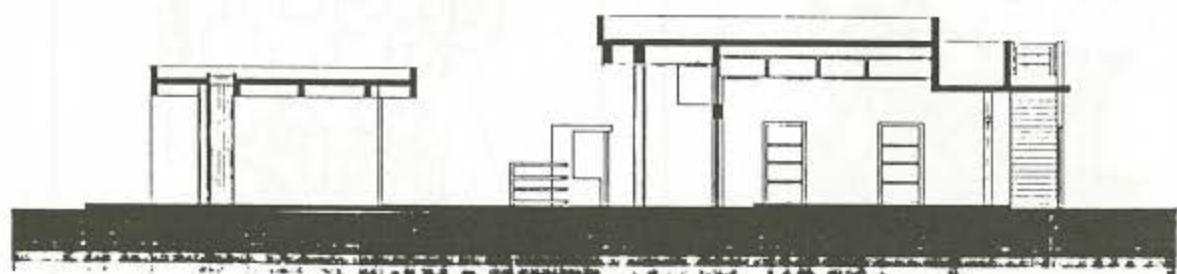




남 축 입 면 도



동 축 입 면 도



단 면 도

팀별작품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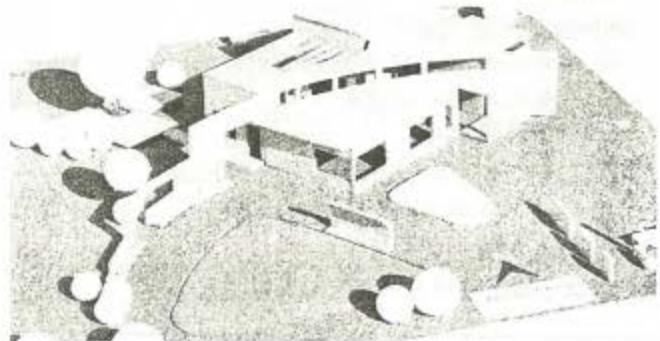
黑과白 그리고.....

공원속의 노인/靜/動/.....

노인들은 黑白의 시대를 살았다.
아니면 不이었고 正義 아니면 不義였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다색의 시대이다.
黑과 白으로 양분되는 삶을 살아 왔던 그들에게
이제는 多色의 삶을 부여하자.

백이었던 靜의 공간과
흑이었던 動의 공간은 이제 하나로 합쳐지며
더 이상 黑白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기(목원대학교 4학년)
최창호(충남대학교 4학년)
성정일(대전대학교 3학년)
이승희(대전산업대 3학년)
현은혜(한남대학교 3학년)



없는 현실을 가상하며, 조사하며 그들의 요구와 이끌어온 경험을 우리들이 이해 할 수 있었나 하는 의문이다.

과연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 세대의 노년에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인가.

밤을 새운 토론의 결과가, 노인과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떤 연계를 이어줄 것인가?

건축계획의 개념은...

공원과 주변의 관계에서 이끌어진 정과 동의 성격은 다시 공원의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한 대지와 공원과의 관계로 다시 부각되고 대지 안에서 정과 동의 성격을 이끌어낸다. 다른 성격의 공간을 한데 묶어서 그들의 행동에 작은 쪽이나마, 제약을 덜어주려 한다.

결국,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우리들만의 삶이 아닌 그들과 우리들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제안이었다.

우리들과 그들을 묶어주는 매개의 공간은 바로 이곳에 있다.

그곳에서 우리들과 그들은 공존한다.

개념전개의 방법

공원에서 유추된 개념은

노인정 안에서부터 그들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여

한단계씩 훌러나가면서 공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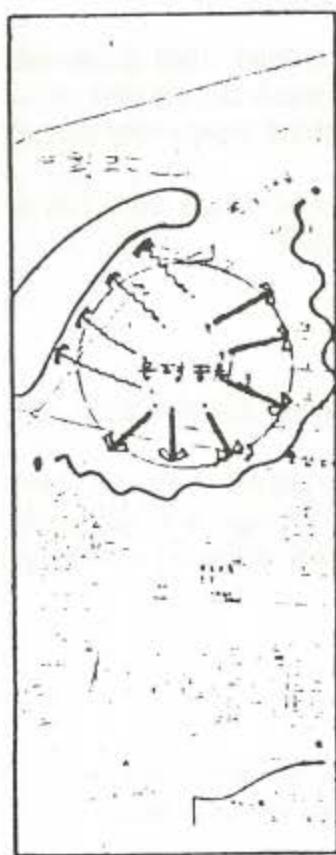
그리고 지역과 융합된다.

내부공간은, 정과 동 그리고 매개의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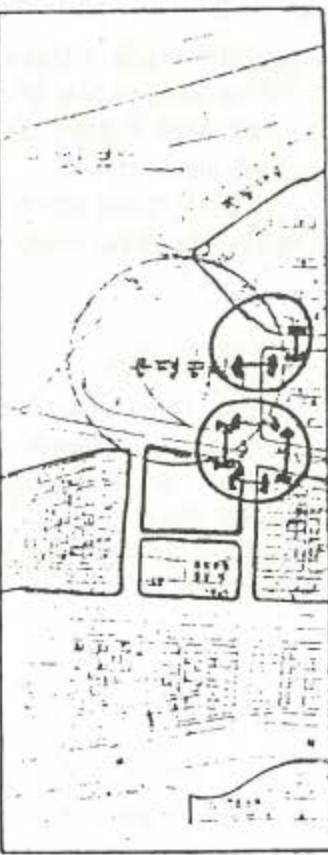
다시 내부 공간은 매개의 공간이 되어

외부의 정과 동의 공간을 끌어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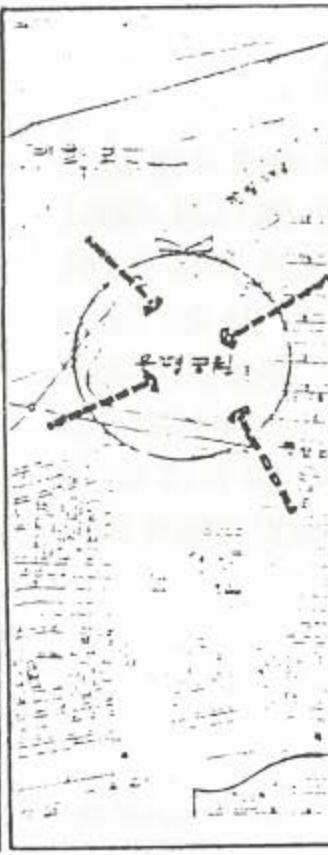
노인정은 공원의 정과 동에 매개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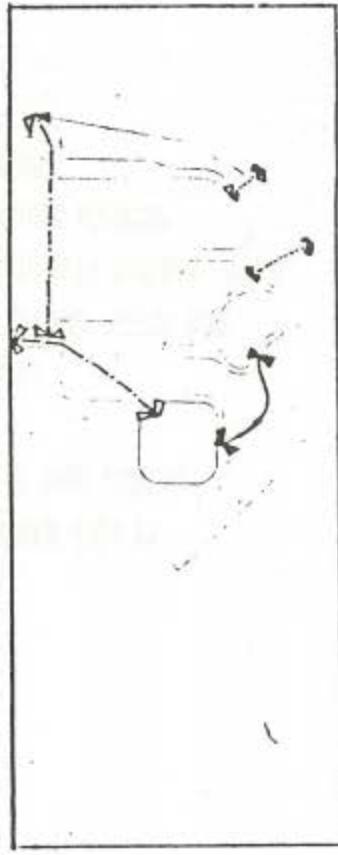
■ 대지 분석 4. = 공원의 시각적 영향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하천으로 코지 구분이 되며 근거리 조망은 대부분 양호하나 원거리 조망은 하천쪽만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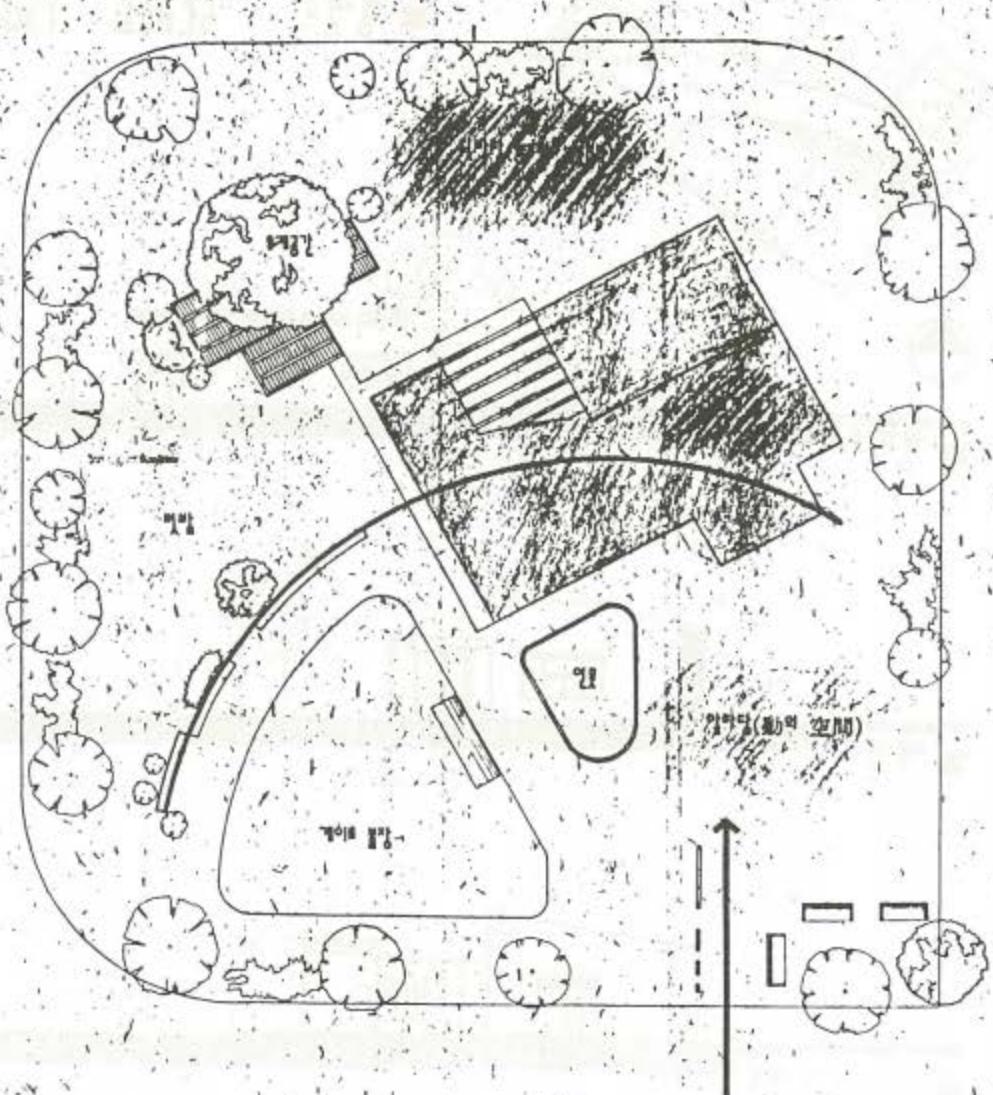
■ 대지 분석 5. = 공원으로의 진입
하천 쪽은 시설녹지로 차단이 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비교적 진입이 양호하다.



■ 대지 분석 6. = 근린 지구와 공원과의 관계
동쪽은 주거지역, 남쪽은 준주거지역이며 서쪽과 북쪽은 강천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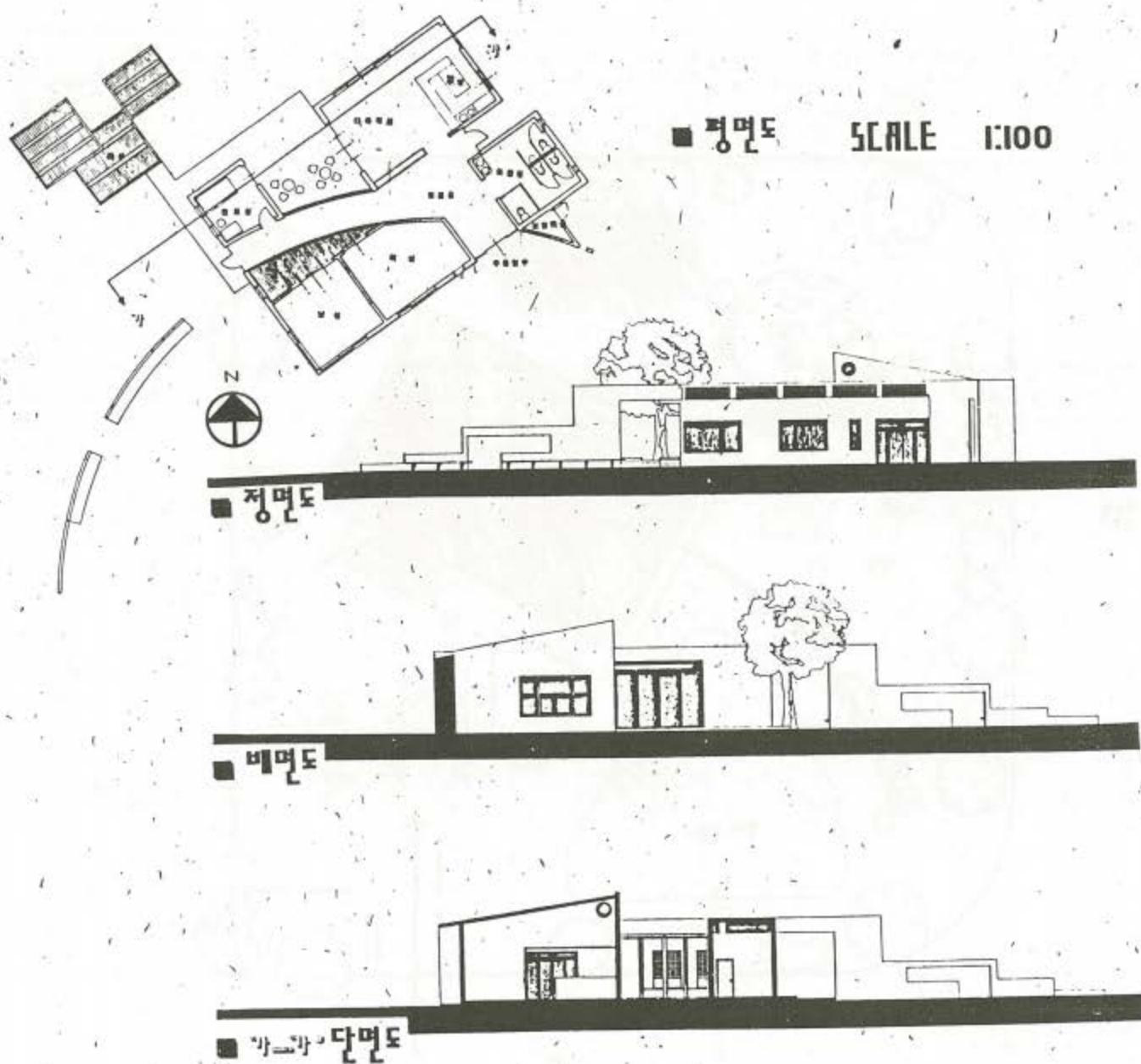
■ 대지 분석 1. = 공원으로의 진입 동선
두곳의 두 진입로를 가진다.
시설 녹지로 인하여 진입에 제한이 생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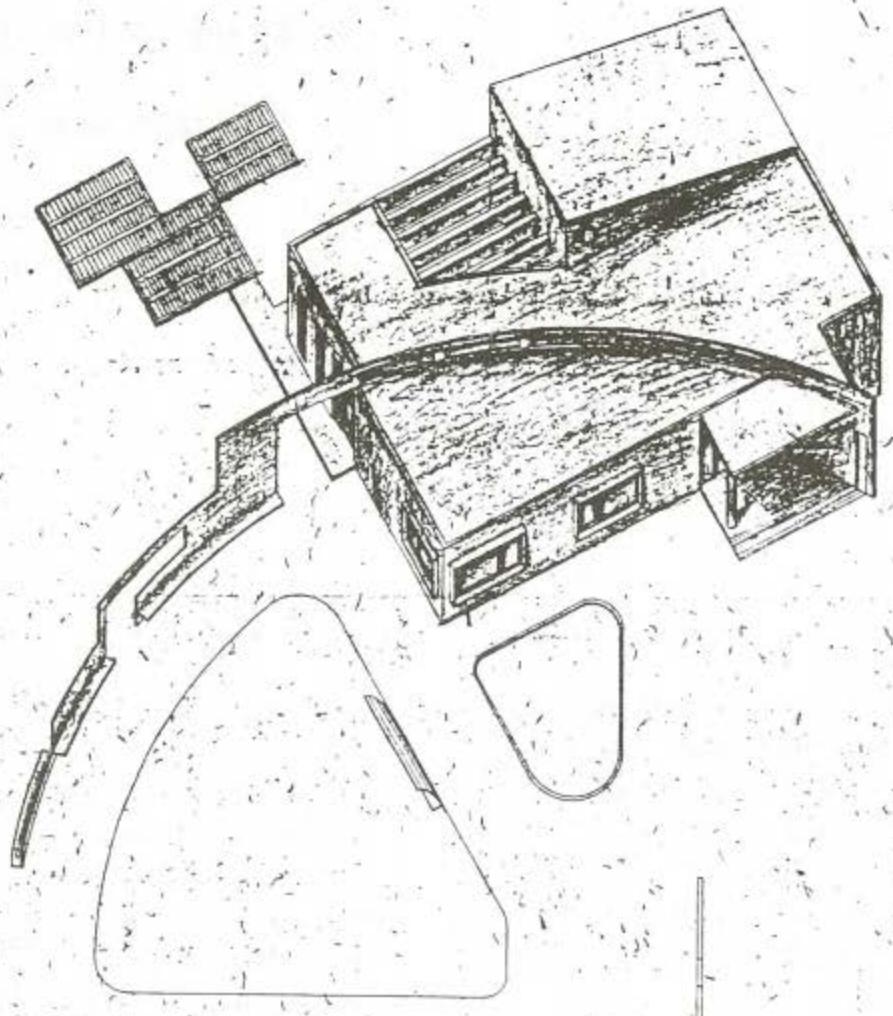


■ 비례도 SCALE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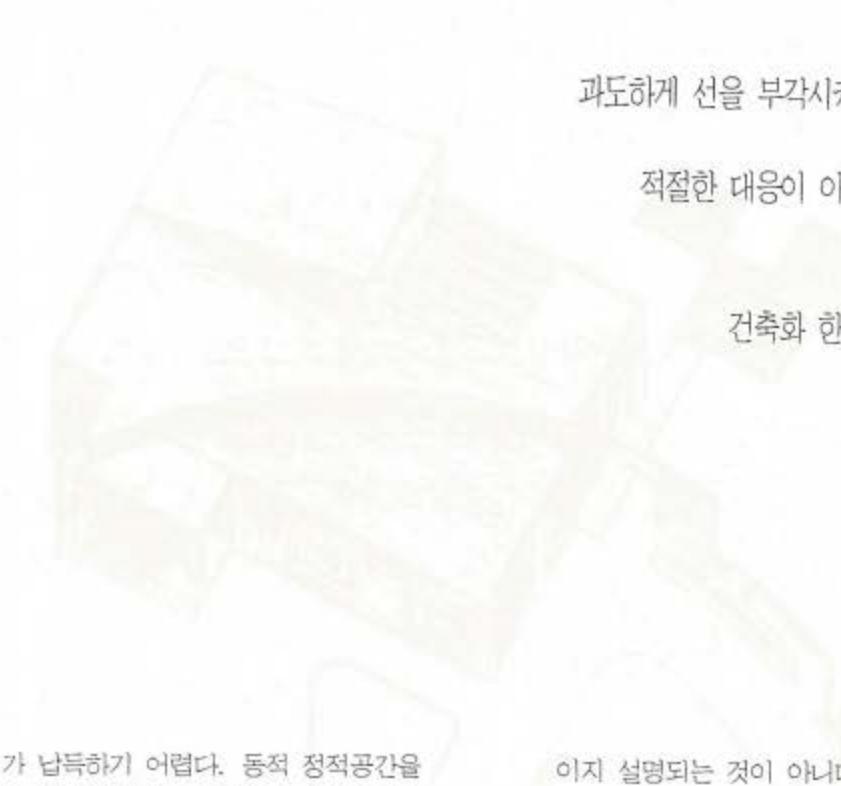


면적





■ 텐서도



건축은 선만이 아니다.
과도하게 선을 부각시키면 오히려 폐쇄적이 되고
시선을 차단하게 되므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면 공간을 해칠수 있다.
원인발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화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CRITIC

여태석 : 선의 의미가 납득하기 어렵다. 동적 정적공간을 구분하는 직선의 강력한 사용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수 있다. 곡선의 개념은 인위적으로 선의 의미를 부여한 것밖에 되지 않으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만약 곡선이 타당성이 있다해도 내부에서 라운드가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하며 형태적으로 강력하게 한다면 끝까지 축소하지말고 wall로써의 의미를 살려 주어야 타당성이 있다.

김병윤 : 원인발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화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한 선은 건축이 아니다. 곡선이든 직선이든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색한 형태의 창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선이 중요하다면 강렬하게 필요에 의한 open가능하게 건축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정동의 이분법으로 끼워 넣는 개념 전개는 배치에 대한 설명을 인위적으로 끼워 넣는 것

이지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생성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순주 : 앞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내부 라운드가 불실하게 처리된 부분에 관해서는 천창으로 인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이며 벽이 점차 낮아져 소멸되는 과정은 뒷배경인 산의 형상에 대응한 디자인 전개로 설명되어질수 있다.

이정규 : 곡선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시선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된 점이 어렵고 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선에 따라 큰 흘이되면 다양한 공간이 생성되지 않은지…

여태석 : 벽이 시선을 차단하고 인식에 어려움을 준다. 앞 뒤건물의 mass형상이 불분명하고 지붕처리가 미숙하다. 또한 뒷마루를 더욱 명확히 처리하여 뒷마루와 실의 시선이 확보되었으면 노인들의 자연스러운 동선유도가 될뿐아니라 트인공간이 될 수도 있다.

T동 노인복지시설 계획안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지?
 솔바람 한 줌 집어가렴.
 농담말구.
 그럼 댓그늘 한자락 묻혀가렴.
 안그럼.
 풍경 소릴 듣고 가든지…

황운철(우송산업대4학년)
 이경진(한남대학교4학년)
 김종찬(충남대학교3학년)
 이규영(목원대학교3학년)
 김규열(대전대학교3학년)

노인들의 행태분석

1. 노인행태(대상노인: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
 - 남선공원을 찾는 노인
 - 갑갑함을 싫어하고 확트인 공간을 원함 → 활동적인 노인들이 많다.
 - APT내에 경로당을 두고도 남선공원을 찾아온다.
 - 새벽에 남선공원에 와서 체조 및 모임이 많이 이루어짐
 - 비슷한 성격의 노인분들끼리 GROUP 형성
 - 할아버지들은 주로 운동, 그리고 담소가 이루어지며 할머니들은 담소, 그리고 운동이 이루어지며 소일거리를 원한다.
2. 현재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인근 주변노인들의 인지도 및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조사
 - 실제 노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갈망이 크다
 - 주변 APT단지내 경로당이 있으나 활동적인 노인들은 이용률 꺼려한다.
 - 현재 계획중인 노인복지회관과 차별성을 둔 공간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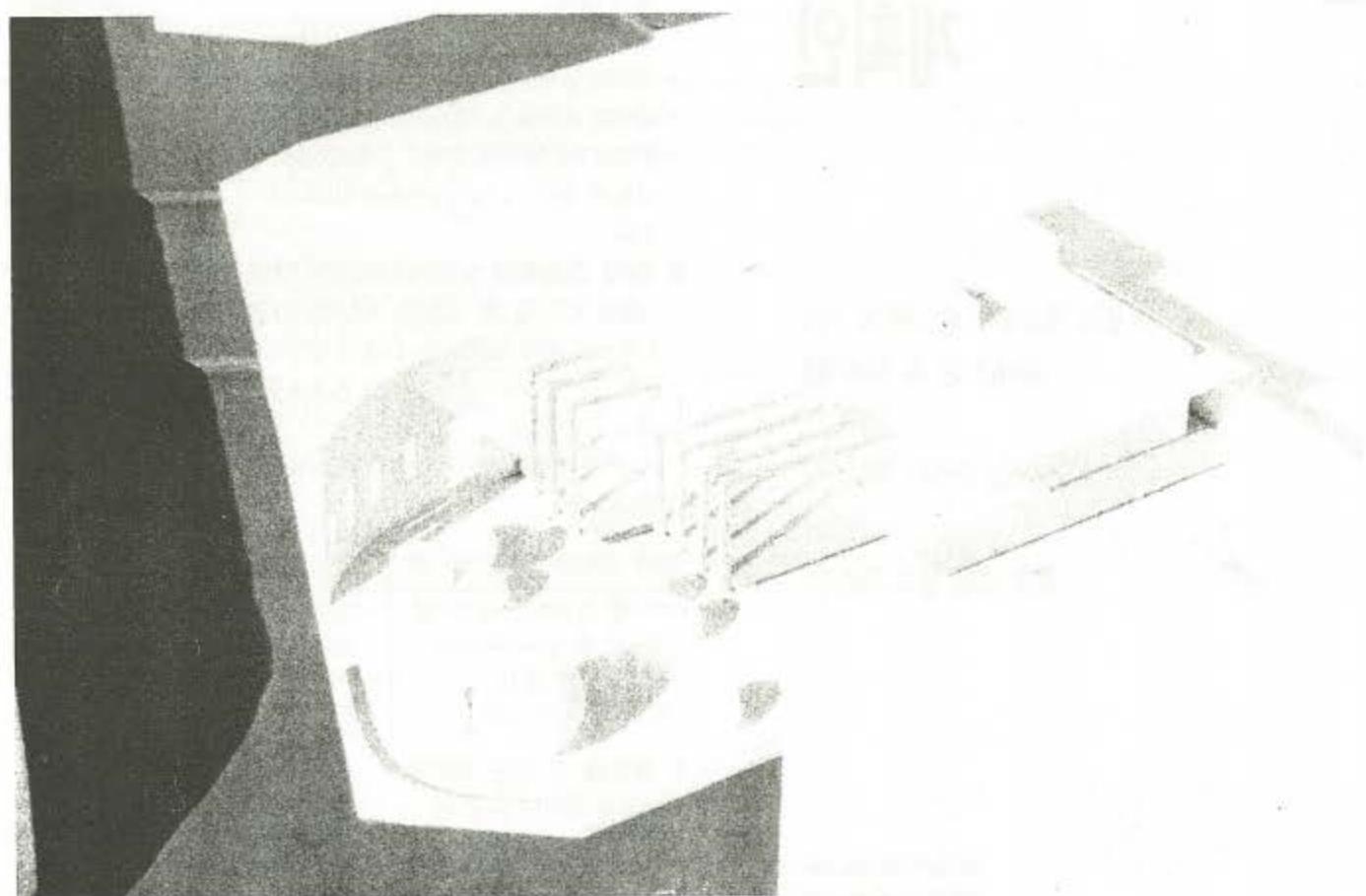
- 서구를 관할하는 복지시설
-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짐
- 형식이 있는 공간
- 폐쇄적 공간이 많음

〈T동 노인복지계획안〉

- 인근 노인들을 위한 공간
- 낮잠 및 소일거리 제공의 공간
- 자유로운 공간
- 확트인 공간 확보

3. 유추할 수 있는 공간들

- 낮잠을 즐길수 있는 밤
- 다목적 공간(소일거리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담소의 공간/간단한 식사제공의 공간/간단한 의료가 행해질수 있는 공간)
- 관리인실
- 대청 및 빗마루
- 텃밭



CRITIC

이순주 :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부기능이 용도에 적합하게 기능을 발휘하려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과의 분화과정에 나타나는 공간구조를 잘 이해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간의 분화하는 과정에서 개념화의 작업을 왜 좀 더 실험적인 고민을 가지지 못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김병윤 : 프로그램으로 볼때 형태의 언어와 공간의 언어 배치의 언어등으로 설계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가져야 한다고 볼때 학생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고 결론에 집착된 급조된 현상들만 나타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즐거움을 가질수 있을 것이나의 의문점을 던져놓고 볼때 너무나도 여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니까, 이 Site에서 정말로 한번 승부를 내보자하는 승부욕을 가짐으로써 꼭 해보고 싶은것이 무엇이고 무엇때문에 이 Site에 건물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가 그 무엇인지 모르는 중심적인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고민원가 자신 스스로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여태석 : 대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대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의 동선이 대지를 이분화하여 외부동선과 건물공간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뭔가 그 동선상에 지나다니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렇게 한다면 뒷마루라든지 둘러쌓여 있는 벽의 구성은 전혀 불리게 변화될 수 밖에 없을 터이고 또, 북쪽에 텃밭이 있고 다음에 도로가 있고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개념정리도 안되어 있는것 같다 만일 도로변쪽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남쪽으로 마당을 구성했더라면 그 마당을 이어지는 공간의 해석을 또다른 대지에 새로운 해석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변에 이웃하고 있는 외부공간의 상태가 그리 만족할수 있는 여건때문에 반론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Site를 결정짓는 Comcept이 약한것 같고 단순히 모양을 내기위한 커브벽은 내부공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아무런 연계가 되지 못하는 우유부담함을 안고 있다.

이정규 : 방금 어태석소장님께서 잠깐사이에 Site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보이는 것처럼 고정된 개념이라는 것은 한순간 달리 생각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는 빨리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주변상황에 신경을 쓰다보니 너무 위축되어 학생타운 생각보다는 시간에 쫓기는 급조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호 : 학생들은 대지나 프로그램을 풀어나가기 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설계개념에 대한 고민을 갖고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관석 : 건축의 전문방법에 있어서 concept을 가지고 건축을 진행하려고 할때는 논리에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소화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주 concept을 주장한다거나 그런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니깐 실험적인 마음을 갖고 concept을 발전시킨다면, 형태의 언어들 내·외 건축공간이든 반복효과를 얻어 능력개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enerable Space

(도심지 노인 복지시설)

노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용호(대전산업대4학년)
권명상(한남대학교4학년)
고수봉(우송산업대3학년)
김선구(목원대학교3학년)
이지현(충남대학교3학년)

우리들은 지금껏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숙고한 적이 없다. 외적인 편의 보다는 내적인 신뢰와 안정이 그들에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 사회의 꿈나무라른 청소년들을 위한 유락시설 보다 우리사회의 대들보인 노인들의 문화시설에는 인색한 우리의 태도는 노인들에 대한 영역규정과 단절을 부추기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다.

세대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기존의 대단위 노인복지 및 사회기관시설적 성격을 보완하여 정서적 공간을 계획하였다.

건축계획의 개념은 기존 건물의 노인복지 시설과 연계시켜 하나의 복지시설군으로 계획하고 경사대지의 휴식각을 이용하여 상부단으로 오르는 동선을 안전성 있게 유도하면서 주변광장과 연계 및 조망률 확보하는데 있다.

개념의 전개 방법

부지분석

① 자연환경분석

대지의 남쪽에 6M높이의 경사지가 있고 이 경사가 동쪽으로 12M까지 자연축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일조가 불량하게 보이나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늘이 없는 양호한 일조권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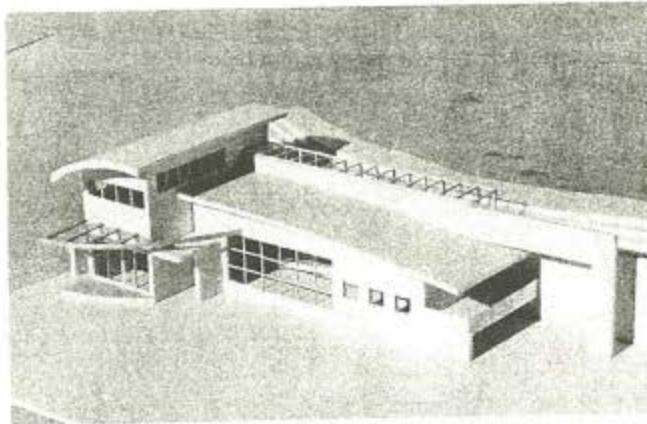
② 입문환경분석

대지는 남선공원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군의 산재로 이용률이 높다. 또한 주변의 다양한 공원시설물(썰매장, 운동장, 야외음악당, 팔각정등)이 대지뒷편에 존재하고 경사지 앞쪽으로는 200대의 주차장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인지성 : 공원내에 있는 계획부지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다.

▷역사성 : 주변에 역사적 건물
(탄옹선생 묘소와 도산서원) 위치

▷ 접근성 : 대지의 단차에 의해서 하부단은 종전의 주출 입구에서 접근하고 상단에서는 주위에 설치된 작은 어프로치를 이용



배치개념은 지역주민 이용시 노인과 동선상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위해 동선을 분리시킴으로서 외부 흐름이 유도된다. 또한 군의 형성시 옥외의 공간에 노인 체육 시설(게이트볼, 배드민턴)을 설치하고 자연스런 흐름의 설정(휴식각 이용)으로 상대부지의 이용을 증대시키며 조망과 휴식을 위한 쉼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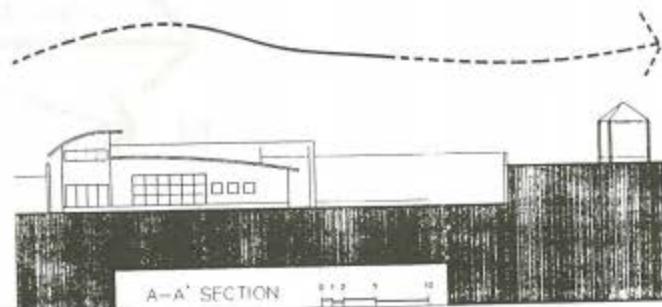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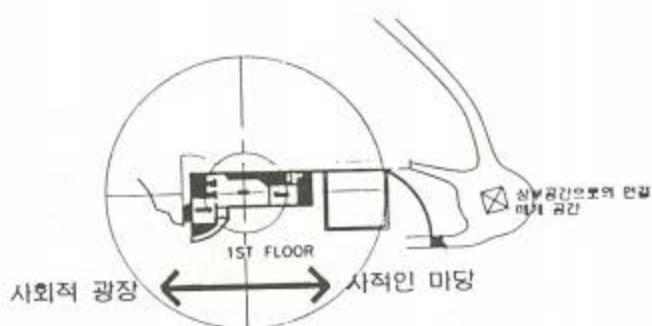
입면 계획에 있어주된 개념은 수평적 안정성과 일조에 확보에 있다. 대지의 남쪽에 높이 10M (60° 경사), 길이 30M의 축대가 형성되어 있어 노인시설의 스카이라인(지붕형태)을 형성하였으며, 일조 확보를 위해 Top Light를 설치 하였다. 또한, 축대의 연속으로 인한 강한 수평적 흐름이 있으므로 대지의 축에 순응한 가입면을 형성하여 시각적 안전성을 유도하였다.

평면개념

① 공간구성에 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 배치할 수 있게하여 프라이버시 및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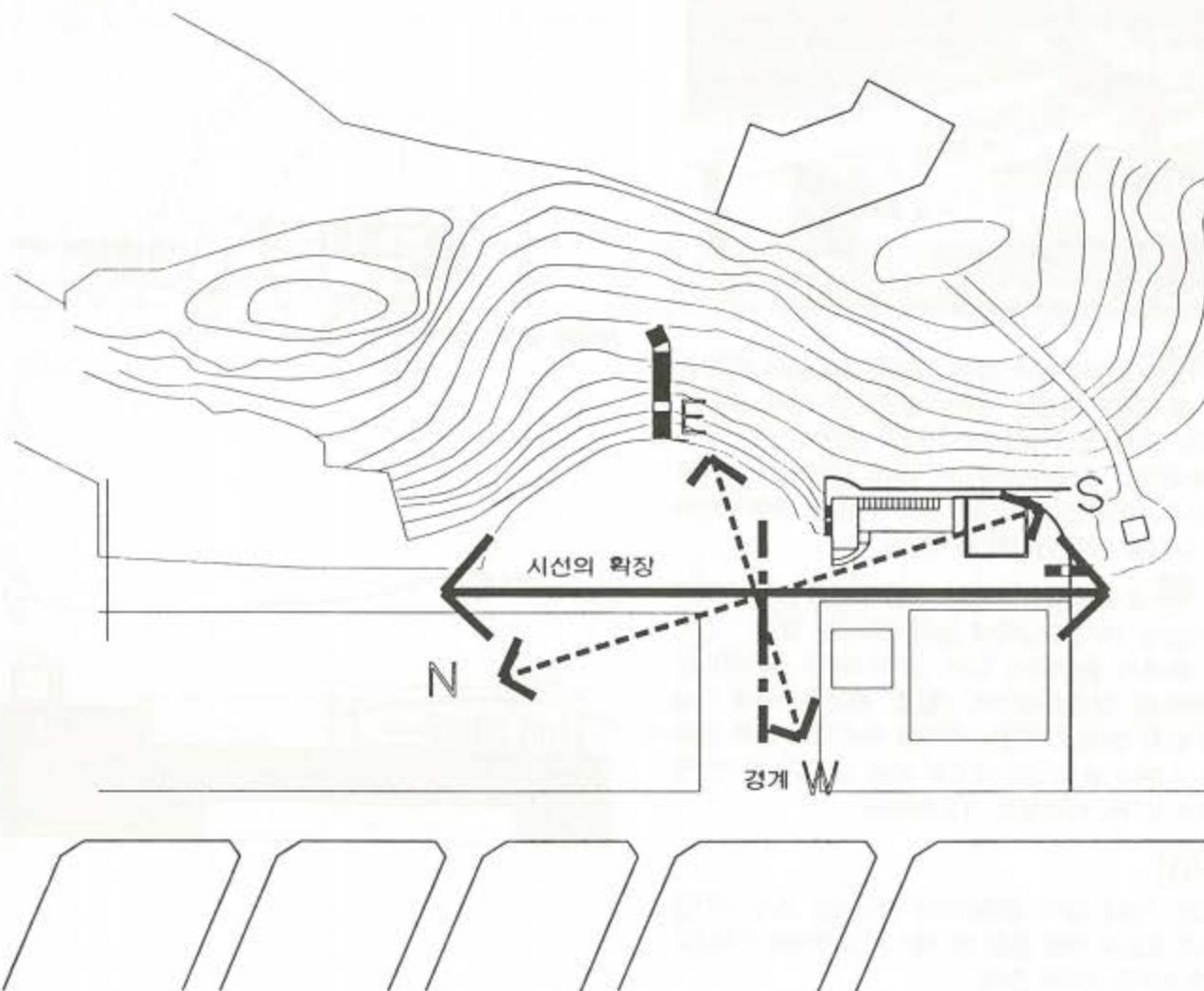
② 2층 부분에서 서당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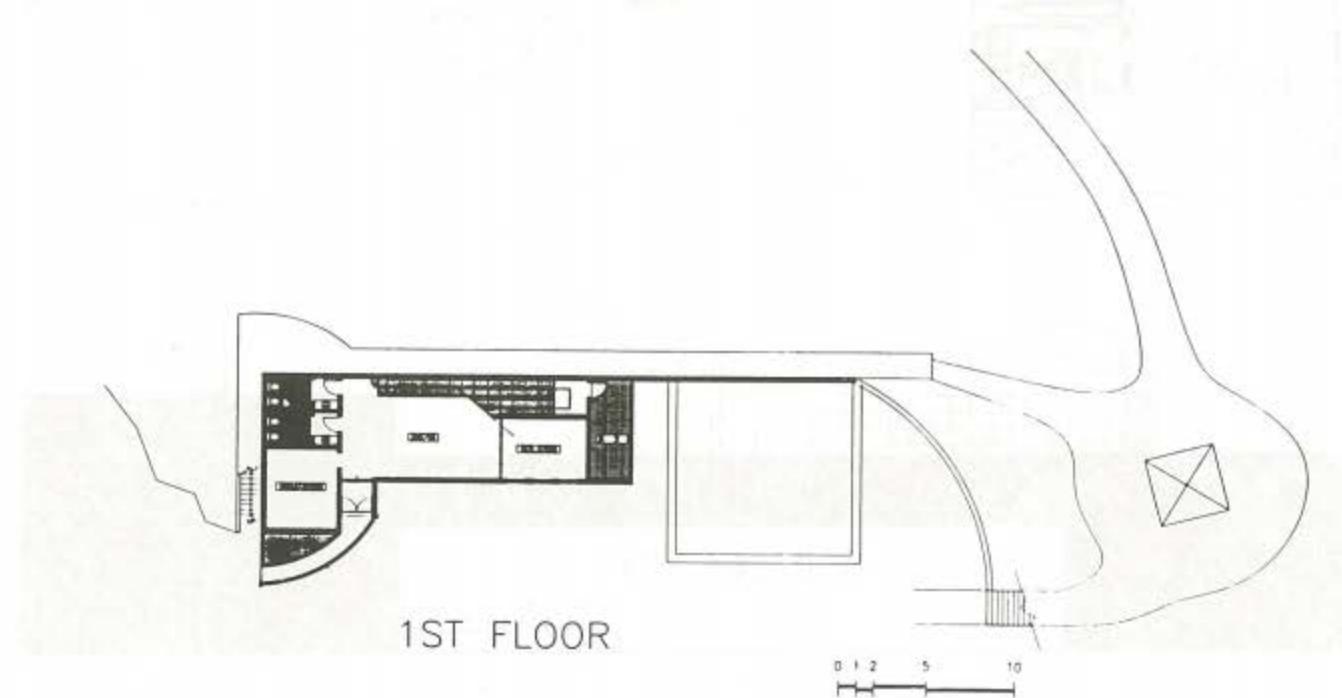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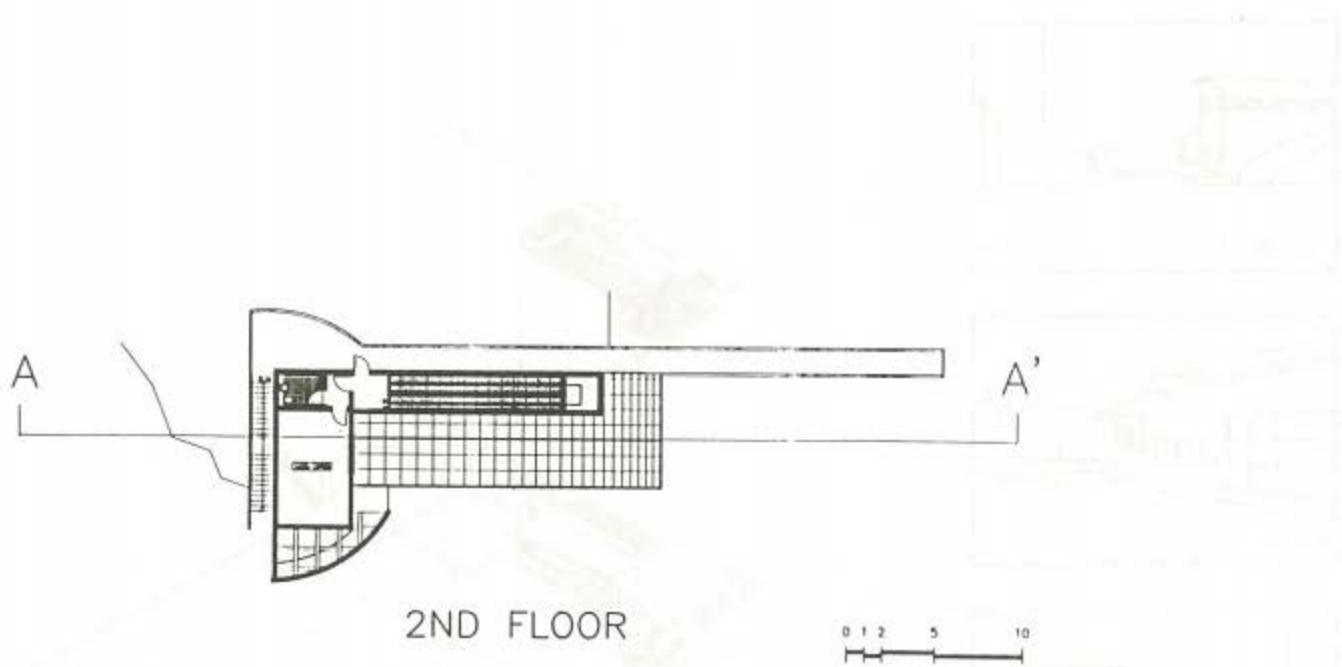
③ 중앙의 수직이동 동선을 계단이 아닌 슬로프 설치로 노인들의 안정성 고려 및 대지의 도로측에 의한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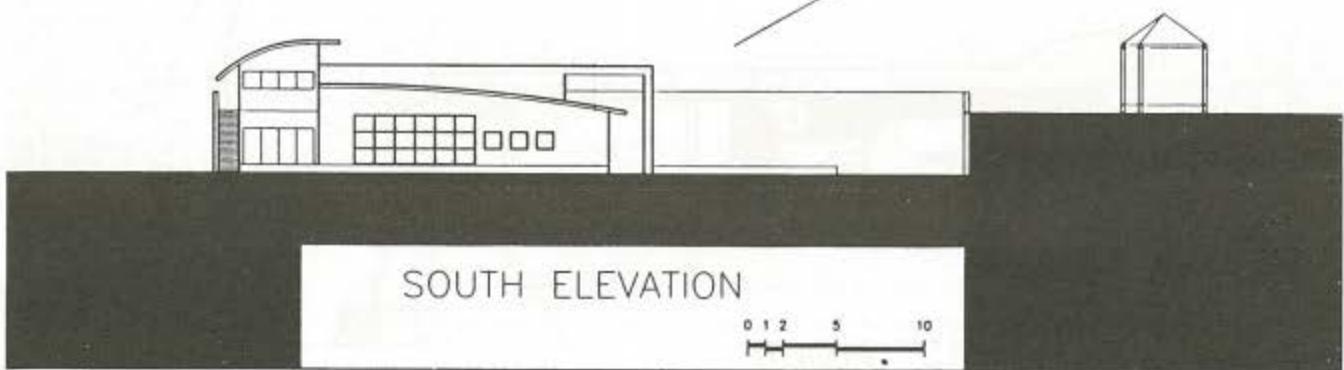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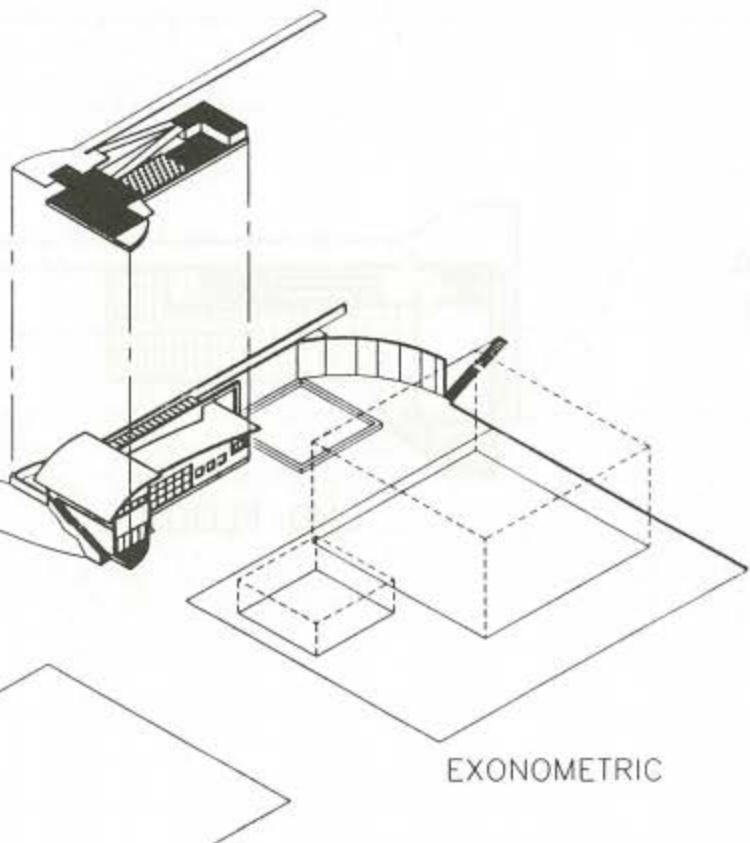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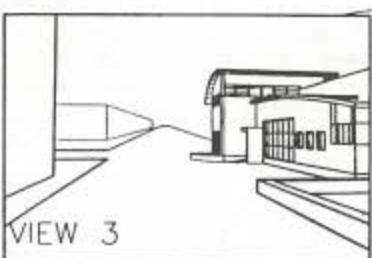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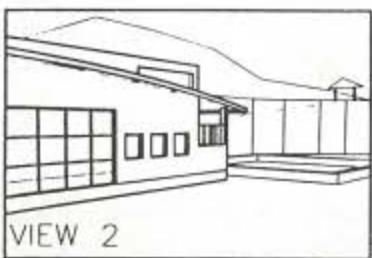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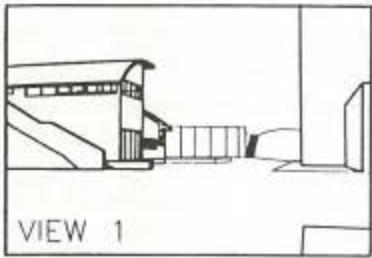


배치개념

- * 지역주민 이용시 노인과 동선상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외부흐름이 차단되고 노인의 흐름이 유도된다.
또한, 군의 형성시 육외의 공간에 노인의 체육시설(게이트볼, 배드민턴)을 설치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의 설정(휴식각 이용)으로 상부대지의 이용을 증대시키며 조망과 휴식을 위한 쉼터를 제시한다.







CRITIC

길성호 : 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싫어하며 엘리베이터 이
이 다른 동선계획이 되지 않고 오직 엘리베이터에 의존
했다. 공간의 연결은 다리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 위험
을 주며 사회적 이미지 계승이 미흡하다.

이순주 : 프로그램의 각실들에 대한 당위성과 자연지형에
맞는 경사로를 이용, 아파트 같은 이미지는 거부감을
주며 좀 저층화 시켜보도록 하며 기존시설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건물이 자연과 융합 될수 있는 동선을 고
려, 화재시 계단을 통한 피난이 가능한가? 실의 위계
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여태석 : 저층의 다목적 흘개념을 두고 수직동선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 즉 기존시설과 차별화 시키
는 방법과 지형을 살린 저층의 램프처리와内外부의
정원을 연결

이관석 :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한 단절적인 요소의 사용과

프로그램이나 대지에 대한 특성이 강조되지 못했다.
건축의 형태인 균형적인 요소에 국한되지 않았나? 본
인이 강조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병윤 : 관념적 아이디어를 건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며 덤어리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건축어휘를 담고 있어야 하며 생각과 현실의 반영
이 미흡하다.

박찬규 : 노인복지회관의 광범위한 지역의 이용을 축소해
석이 필요했으며 건물뒷편의 옹벽을 지붕의 흐름과 가
벽으로 인한것이 옹벽을 시야에서 띄워줌으로서 건물
을 살려줌

이순주 : 앞의 프로그램을 살리지 못하고 건물 전체에 수정
을 가한 것이 아쉽고 각 실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프로
그램의 먼저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수정보다는 그단계
의 발전과 다양한 방법의 전개가 필요하다.